

大幹建築士協會誌 NOVEMBER 1987. NO. 224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前日字:1987、11、15 1985、12、31 第 3 種郵便物 (4) 級 認可 - 郵便番號: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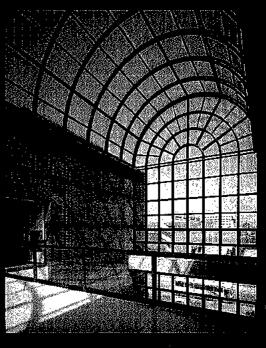
作特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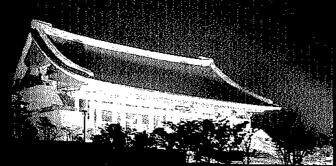
設計作品展受賞作発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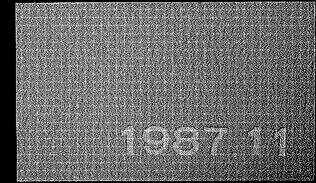
姓設計公募展受賞作発表















유지핲 수

값이 안전**않**나다 1.

支[人



품의 종합공급업

튼튼한 合板

- ●콘크리트거푸집용
- ●조립식 거푸집용 (TEGO 合板)
- ●차량용
- ●선박용
- ●방부처리 합판
- ●기타특수 합판



이건 목재 파렛트

- ●기계, 장비운반용
- ●선적용
- ●음료,식품
- 수송용
- ●창고 보관용
- 수출포장대용
- ●산업용

원목 ·제재목

라왕, 아피통, 카폴, 미송, 타운, 칼로필름, 젤루통, 나토, 이삼.

※고급특수목

월낫, 오크, 비취, 스프루스, 메플, 앨더, 티크, 부빙가, 아가티스, 다오,외 다종.



利建產業株式會社

본 사 : 인천직할시 남구 도회동 825 /전 화 : 762-7151~60 영업부 : 서울 765-2825, 2725 / 서울사무소 : 서울 757-2541~5 TELEX : EAGON K28564 /FAX.No : 762-3555

本協會 大統領表彰 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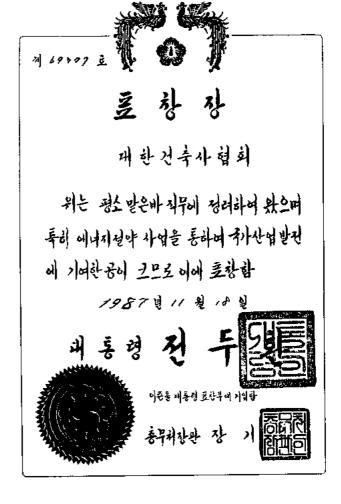
- 全国에너지 節約促進大会에서 -

本協會는 11월 18일 金貞烈 국무총리, 崔昌洛 동력자원 부장관을 비롯 1천5백여 산업체대표 및 에너지관리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全國에너지節 約促進大會에서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설계 개발과 시공기 법의 개선 및 대체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로 연간 1천 6 백 84억원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케 하는데 기여한 공로 로 大統領 表彰을 받았다.

본협회는 1979년 정부가 에너지 절약 추진시책을 시행한 이래 협회산하 연구기구에 건물에너지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에너지 절약형 설계의 개발과 시공기법의 개선 및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의 이용합리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1983년 10월에는 신축건물에 단일시공기법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단일시공 가이드북을 발간 보급하였으며 1984년 10월에는 자연열, 태열 시스템 설계기법을 개발하여 모든 회원에게 교육 홍보하였으며 1985년 3월에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부위별 단열표준시방서를 발간하여 건축공사의 감리 업무에이를 적용토록 하여 건축물의 시공과 감리단계에서 우선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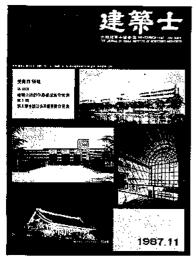
1986년에는 동력자원부와 건설부 등 유관기관의 후원을 받아 약 3천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자연형 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2층 건물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개발한 우수작품을 '86년 5월2일~12월31일 까지 전국에순회 전시하였으며, 동전시회를 건축가,일반인,학생 등 연인원 10만여명이 참관하여 국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였으며 출품된 모든 작품에 대하여는 본협회에서 매월 5천여권씩 발간하는 월간 건축사지에게재하여 이를 홍보하고 우수작품은 별도의 작품집을 제작하여 2천5백여 건축사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여 건축물이 설계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본협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축사의 연수교육시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과목만을 매회 2시간이상 별도로 배정하여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책과 관련기술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87년도 중에도



현재까지 2천5백명의 건축사에 대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전체 건물에너지가 소비하는 기존의 에너지를 설계단계에서 약 1~2% 절감시키고 시공 감리와 유지관리 단계에서 각각 1%를 절감하며, 전체적으로는 1~3%를 절감토록 함으로써 매년 5백억원 정도의 에너지 소비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지설명:제13회 건축사설계작품전 수상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2)

발행인 안 기 태

펀찬위원회

위원장 얀 장 원 원 강 태 석 부위원장 김 린 위 원 변 용 위 원 김 기 석 위 원 박 영 호 위 원 김 정 동

집 출판사업부

행=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 – 55

우편번호 135

화 : 서울(02) 교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 라-I251 등록일자 1967년 3 월23일

U.D. C.69 / 72 (054 - 2) : 0612 (519)

인 1 쇄 : 광문정판사 인 쇄 인 :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Zip Code: 135

Registered Numd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본지는 한국도서갑자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례 차

1987년 11월호(통권224호)

0	 協會像 正立을 위한 나의 提言 ···································
8	
	春日休日 (19日 74公 1-50-71-14-11-15)
_	會員作品 (13回 建築士設計作品展 受賞作 發表)
8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10	코오롱우정관 崔寬泳
12	남부청소년회관 · · · · · 姜錫元
14	독립기념관 金基雄
15	3 세대를 위한 논현동주택······金仁喆·韓英帝
16	한국은행전주지점 · · · · 李永照
18	대전대학 학생회관·····사相容
19	카톨릭증앙의료원 성모병원 金宗根
20	방배동 상호빌라
22	포철광양국민학교 ······ 李鍾甲 · 沈聖輔
	컬립
24	건설산업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혁신
	紀行
28	유럽紀行19日(2) 姜聲益
	連載
36	風水地理説과 住宅設計(1)
48	青銅器時代 및 初期鐵器時代의 住居
54	住居用建物의 設計改善方案 研究(2) 朴相東・朴孝洵・尹龍鎮
42	建築에 있어서의 形態와 技能金文德
63	第 2 回 新人·學生建築設計公募展 受賞作發表
86	協會消息
90	支部總會消息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 581 - 5715~8 서부분소/서대문구연화동169-16/333-1873

CONTENTS November 1987 Vol	224
FOCUS	
My Suggestion Lee, Young-Hee	6
WORKS (Prize Winner of The Exhibition of Architects Design Works in 1987)	
Student Center, INHA UniversityJoh, Sung-Yong & Chang, Ki-Seong	8
Woojeong-Kwan, KOLON Kumi Plants Choi, Kwan-Young	10
Youth Han	12
Independence Hall Kim, Ki-Woong	14
Residence For 3 Generations (Nonhyun-Dong) Kim, In-Chul & Han, Young-Jae	15
The Chunju Branch, The Bank of KoreaLee, Young-Hee	16
Student Hall Taejon CollegeLec, Jea-Seong, You, Byung-Uh, Park, Sang-Yong	18
Catolic Medical Center St, Mary's Hospital Kim, Jong-Keun	19
Sambo Villa (Bandbae-Dong) Woo, Nam-Yong	20
POSCO Kwangyang Primary School	
COLUMN	
The Innovation in Frame Workfor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24
Kim, Kyung - Soo	
TRAVELS	
A Trip to Europe Kang, Sung-lk	28
SERIAL	
Feng Shui Theory and Architectural Design Park, Sea- Ik	36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Chang, Kyung-Ho	48
A Study on the Energy Efficient Design Methods in Residence	
Park, Sang-Dong-Park, Hyo-Soon-Yoon, Yong-Jir	54
CRITICISM	
Form & Function in Architecture	42
Prize Winner of the 2nd Debutants/Students Design Works	63
KIRA News	86
Branch Coneral Meeting News	90

남부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882-6744 북부분소/도봉구수유동 191-13/903-3425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484-6387 강서분소/갓서구화곡동1105-5/604-7168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 101-7/923-6213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446~5244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634-2143 부산직합시지부/부산직합시중구동광동1가) (부산데파트내) (051) 23 - 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8/ (053) $72 - 5141 \sim 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합시동구대인동323-11/(06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햝시남구간석1동558 - 1/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빛당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0331) 42-6490 7072 안양분소/안양시안양동719~9/(0343) 2-2698, 2-0012 부천분소/부천시원미동74-6/(032) 63-3144 성남분소/성남시신홍동5512/(0342) 2 - 5445 의정부분소/의정부시의정부등 182/(0351) 2 - 1083 송반분소/송탄시선창동21/(0333) 4-6153 고양분소/고양군원당음주교리38년리16봇트/(0314)63-8902 구리분소/구리시수택통409-2/(0346) 63~8112 이천분소/이천군이천읍중리216-8/(0336) 2 - 3396 광명분소/광명시찰산동464-7/682 - 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통39-5/(0361) 2-2442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0371) 42~3257 강릉분소/강릉셔성대동6/(0391) 2-2262 속초분소/속초시중앙등468~66/(0392) 2-5081 삼척분소/삼착시남양동55 - 43/(0397) 2 - 3106 영원분소/영원군영원읍영용1리959-35/(03732) 2659 총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 - 168/ (0431) 2-2752 송주분소/총주시역전통673·1/(0441) 2-3082 재천분소/제천시의림동8~8/(0443) 2-6253 옥천분소/충북보은음삼산리 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사중구대용동 487-1/ (042) 22-4088 천양분소/천안시문화동160-14/(0417) 2-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라239-1/(0451) 2-2853 부여분소/부여군부여유통문리710-2/(0463) 2 - 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빌딩508) (0652) 3 - 3881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2/(0653) 52 = 3304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1가85/(0654) 2 = 4060 념원분소/남원시최정등106 - 2/(0671) 2 - 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 (062) 364 - 7567 복포분소/목포시호남동1/(0631) 2 - 7280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51-3/(0661) 2-7892 이수분소/여수시관문동435/(0662) 64 - 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합시중구동인동1가285번지/ (053) 45 - 4904포항분소/포항시축도통96 - 70/(0562) 74 - 9713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9~1/(0561) 2~2680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356 - 2/(0546) 52 - 7903 안동분소/안동시살산동125-19/(0571) 2-3641 김천분소/김천시남산동23 - 10/(0547) 2 - 2263 영주분소/영주시영주4동470 - 17/(0572) 2 - 4566 문경분소/정촌시점촌동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사중앙동 3가 3 / $(0551) 2 - 4530 \sim 1$ 울산분소/울산시납구산정통585-6/(0522) 74 **- 883**6 74 - 2555전주분소/진주서본성봉7-20/(0591) 2-6403, 42-3434-5 승부분소/충무셔서호동177-101/(0557) 2-2504, 2-7420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5B-17L/(0594) 2-3155 일양분소/일양군일양읍내일동67-1/(0527) 53-2110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0598) 2-3777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 - 3/(0523) 4 - 2669 거재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 139-2/(0558) 32-1086, 2 - 3372

재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064) 2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통425-1/(0642)62~3920, 3322

52 - 3248

協會像 正立을 위한 提言

李永熙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지부 부지부장

지난 4반세기 동안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오늘날의 우리협회가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선배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 어느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현금의 급박한 상황과 산적된 요구는 여기에만 머무를 수 있으리만큼 안일하지 않다는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회를 경원시하고. 협회의 존재의미를 의문시하는 말없는 다수가 엄존하고 있고, 우리의 잔치날이 되어야 할 총회장은 마치 정치마당을 방불하듯.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단체는 아직도 전문인의 집합체로서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역설적으로는 많은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단체가 해야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구성원의 공통분모를 응집하여 대사회, 대국가에 강변으로 대변하고, 개체의 전문적 업무수행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그 근간이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담당팀을 상설하여 적재적소에 걸맞는 인력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아랑이 선행되어야 되겠으며, 상황발생에 따른 임기용변적이고 나약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스로의 위상과 환경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 될 수록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전문성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자부와 궁지를 갖고 안주할 수 있도록 일치된 시각으로 매진 해야 되겠옵니다. 정부가 우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할 때, 관련단체의 요식적인 의건청취에서 벗어나, 전문단체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선견으로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회원 1인당 연간 1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여타전문단체에 비해 그목소리가 나약하기 그지없다는 자책 및 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소속구성원의 진실된 연대감에 입각한 참여의식과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평소의 업무를 통해서나, 자발적인 제언을 통해서 적재적기에 응접되어야 되겠읍니다. 힐책에 앞서 진정한 충고와 편달이 아쉽다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단체는 그단체 공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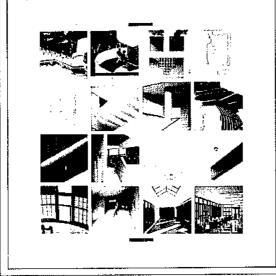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누를 끼치는 보호의 가치가없는 소수의 악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전궁궁 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하며, 정부 또하 한사람의 악화를 기준하여, 99사람의 양화를 배도해버리는 안일하고 후진적인 시각은 하루 속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수의 악화를 힐책하기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보다 다수의 양화를 존중하여 최대의 자율을 보장함이 선진시회의 행정지도가 아니가 생각되며, 우리네 전문인이 푹묵히 분담하여 이룩해놓은 우리의 전문성은 마땅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야흐로 민주화의 물결속에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되는 이시점에, 우리협회 자체의 대내적인 제도적모순, 즉 근원적으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면. 발본하여 수정보완함도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서검토라는 명목하에 회원이 저작한 설계도서를 전연 엉뚱한 회원이 또한번 스크린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인 낭비는 고사하더라도. 웃지못할 우리의 치부가 아니겠읍니까, 지자제 시행에 부용하여 지부별 독립예산제가 정착하면, 도서신고제도, 나아가서 실적회비 징수제도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평형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정보 체계구축이 시급합니다. 국내외관련 기술정보자료 기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회원상호간의 작품, 혹은 연구 결과 성과품이 협회라는 장을 통해 수록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할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제도적, 법률적 모순을 풀어나감에 있어서는, 건축사법등 관련법은 건축사만을 보호육성하기위한 법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고, 국민적 시각을 수용하는데서 부터 출발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당위성을 바탕으로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함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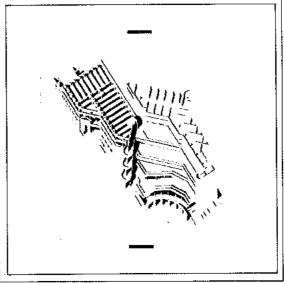
제13회

"建築上設計作品巡迴思 受赏作









大 賞: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最優秀賞 : 코오롱 우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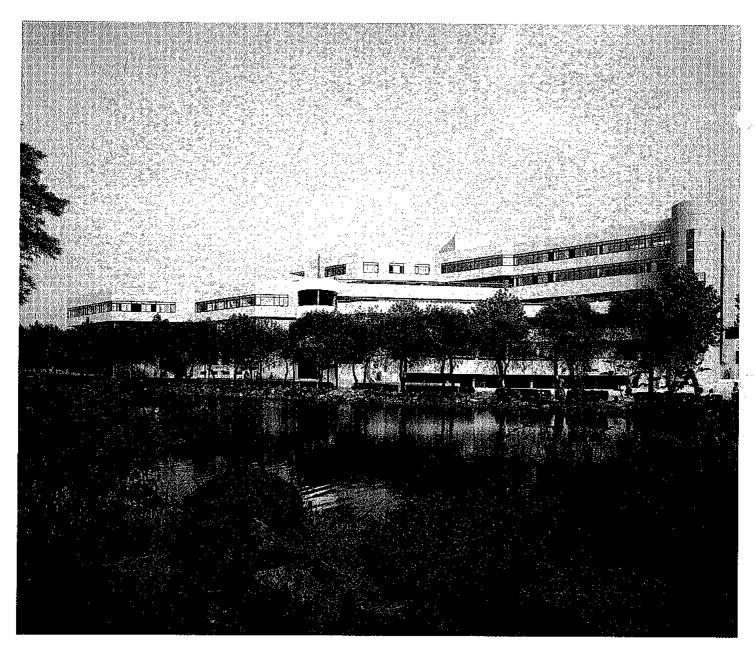
優秀賞: 남부 청소년회관

優秀賞:독립기념관

奨 勵 賞: 3세대를 위한 논현동주택 奨 勵 賞: 포철 광양국민학교

奨 勵 賞: 카톨릭 중앙의료원 성모병원

奨勵賞: 방배동 삼호빌라 奨勵賞: 한국은행 전주지점 奨勵賞: 대전대학 학생회관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Student Center, Inha University
Designed by Joh, Sung-Yong & Chang, Ki-Seong

趙成龍+張基成 /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5 / 555-5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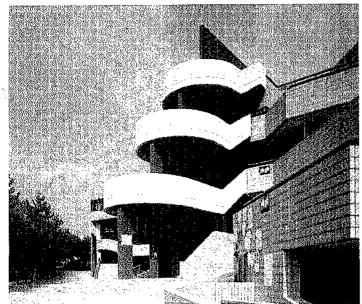
- □ 대자위치 / 인천시 남구 용현동
- □ 대자면적 / 398, 081 m²
- □ 건축면적 / 3, 697㎡
- □ 연면적 / 개축 : 4, 940㎡, 증축 : 10, 824㎡
- □ 건축주/학교법인 인하학원
- □ 준공년도/198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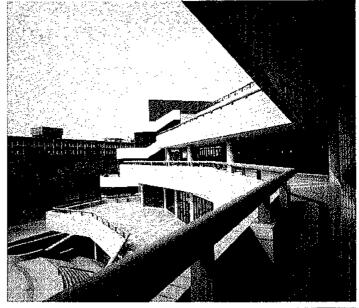
(도면 및 자세한 내용은 本誌 86년 12월호 豪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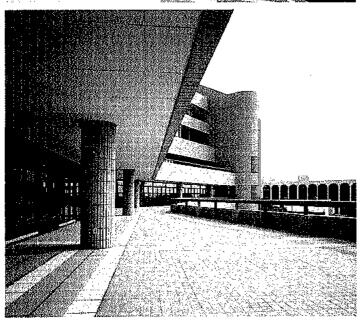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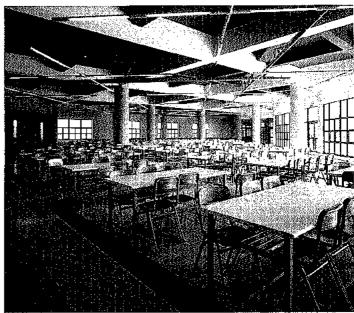
피난시절에 나는 부산에서 산기슭에 있는 작은 국민학교에 다녔다. 별 특징없는, 그리고 어디서나 흔히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교사였지만 당시의 기억들은 오랫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다시 그 학교마당에 섰을때 너무 작고 볼품 없음에 얼마나 가슴이 이퐜던가. 그뿐이 아니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의 경우도 그 장소와 크기만 조금 달랐을 뿐 매 한가지였다.

대학시절이라 하더라도 벌써 20년도 더 넘었으니 그것도 이제는 먼 추억에 속하게 되었다. 여느 대학과 마찬가지로 내가 다니던 그 때 인하대학은 지금의 모습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달라(공파대학뿐인 단과대학이었으므로) 단출하기 짝이 없었고, 캠퍼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설 공업단지의 연구소같은 분위기였다. 작고 낮은 몇 개의 강외동, 실습실과 실험실이 넓다 넓은 벌판의 갈대받 한 편에 모여 있었고,









소나무가 밀실하게 식재된 언덕이 유일한 옥외 휴식처였다. 식당이라야 목조의 작은 건물이었고 학생회관같은 것은 전혀 상상밖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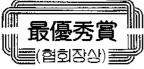
그리고 3년동안 대학신문을 제작하였다. 공과대학뿐이어서 신문이라곤 하지만 그 내용이 빈약하고 제작에 무척 힘이 들었다. 설계실과 신문사를 오가면서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냈다.

4 년전 학교의 강의 시간을 맡으면서 달라진 캠퍼스 풍경에 새삼 놀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규모가 커지고 분위기도 활기차 보였다. 교직원을 합하여 고작 천여명에 불과하던 그때와는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때 마침 학생회관을 중축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전부터 이미 있던 학생회관(이는 스승인 원정수교수의 설계에 의한 것이다.) 외 개축까지도 포함된 프로젝트였다. 이미 몇배로 늘어난 학생수와 캠퍼스에 대응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기능과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고 해결하려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식당은 물론이고 대학신문사와 방송국, 학생회관사무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캠퍼스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이 얼마나 이 계획에 깊이 연루되었는지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설계와 공사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위한 장소 (혹은 젊은사람들을 위한 공간) 라는 원칙을 지켜나감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주변까지를 포함하는 환경계획에서부터 학생들의 손이 닿는 세부에 이르기까지 이 명제에 대한 의문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혔다.

총장과 원정수교수를 비롯한 학교측의 전폭적인 도움과이해가 이 원칙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큰힘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잦은 변경과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작업에 참여한 스텝들과시공팀의 노력은 헌신적이었다.

이런저런 배경과 과정에서 학생회관이 태어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한참 더 다듬어나가야 할 저희 작업을 선하여 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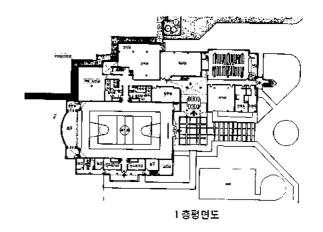


코오롱 우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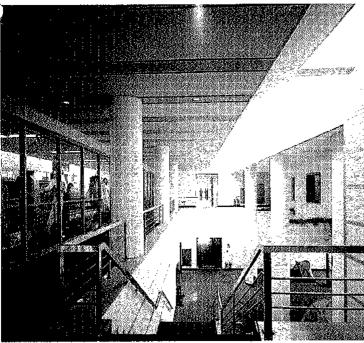
Woo-Jung Kwan, Kolon Kumi Plant Designed by Choi,Kwan-Young & Jung,Dong-Myung

- □ 대자위치 / 경복 구마시 공단통 (추) 코오롱 구미공단대
- □ 건축면적 / 2, 722, 80m²
- □ 연면적 /4, 302.57mf
 - 1 종 -2, 706. 13㎡
- 2층 -1,596,44㎡ □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파이프트러스조
- □귀모/지상2층
- □ 외부미감 / G. R. C알미늄 (프로로폰, Deep Charcol 색상 페이드라스)

崔寛泳士鄭東明/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방배본동 792-10 / 593-7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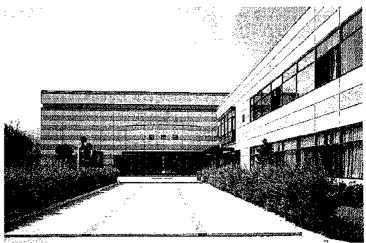






정면도

2 충평면도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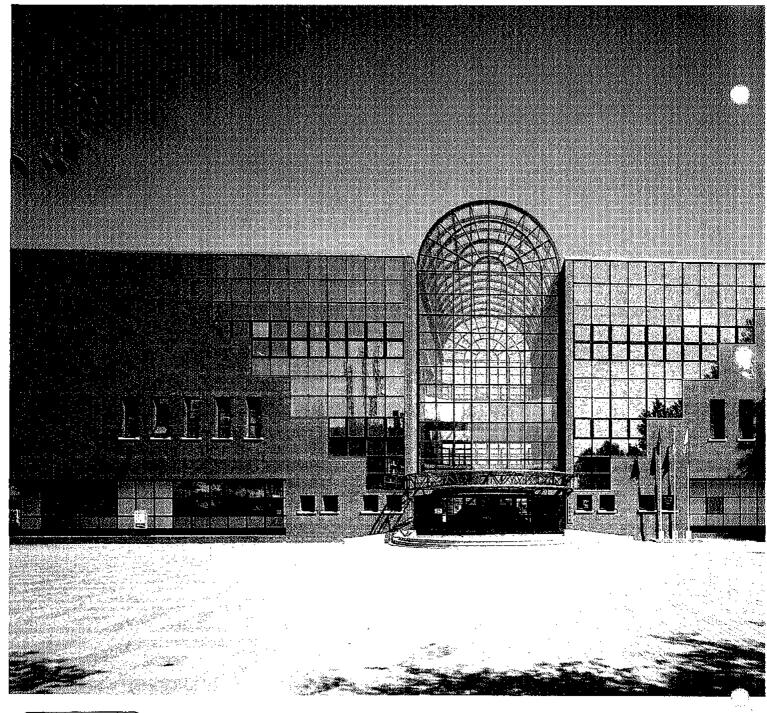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무엇에 대해서간에, 상을 받게된다는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같이 예쓴 직원들에게는 사기를 주게되어 좋고 건축주는 상을 받은 설계의 건물을 가지게되어 자랑스럽고 우리는 더욱 신임을 받게되니 더더욱 좋은 일이다.

상을 받을 만큼 작품이 우수했다는 자만심을 가지게 된것은 결코 아니지만 "코오롱 우정관"에 관한 한 별다른 감회가 없을 수 없는 것은 여태껏 해온 어떤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다 애를 많이 쏘게되었던것을 새삼 회고하게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사주팔자"가 있다고 하듯이 건물에게도 그와 비슷한것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다 별다른 애를 썻다고 굳이 말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그런 의미와 연관 지우고 싶어진다. 비록 작은 규모의 변두리에 지어질 건물이긴 했으나 14년간 코오롱과 인연을 맺으면서 다수 건물을 설계해 왔지만 본 "우정관"의 경우 만큼 우리로 하여급 열심히 하도록 분위기가 저절로 만들어 졌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건물을 설계하는데 관련 모든분야, 즉 조경, 실내장식, 가구 싸인시스템 등의 설계작업이 모두 건축사의 주관하에 또는 책임하에 이루어 지도록 되었었고 이러한 목적의 집을 이렇게 지어야 겠다는 작가의 모든 구상들(즉 배치, 공간구성과 옥내외의 분위기, 재료와 색상등) 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도 쉽게 오히려 저절로 건축주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더욱 우리의 역량을 기대해 주었고 또한 우리는 더욱 애쓰게 되었던 것으로 회고 된다.

준공, 개관과 더불어 미스코리아 경북지구 선발대회로 시작하여"사원복지및 지역사회에 대한 장소제공"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줄을 이으면서, 마침 전국적으로 일어난 노사분규 상황과 때 맞추어 시의 적절한 역활을 해왔던것도 간과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스스로도 건물의 여러곳에서 스스로의 설계역량부족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도록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들과 수상제도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마음먹는 것으로 보답하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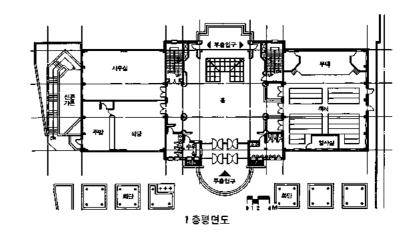
남부청소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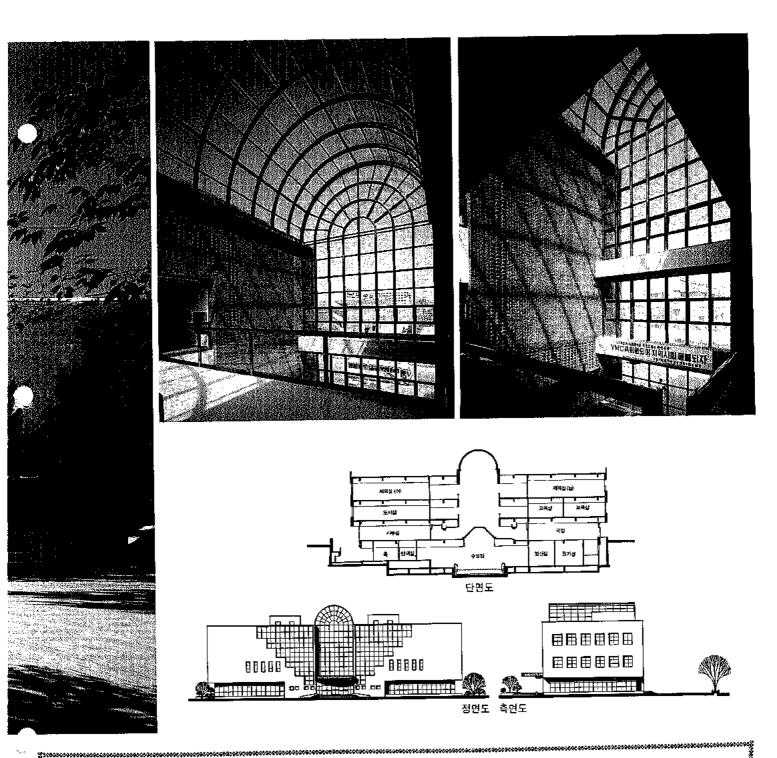
Youth Hall Designed by Kang, Suk-Won

- □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통
- □ 대지면적 /2, 314㎡
- □ 건축면적 / 1, 120 m²
- □ 연면적 /4, 234㎡
- □ 큐모/지하1종, 지상3층
- □구조/R.C조
- □ 외부마감 / 적박돌치장쌓기 + 열반사복층유리
- □ 설계/85, 4~11
- □ 준공/87.4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 구룹가

서울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 - 542 / 741 - 3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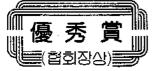
수상소감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시절은 가장 중요하다고들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끊임없이 갈망하며 추구해나가는 시기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만큼 불확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년시절에 사회문화적 환경을 통해 겪어온 모든 경험들과 예술·문화를 향한 정열이 건강한우리들 삶을 영위해 가는데 커다란 믿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세대들이 자란 그 시절은 강하게 일어나는 모 모든 욕구들을 그대로 승화시키기에는 사회·문화적 예술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작품이 주어졌을때 나의 청년시절을 회상하며,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숨쉬고, 느끼고, 깨우치는 공간,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마저 느끼게 되었옵니다. 문화・예술의 한 요소로 존재하는 건물보다는, 단순히 공공건물의 이미지로 남아있기 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는 "우리집"으로 여기도록 기능뿐 아니라 모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나의 이 작은 노력에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단련 및 정신문화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건물에 다음의 더 훌륭한 건물을 위한 초석이 되어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보다 많이 조성되어 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축주·시공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을 받도록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ndependnce Hall Designed by Kim, Ki-Woong

- □ 대지위치 / 충남 천원군 목천면 목천면 신계리
- □ 대자면적 / 910, 417㎡
- □ 건축면적 / 40, 581㎡
- □ 연면적 /50,562㎡
- □ 기념관 / 7, 852m²
- □ 전시관 / (1 7전시관, 궤도전시장, 영상전시관) 34, 642㎡
- □ 부속건물/(연결통로, 지하식당, 자격루, 독립대문)/34,642m
- □ 편익시설/(안내휴게소-동력공급실, 마표소(2),
- 식당(1), 회장실(11), 소방서, 파출소) /4,169㎡ 다 규모/기념관: 지하 1 중, 지상 4 층 전시만 및 부대시설
 - :지하1층, 지상1층
- □ 구조 / 기념관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전시관 : 철근콘크리트조
 - 부속건물 및 편익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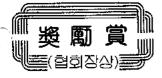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本誌 1987년 8월호 會員作品機 參照)

金基雄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8-19 / 548-5175









3세대를 위한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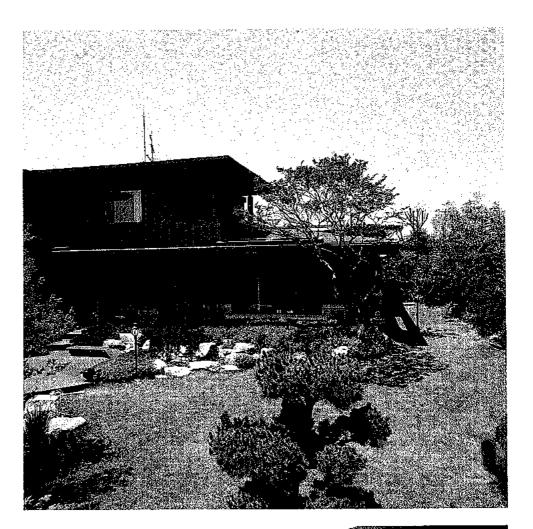
Residence For 3Generations (Nonhyun-Dong)

Designed by Kim,In-Chul & Han,Young-Jae

金仁喆+韓英帝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4 - 4 / 549 - 1104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통
- □ 대지면적 / 654㎡
- □ 건축면적 / 220m²
- □ 연면적 / 330㎡
- □ 구조 / 조적조 + 일부철률조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本誌 87년 7월호會員作品木欄 參照)



[•]수상소감

웬지 썰렁한 느낌이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탓일까 아니면 한해가 마감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일까?

언제나 그랫듯이 집 하나 지어지면 도면그리고 사진찍어서 한켠에 접어두곤 한다.

다음번 손님에게 보여주기도 좋고 혹간 있는 원고청탁 에도 바빠하지 않아서 좋다.

행여 심심할때 다시 들춰보면 옛날 앨범보듯 기억이 새로워지곤 한다.

제딴에 대견스러운 것도 있고 한심해 얼른 접어 버리게 되는 것도 있다.

때맞춰 전시회라도 있다면 수스럽지 않게 내어 보내기도 한다.

회원이 되고선 별일없으면 빠트리지않고 내다 길어놓을려고 준비해둔다.

상이란 타면 좋고 못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늘 맴돌고 있다.

그저 요즘음에 이런일을 했노라는 알림만으로도 목적은 이루어진게다.

걸려진 그림을 보러가서도 패찰 붙은 것이나 보통의 것이나 별로 구분하지않고 구경한다.

매겨진 등급에 선입관을 갖느니 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는 기대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

난데없이 상을 탓다고 한마디씩 하는것이 괜한소리만은 아닌듯해 혼자 싱긋해하다가도 별스러운게 아니라고 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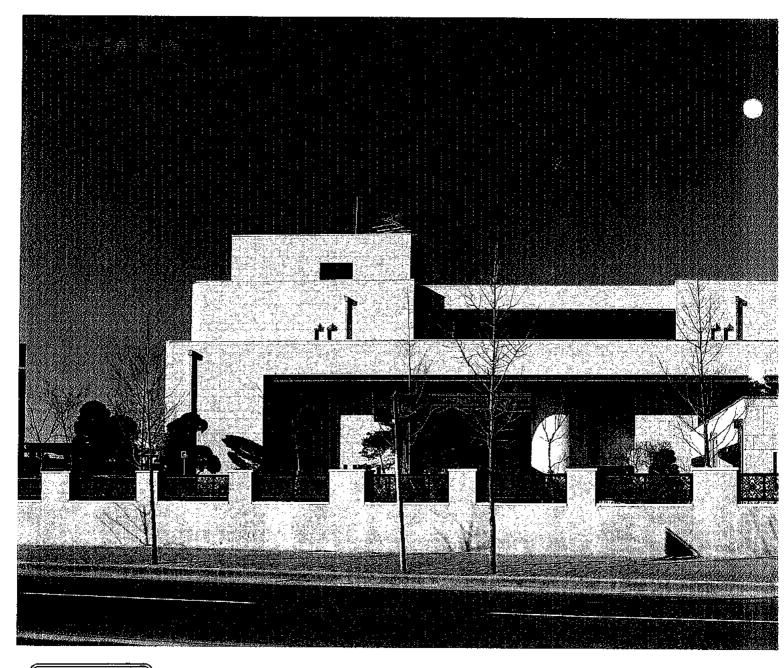


마음 먹기로 한다.

그저 남하는 만큼 만이라도 되처지지 않으면 된다고 늘상 생각해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나보다하고 생각하기로 한다.

요즈음 쉽게 스산해지려는 기분이 이런걸 기회로 조금씩 풍요로워 질수 있다면 좋겠다.

제가 좋아 재미있어서 하는일에 칭찬까지 따르면 어린아이처럼 뛰어 봄작도한데 것늙어 그런지 덤덤하게 가라앉기만하니 어째 그런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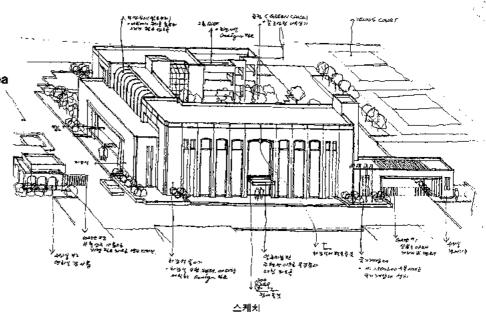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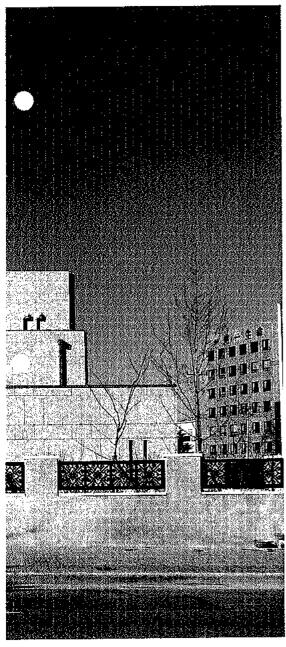
한국은행 전주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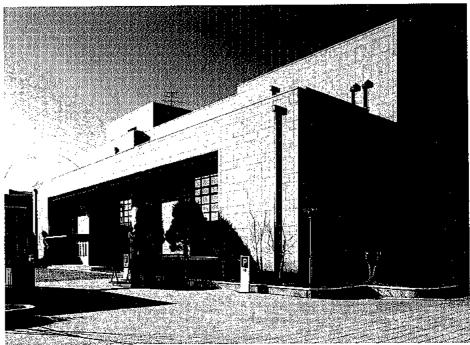
The Chon-Ju Branch, The Bank of Korea Designed by Lee, You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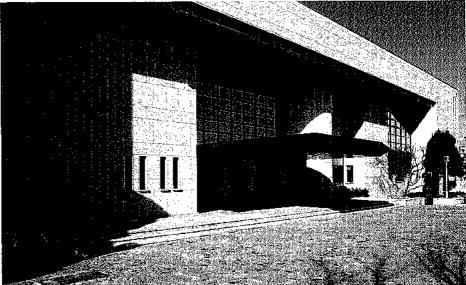
李永熙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08 - 5 / \$68 - 7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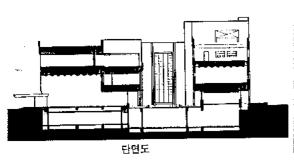
- □ 대자위치 / 전리북도 전추시 진북통1가
- □지역자구 / 주가지역, → 종미관지구
- □ 대지면적 /15, 801, 10㎡ □ 건축면적 /2, 035, 47㎡
- □ 연면적 /6, 445, 34㎡ □ 층수 / 지상 3 충, 지하 1 중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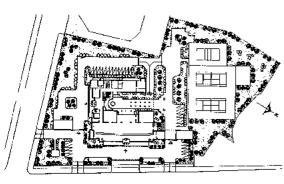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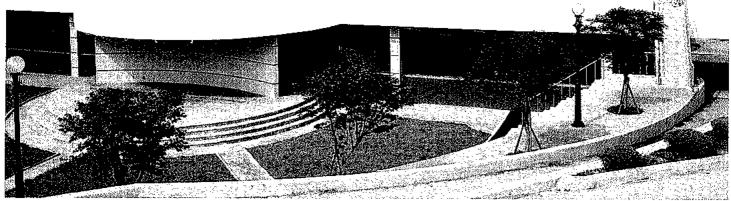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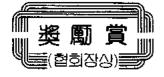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건축AY 8711 17







대전대학 학생회관

Student Hall Taejon College

Designed by Lee, Jea-Seong

& You, Byung-Uh & Park, Sang-Yong

李載成十侖炳雨十朴相容 / 씨엔유건축사사무소 충남 대전시 중구 대용동 189 / 23 ~ 0004, 253 ~ 1456

□ 대지위치 / 대전시 동구 용운동

□ 대지면적 /49, 571㎡

□ 건축면적 /2, 127㎡

□ 연면적 /5, 723m²

□ 규모/지하1층, 지상5층

□ 구조/절근콘크리트라멘조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本誌 1987년 9월호 會異作品欄 參照)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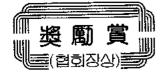
우리동네에서 제일 먼저 해가뜨는 동편 산기슭의 양자바른 터에다, 노란 원형계단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이 집을 처음 구상할 때,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기대보다도 걱정이 더 많았었다. 그러한 우리의 뜻과 힘이 모아진 본 건물이 캠퍼스인에서 무거운 건물들 사이에서 밝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의 탄생을 기뻐하였고, 새색시 시집가듯 사진찍고 물감을 칠해 내어 놓고보니 허전할 뿐이었다. 함께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말 그대로 장려하여 주시니 또 다시

함께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말 그대로 장려하여 주시니 또 다시 기쁘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혼하들 앞으로는 「지방문화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지방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은 빨리 그 시대가 오기를 갈망하면서도, 막상 다가올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고통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느끼고 있옵니다. 자꾸 원중심을 항해 그리는 우리 시야와 같이 뛰어 보지 못한 허약한 육신을 이끌고는 앞으로 똑바로 서서 걷기조차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호교류를 통한 숙련과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인화, 현상시켜 보여드리고 또 그 시각으로 살피고 싶읍니다.





카톨릭중앙의료원 성모병원

Cotolic Medical Center St. Mary's Hospital Designed by Kim, Jong-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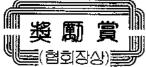
金宗根 / 종합건축사사무소 범이건축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08 - 5 / 567 - 2451

- □ 대자**면**적 / 서울시 영등표구 여의도통
- □ 대지면적 / 9767㎡
- □ 건축면적 / 4310, 41㎡
- □ 연면적 / 42, 596, 55㎡
- □ 규모 / 지하 2 층, 지상 13층
- □ 구조/철근콘크리트조
- □ 외부미감 / P. C파넬위 A. O. 타일
- □ 설계년도 / 1984
- □ 준공년도 / 1986

(자세한 내용 및 도면은 本誌 1987년 3월호 會員作品欄 參照)







방배동 삼호빌라

Sam Ho Billa (Bang-Bae Dong) Designed by Woo,Nam-Yong

禹南龍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 · 세종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637 - 5 / 585 - 0123

-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 □용도/연립주택
- □ 대지면적/1, 100명
- □ 건축면적 / 350 평
- □ 연면적 /1,300명
- □ 구조 /절근콘크리트초
- □공사규모/지하1층, 지상3층

수상소감

세로운 건축물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경건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도 회원작품전에 출품하게 되어 기쁨을 느끼며, 3년 연속 크고 작은 영예를 안겨준 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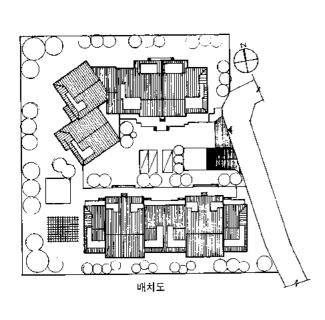
그동안 많은 빌라를 설계해오면서 느끼게 된 점은, 점점 악조건의 대지와 과다한 건축주의 요구가 무엇인가 어렵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빌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실성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건축적인 목적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면으로 이율배반성이 내포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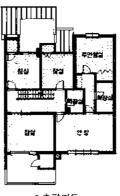
이번 작품은 동향이나 서향의 평면배치를 피하고, 단위세대평면을 비대칭형으로 배치하여, 작은 단위공간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보았읍니다.

올해에는 건축사회원들만의 축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한데 대해 적극적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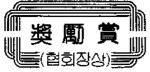
3 충평면도

Duplex Type



긴축A1 8711 21





포철 광양국민학교

Posco Kwang Yang Primary School Designed by Yi, Jong-Gap & Sim, Seong-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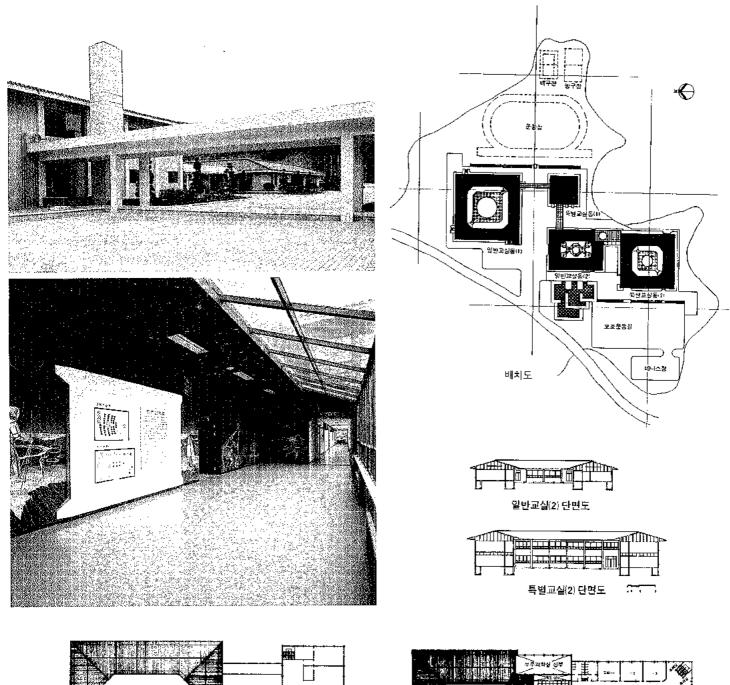
李鍾甲+沈聖輔 / (주) 세마종합건축사사무소 경북 포항시 괴동동 568 / (0562) 72 - 5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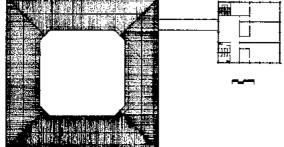
- □ 대지위치 / 전남 광양군 태금면 금호리□ 대지면적 / 38, 079㎡□ 건축면적 / 5, 998㎡

- □ 연면적 /7, 853㎡
- □ 외부마강재 /백 외장타일, 본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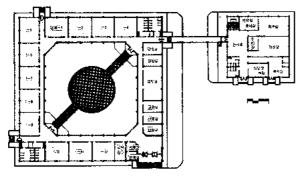
지붕 - 기와, 스레톤페인트 지붕 - 기와, 스레톤페인트 - 규모/일반교실동 - 2동(39실) 특별교실동 관리동 - 2동(7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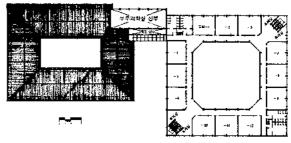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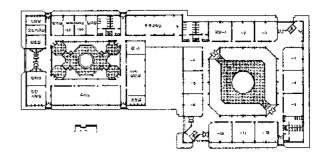
일반교실(1) 및 특별교실(1) 2층평면도



일반교실동(1) 및 특별교실동(2) 1층평면도



일반교실동(2) 및 특별교실동(2) 2충평면도



일반교실동(2) 및 특별교실동(2) 2층평면도

건설산업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혁신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에 즈음하여 -

66

건설산업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등, 건설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경제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 수준의 고도화. 복합대형시설 수요의 증대등 국내 건설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건설산업의 기술수 준은 조사설계·설계, 건설자재, 건 설장비분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저 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기술분야 에 대한 정부 민간업계 등의 개선 노 력도 미흡한 바……

"

金冏洙

建設部 技術振興担当官

I. 서언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1960년대의 경제 • 사회ㆍ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택건설 및 도로건설, 산업기지조성 등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기치아래 태동되었으며 70년대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이온 해외건설의 활황으로 양적 규모가 급격히 신장되었다. 그러나 80년대초부터 중동산유국들의 자국화 경향에 의한 해외건설시장의 수주여건 악화, 긴축재정으로 인한 내규모 건설사업의 지양 등 국내외 마이너스 요인이 중첩되어 양적으로 팽창한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신장기조가 둔화되었고 해외건설부문은 국내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호장벽 철폐 등 서어비스 분야인 건설부문에 있어서도 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어 건설산업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등, 건설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경제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 수준의 고도화, 복합대형시설 수요의 증대등 국내건선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건설산업의 기술수준은 조사설계·설계, 건설자재, 건설장비분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저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민간업계 등의 개선노력도 미흡한 바 민간부문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 투자가 0.1% 수준으로 일본에 비하여 1/4정도이고 타분야에 비하여 1/10정도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 투자부문도 첨단과학 분야에서 소외되어 기술개발 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건설업 발전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건설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 기술의 발전 저해요인으로서는.

첫째,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는 달리 정부업계의 건설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여 건설분야는 정부의 기술우위 이념과 정책간의 연계성이 특히 미흡하며 업계에서도 기술경쟁 보다는 가격경쟁에 의한 공사물량 확보에 급급하여 기술개발을 등한시하는 실정이고

둘째, 건설기술 연구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던 국립건설 연구소가 1983년에 해체된 이래 공공성이 강한 건설기술에 대한 국가연구 개발 기능이 저급한 형편이고 산·학·연의 역할 분담이 확립되지 않아 건설기술 연구능력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며 또한 종합적인 건설기술 정보 체제가 없어 가술정보 활동이 저조하고 건설업체 및 용역업체의 영세성으로 민간기술 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바 전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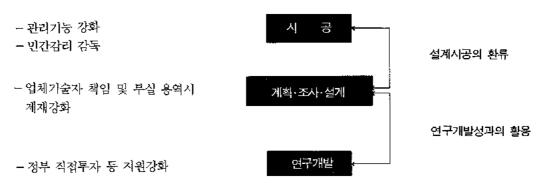


그림 1, 건설기술 체계도

건설기술 발전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세째, 건설관련 업계의 사활을 좌우하는 정부공사 및 용역 발주제도도 입찰가격에 의한 난순경쟁 실시위주로 운용되고 있고, 기술개발 보상제도 등도 실적이 전무하여 건설기술개발 관련제도가 미흡하며 현행 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형편이고 제조업 중심의 시장 및 금융지원도 건설산업 분야에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네째, 건설기술 진흥 및 관리에 대한 시책 운용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처, 건설부, 농수산부, 동력자원부, 상공부, 교통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설기술 진흥관리의 부재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건설기술의 주무부서인 건설무에서는 1983년 9월, 1급을 실장으로 하는 기술관리실을 발족하여 건설산업 기술의 정책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건설관련 분야의 각종제도 연구 및 관계법령 정비등을 통하여 건설산업 기술의 진흥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상기한 바와 같은 건설산업의 국제화, 개방화, 기술고도화 추세에 대응하고, 복합대형화 하는 각종건설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산재되어 있는 건설기술관련 제도 및 법규의 정비가 절실하게 요청되어 건설부 기술관리실이 발족한 이래 건설기술에 관한 기본법령을 제정코자 각종 관련자료의 수집, 선진국의 제도연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 연구검토 등을 통하여 1986년 초에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던중,86,8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안되어 있던 건설기술 관리법안을 '86. 10 입법 에고하였고 또한,86,9 건설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 위원회가 발족되어 근 5 개월간 건설부, 경제기확원, 재무부가 주축이 된 실무위원회에서 건설기술관리법안, 건설업법, 예산회계법 등 건설관련 각종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여 정부안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건설산업 육성, 발전 시책의 **강화** ○건설업계의 체질개선
 - ○건설거래 질서의 건전화
- 나. 우수시공 여건의 조성○적정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보장○평등계약의 실현
- 다. 책임시공·감리체계의 확립 O감리감독의 강화
 - ○시공관리 체제의 개선

○평가 검사제도의 확립

상기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건설기술 관리법의 주요 입법 개념으로, 첫째, 건설산업을 기술 주도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와 시공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건설기술 용역 분야의 역할을 강화하며 건설 거래질서를 종래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둘째, 건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설계등 용역, 시공을 연계시켜 육성하며. 건설기술의 주체인 인력의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풍토를 쇄신코자 하고, 민간의 신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기술 선진화를 달성키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제를 대폭 개선하며, 세째, 민간감리 감독체제를 정착시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품질수준을 재고함에 있다. 즉, 건설사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술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학계, 업계, 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상호환류를 통하여 기술발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분야는 시책 및 관심부재로 인하여 타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종합기술 분야임에 반하여 분야별 주체간의 상호조정, 연계기능이 저조한 바, 2000년대의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건설기술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 학계, 업계, 관련기관, 단체등이 참여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하여 건설기술진홍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시책을 창출코자 하며 건설기술정보관리, 연구기관육성, 건설기술 인력관리 등을 건설관련 주무부서에서 총괄 조정한다.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기존 대통령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설계심사위원회 및 건설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홍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상호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정부. 기술연구자, 연구성과 활용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관민 합동의 기술관리 체계를 확립코자 하며, 이 위원회는 건설부에 중앙위원회. 서울특별시 직합시 및 도에 지방위원회, 군사기밀에 관련된 설계심의를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신기술개발,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기술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다. 건설기술 인력관리

건설기술의 수체인 기술자의 관리 강화로 건설공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자격 및 경력등을 종합관리하며 또한 건설산업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특히, 이런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는 이런 적용대상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3년도 해체된 국립건설연구소의 연구기능을 단당코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국가주도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공공성이 큰 건설기술개발을 수행한다. 건설기술의 특성상 업계의 자발적 연구개발 투자는 공사 용역수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연구성과의 활용에 한계가 있고 기술개발에 의한 공사비절감 등 개발이익이 국가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대하기가 곤란하여 타제조업 분야와 달리 국가주도로 재정 투자. 지원되어야 한다. 연구원은 학술용역 위주의 건설기술 개발 및 건설산업 발전에 관하 조사연구, 공법개발 및 기자재개발,

선진건설기술의 도입연구 및 보급.

건설기술 정보센타의 운영등을 주업무로 한다.

마, 건설기술 연구개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인력·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의거 각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하며 실적이 양호한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고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호하여 공공발주 공사에 우선 적용도록 하여 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건설기술 관련 공법ㆍ기술ㆍ 설계 시공자료ㆍ기술개발 등의 정보의 수집관리 보급을 위하여 건설기술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연구원에 정보센타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바. 건설기술 용역

전설기술용역은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관리의 모체로서 기술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건설사업 과정중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 건설산업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성, 70년대의 중동진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활을 수행하여 오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건설사업 기술의 장기발전 방향을 감안한 종합적인 육성발전 시책이 사행되지 못하였고 특히 각종제도 및 이의 운용이 불합리한 것도 사실이었다.

2000년대를 향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는 이 점에서 사전 준비작업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이의 일환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유지관리 등 사업관리의 대행뿐만 아니라 실무교육·훈련에 의한 기술자의 양성의 장이 되는 등 역할이 지대한 바 실수요 주무 부서에서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의 환류에 의한 복합적 육성책 강구 등 건설기술 용역의 관리, 육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특히 건설기술용역을 정의함에 있어 건축법 체계의 입법취지를 살려 건축물의 설계는 제외한다.

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이상 공공발주 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공사 설계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민간 발주공사 중에서도 역사성이 있거나 공공성이 큰 시설물 등외 건설공사는 그 공사의 허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인된 국 ·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시험 대행능력이 있는 품질시험 대행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관련 시방서 등 제기준 등의 제정,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업체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및 컨설공사의 품질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및 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우수시공업자로 지정하여 발주서 우대함으로써 품질관리에 대한 업체간 경쟁을 유발시키도록 한다.

아. 건설공사 시공감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발주공사에 대하여 민간감리 간독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감리전문 회사에 외한 시공감리 및 전면책임감리를 외무화하고 이에 종사하는 시공 감리자의 책임 및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시공감리는 종래의 "건설공사 시공 감리 규정(대통통령)"에 외한 시공감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설계간리 위주의 감리개념에 품질및 공사관리 등을 보완한 것이며 전면책임 감리는 시공감리 대상공사중에서 앞으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대규모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70조의8 공사감독 사항중 기술사항에 대한 권한을 일체 위탁하여 시공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합화 전문화추세에 따라 공공기관 감독인원의 질적 양적 부족에 대처하고 설계와 시공을 연계시켜 건설분야 용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강리전문회사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목과 건축 강리전문회사로 구분하여 각기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코자 하며 특히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예술성 및 독창성이 유지되도록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강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4. 결어

건설산업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성, 70년대의 중동진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활을 수행하여 오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건설산업 기술의 장기 발전 방향을 감안한 종합적인 육성 발전 시책이 시행되자 못하였고 특히 각종제도 및 이의 운용이 불합리한 것도 사실이었다. 2000년대를 향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는 이 시점에서 사전 준비직업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설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이의 일환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건설기술 관리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각 관련단체에서는 충분히 이해 • 수용하여 건설산업 기술 혁신에 동참키 바라며 향후 시행령 제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소고를 마치고자 한다.



■ Madrid(SPAIN, 87, 7, 15)

Britsh Airlines편으로 도버해협 상공을 지나 다시 유럽 대륙으로 향했다. "정열의 나라" "태양의 나라" "투우의 나라" "후라멩고의 나라"라고 칭하는 Spain의 Madrid시에 도착하였다.

서기 1930년대부터 37년간 지배한 프랑코 총통의 거리인 「까스떼이야노」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콜롬버스 기념 광장과 시벨레스 광장을 지나 세계 4대 미술관증의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으로 향했다.

*프라도 미술관

원래는 과학관, 실험실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으나 찰스 3세때에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왕궁에 소속된 화가들의 311작품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에는 세계적으로 값진 그림이 3천여점 전시되어 있으며 4백여 조각품도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미술관에서는 많은 아마츄어 화가들이 유명작품의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도 무료로 되어 있다. 이 미술관에는 현재 "벨라스케스"의 「시녀둘」의 50작품, "무리요"의 「성모 숭천」의 40작품, "엘 그레꼬"의 「십자가를 안으신 예수」의 33작품, "고야"의「마야 백작부인」의 114작품의 회화와 50점의 조각작품과 "루벤스"의「프란타나스의 개」, 「세 미녀」의 83작품, 이외에도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독일의 화가들이 그린 수많은 귀중한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 THE ROYAL PALACE

이 왕궁은 마드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비적인 건물중의 하나이다. 베번이라는 건축가에 의해 필립 5세때에 시작하여 찰스 3세때에 완성되었으며 건물의 한면의 길이만도 150미터가 넘는다. 이 왕궁에는 총 2502개의 방이 있는데 후앙 까를로스 1세때에 50여개의 방을 관광성에 내놓으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봉사로 쓰이고 있다. 웅장한 주계단을 지나면 용접실과 찰스 3세의 방과 찰스 4세의 방이 있는데 화가 멘즈, 고야 그리고 까스빠리니에 의해 장식된 프랑스로코코 스타일의 좋은 견본이다. 기타 갈라식당과 거울의 방, 옥좌의 방, 이사벨 여왕의 방, 양탄자의 방, 대사들의 방등에는 베르니니의 훌륭한 조가들과 사치스러운 장식과 아름다운 가구와 회화와 양탄자들이 그 자체가 모두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TOLEDO 유적지

돌레도는 마드리드 중심가에서 72km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부터 290년 전의 고적도시로서 침입자들의 문화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세계의 박물관이다. 이 도시는 해발4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3면이 강으로 둘러둘러싸여 있고 1면은 성곽으로 쌓여 있어서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다. 2200년 전에 로마인이 건설한 알깐다리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으며서기 1516년에 이사벨 여왕은 이도시를 후세에까지 보존하도록 일체의새로운 건물을 못짓도록 하였으며 1500년 경에는 병사들의 훈련소로 이용되다가 1936년에 현왕의 할아버지

알퐁소 3세때에 모스카르도 대령과 야전군 사령관이었던 프랑코 장군과의 격전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11세기경에 아라바아인이 건설한 산 마르다교가 있으며 엘시트의 처가집인 산세리 반드로 성이 위치하고 있다.

*똘레도 대성당

이 성당에는 추기경이 거주하고 있으며 1226부터 1493년 사이에 건립하였고 거대한 암벽을 인부들이 끌로 파서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알리사당으로 지어졌으나 후에 성당으로 헌납하였으며 십자가와 촛대등 모든 제대의 물품과 조각들이 금으로 섬세하게 만들었으며 그 안에는 아라비아인이 만든 알라 사당과 알람브라 궁전을 아름다운 적국의 유물이라고 하여 잘 보존하고 있다. 성당 입구에는 "엘 그레꼬"의 세계 3대 그림중의 하나로 꼽히는 「올가스 백작이 장례식」이라는 유화가 걸려 있다.

*스페인 광장

칼라오 광장을 뒤로 면하고 있는 스페인 광장은 2개의 고층빌딩 (34층과 26층) 올 배경으로 넓은 광장이 오히려 좁게 느껴지지만 마드리드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장소이며 우편엽서에 끊임없이 나나오는 곳이기도 한다. 광장의 중앙부에는 "햄릿"의 「세익스피어」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동상이 서 있으며 기념탑 앞에는 그가 지극히 사랑한 불후의 작품의 주인공인 "동키호테"와 "산쵸 판자"가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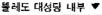
*TABLAO FLAMEN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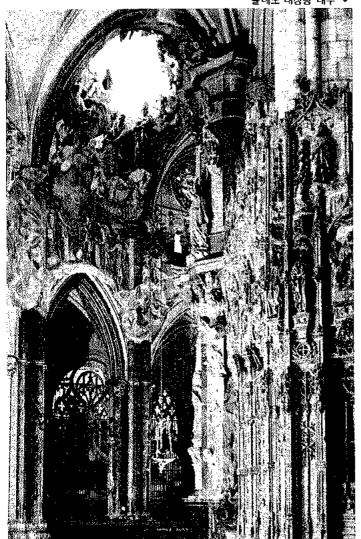
정해진 일과표에 맞추어 강행군을 하는 중에 야간에 이곳에서 빠뜨릴 수 없는 플라멩고 공연장에 갔다. 축제기간이 아니고 해서 일요일에만 투우를 공연한다 하여 투우장에는 시간이 맞질 않아 생략하기로 하였다. 먼저 실내에

들어가니 실내 분위기부터 목조 2층 건물인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아담하면서도 조명과 장식물들이 이채로왔다. 태양이 많은 나라이어서 인지 이곳 무용수들 또한 살결은 연한 커피색이며 몸매는 약간 뚱뚱하고 얼굴은 못생긴 듯한 역인이 추는 춤이 그리도 정열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다. 이곳 스페인에서도 3대 무용수로 꼽힌다는 「안토니오」라는 남자 무용수는 영화 "칼맨"에서도 출연했던 경력이 말해주듯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술성과 민족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듯한 연기를 보여 주어 관람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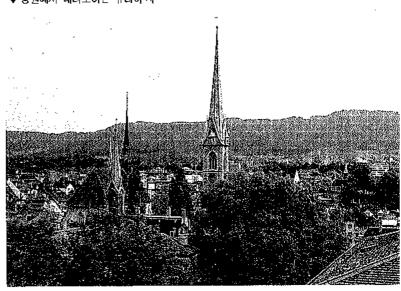
Zurich(SWISS)

서울을 출발한지도 열흘이 지나갔다. 이제 여행중에 교통편과 식사 그리고 숙박하는 일이 어느정도 몸에 베어 그런대로 견딜만 하였으며 일행중 연세가 많으신 회원들께서도 일정에 따라 잘 움직여 주셨다. 7월 17일 오전10시30분 스위스 쥬리히행 알젠틴 항공기에 탑승했다. 어느덧 희끗희끗한 잔설이 남아있는 듯한 주름진 산이 보이고 이내 반짝이는 호면이 드문드문 시야에 나타나더니 기착지가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해 준다. 스위스는 어디를 가나 산이요 물뿐이며 창조주의 은혜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곳 같으면서도 은총으로 가득찬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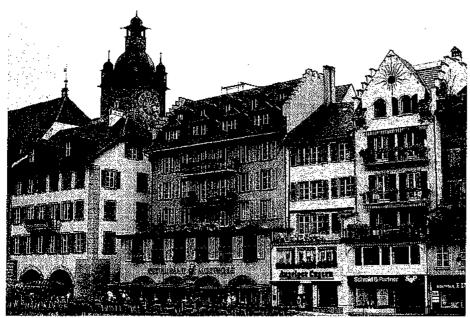




▼ 공원에서 내려보이는 쥬리히 시



건축AI 8711 29



▲ 루째론호수 옆의 아름다운 건물물

같기도 하다. 자연의 섭리란 둔덕이 있으면 버금가는 골짝이 들어서고. 깊고 맑은 물이 고이기 마련인가 보다. 쥬리하는 스위스의 동쪽 현관이며 상공업의 중심지이고 스위스에서 독일어권의 중심지역이다. 이곳의 모든 집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 설계되고 장식된 듯하다. 커튼과 외벽의 목조 구조물과 창틀에 장식된 꽃들은 더할 나위없는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준다. 유럽의 한 중앙에 위치한 스위스는 좁은 국토 (우리나라의 40%)에다가 눈으로 1 년내내 덮여있는 산과 숲. 그리고 목초지를 빼고 불파 4분의 1정도의 경작지를 가지고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라틴어 등 4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도 G. N. P가 세계 1 위 (1년 1인 2만5천불) 의 경이적인 성장을 한 나라이다. 시계로서 세계를 제패하였고. 섬유산업과 무역 그리고 1년에 1천2백만명이라는 관광객의 관광수입과 국제 금융왕국으로서 자연과 정신문화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지상의 낙원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다.

* LUZERN

이번 여행중에 모처럼 맑은 공기와 상쾌한 기분으로 충분한 휴식을 가진후 아침일찍 아메리칸 블랙파스트로 간단히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간편한 복장으로 대기하고 있던 BUS 에 올랐다. 약 1시간 정도 시골길을 달려 알프낙 쉬나프에 당도하였다. 거기에서 등산열차로 같아타고 해발 2·132m인 PILATUS 산정예 도착하였다. 톱니가 달린 열차를 타고 45° 정도의 정사를 따라 알프스의 영봉을 피부로 만끽하며 목초지와 울창한 가문비나무와 구름사이를 뚫고 한없이 털털거리며 올라만 가고 있었다.

내려오는 길에는 40인승 곤돌과 4인승 케이블카를 타고 루째른으로 내려왔다. 용병 파병을 후손들에게 기리기 위하여 암벽에 새긴 사자상과 유럽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목조다리인 카펠다리를 끝으로 아쉬운 스위스를 떠나야만 하였다.

■ Wien (AUSTRIA)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태어나서 활동하던 도시 비엔나에 도착하였다.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스트라우스, 브람스 등 많은 음악가들과 팝송가수, 영화배우, 건축가, 행정가 등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국립묘지에 들려 우리들, 아니 후세사람들에게 영원한 벗이 되어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의 묘비에서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왈츠 음악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천여년전부터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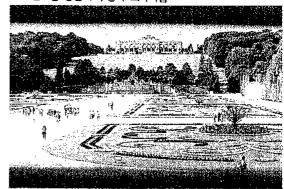


▲ 배토벤의 묘비

있는 비엔나 숲과 그 안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국경지방의 성주가 지은 리하텐 슈타인 성을 지나 슈벨트가 "보리수"를 작곡한 보리수나무와 우물터 자리에서 잠시 기념촬영을 하였다. 2 차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비행기 공장으로 사용하였던 지하동굴 관람후 베네딕도 수도원을 들려본 후 루돌프 황태자가 사냥터로 사용하다가 후에 칼멘 수녀원에 회사한 Meyerling 을 끝으로 7월 19일의 오후 일정이 끝났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현지 가이드의 배려(?)로 다뉴브 강으로 가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그곳에는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자동차를 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수영과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알몸이었으며 우리 일행도 물론 그렇게 하여야 했다.

지금도 우리 시골에 가면 가끔 눈에 뜨이는 동네 꼬마 아이들의 발가벗고 물장구치고 노는 모습은 가끔 볼 수

▼ 센브룬 궁전의 후정과 조각작품



있지만 이렇게 말로만 듣던 곳을 와 보니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준다. 저녁 식사후에는 Stadtpark에 위치한 KURS SALON에 가서 "빈 필하모니"의 명연주자 중의 한명이 지휘를 하는 소 오케스트라의 연주회에 참석하여 무용수와 관중이 함께 춤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센부른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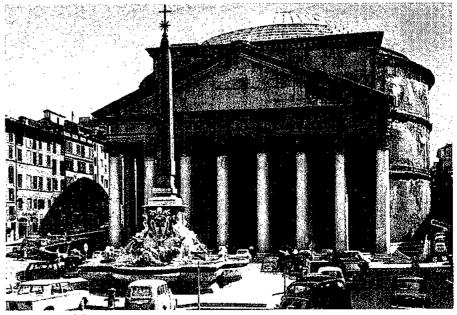
센부른이란 아름다운 샘물이라는 뜻으로 황제의 사냥터로 사용하던 중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 1600년부터 130년 동안 공사를 하였으며 함스부르그 왕가의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이 반영되어 르네상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코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신성로마제국과의 적대관계, 그리고 당시의 프랑스 브르봉 왕가 (부이 14세~16세) 와 대적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짐으로써 국력의 과시를 목적으로 건설하게 되었다.

선부룬 궁전에는 1700년대부터 1800년대에 걸쳐 전성기시대의 유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으며 특히 마리아 테레자 황제와 프란츠 요셉 황제시대의 산데리아, 가구, 벽난로 그리고 신성로마제국의 왕관, 오스트리아 왕관, 헝거리 왕관이 있고 나폴레옹이 황제에게 보낸 시계, 중국의 도자기와 많은 그림이 있으며 국제 회의장을 비롯한 1,440개의 각각 특징있는 방들이 있다.

오후에는 슈타판 DOME (성당) 과 마타아스 황제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마리아 테래자, 프란츠 요셉의 무덤이 지하에 있는 카이저 크루프트 성당과 시내 일원 관광을 하고 1박 2일의 아쉬운 오스트리아 여행을 마치고 Alitalia 항공편으로 미라노를 경유하여 저녁 12시가 다 되어 겨우 ROME 에 도착하였다.

■ ROME (ITALIA)

7월 21일 Rome에서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다. 유서깊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여행할 때에는 역사적 안목과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짧은 지식을



▲ 판테온과 승전비

갖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게 되어 제대로 정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다. Rome 는 B. C. 753년경로물루스,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에 의하여 최초의 도시국가로 탄생하여 B. C. 500 - A. D. 475 기간에 지중해 연안을 석권하는 제국의 영광을 누렸으며 1, 2차 삼두시대를 거쳐 A. D. 1700년 경에는 도시국가 왕국이 산산히 깨어져서 오늘날은 인생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낭만적이고 퇴폐적인 국민성을 가진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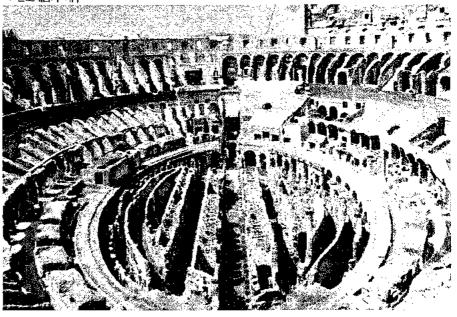
시의 인구는 450만명에 자동차가 250만대 정도이며 오후 1시에서 4시30분까지는 가게의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를 즐기는 시어스타 타임이 있단다.

* 판테온

범신전 또는 만신전이라고 하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서 지었다.

안토니우스와 크레오파트라의 동맹군을 무찌른 기념으로 B. C. 27년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내부의 폭과 높이가 각각 43,3 m의 돔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에 12.6 m 높이의 코린토식 주두양식을 가진 기둥이 16개가 있다. 현재는 성모 마리아에게 헌전한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조국 통일의 영주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의 무덤과





1500년대 말 문예부흥의 주역인 「라파엘」화가의 무덤이 있다. 판테온의 전면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승전비가 있다.

*트레비 분수

일명 애천이라고 부르는 트레비분수는 1762년 클레멘스 12세때에 "니콜라이 살비"의 바로코 스타일의조각이 있으며 이 애천애 동전을 1개던지면 다시 로마에 오게되며 2개를 던지면 연인과 함께 돌아오며 3개를 던지게 되면 로마에서로멘스를 이룬다는 얘기가 있단다.

* Colosseum

꼴로세움은 이탈리아의 국보 I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과거의 화려 하고 장엄함에 아직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원형 경기장은 프라비오에 의하여 A. D. 72 - A. D. 80년 동안에 히브리의 죄수들을 이용 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긴방향의 직경이 205야드이며 짧은 면의 직경이 170야드에 달한다. 외부의 3열의 아치에는 도리아식,이오니아식, 콘린트식의 기둥과 4층 벽에는 코린트식의 벽기둥이 장식되어 있다. 이 경기장이 완성되자 100일동안 축일을 기념하였으며 이곳에서는 9 천마리의 맹수들을 촉제기간동안 죽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나운 짐승들의 공포 속에 직업 검투사들의 생사의 싸움을 즐겼던 곳이다. 후에는 그 곳에 인공 연못을 만들어 모의 해전을 즐겼으며 5 층으로 된 스탠드에는 6 만명의 시민이 관람 할 수 있는 규모다. 8세기 경 "베네라블베데"는 「꼴로 세움이 존재 하는 한 로마가 존재 하며 꼴로세움이 쓰러 지면 로마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면 세계가 멸망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1084년에 노르만인의 약탈이 있은 후에는 고대 로마의 고풍의 골격만 남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몇년동안 버려두어 새로운 건물을 위한 채석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 프루비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손을 집어 넣으면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진실의 입」을 가진 대리석 마스크로 영화「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햄번과 그레고리팩의 연기 장면이 떠오른다. 그리스인의 이주지역에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지은 "장식의 성모 마리아 성당"의 입구 벽에 위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저마다손 바닥을 집어 넣고 혹시 입을 다물어 버리지 않나 하고 깜짝 놀래는 일이 많다.

* 카타 콤베

그리스도인이 박해로 인하여 땅밑으로 신앙을 찾았으며 피신처로 그리고 무덤으로 사용하였다. 총 길이가 무려 19Km나 되며 안에는 어른 5 만,어린이 3 만 도합 8 반명의 무덤이 있다.

*THE VATICAN CITY 예수가 베드로 사도에게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라"고 한 성경의 말씀대로 바타칸 언덕에 초대교회를 세웠다. 브라만테에 의하여 최초로 디자인이 시작되어 176년동안 라파엘.



상달로와 미켈란 젤로에 이르러 거대한 그리스식의 십자모양의 돔이 채택되었다. 미켈란 젤로의 사망 후에도 그당시의 설계를 하나도 변경 없이 계속 공사를 완성해 나갔다. A.D 312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때 공동묘지 터전 기초 공사중에 대석을 발전하게 되어 이 위치에 성전을 짓게 되었으며 건평 15,160㎡ 이며 중앙제대의 길이가 186㎡, 폭이 118㎡, 천정높이 42.5㎡ 나 된다. 내부의 모든 그림이 작은 돌로 모자이크를 하여 그렸으며 쿠졸라라고 하는 중앙 제대의 용트림을 하고 있는 4개의 구리가등과 장식은 로렌스 베르니니의 작품이다. 성전의 한 중앙 십자가의 교차지점에 베드로 성인의 무덤이 있고 베드로 성인의 동상의 발은 많은 관광객의 손에 의하여 발가락이 달아서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성전의 우측에 Porta Sameta라는 커다란 구리문이 있는데 전에는 100년에 한번씩 문이 열렸었는데 이 문은 교황께서 천국의 열쇠로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 간다는 문으로서 요즈음은 25년에 한번씩 문을 열음으로 다가오는 서기 2000년 부활절에 문을 열게 되어 있어 수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 때를 기대하고 있다 한다.

*시스틴 채플 바티칸 시티내에 베드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CAPPELLA SISTINA는 식스투스 교황을 위해 만든 예배당으로서 당시의 화가 브라만테가 문예부흥의 거장 미켈란 젤로를 교황에게 천거 하여 서기 1473년에 공사를 시작 하였다. 여기에 미켈란 젤로의 대작 천지 창조(천정화) 와 최후의 심판(벽화) 이 있다. 미켈란 젤로는 천정에 업드려서 4년 7개월 동안 그림을 그린 것을 합쳐 도합 13년 동안의 오랜 세월을 이 두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 그림을 보고 당신의 거장들은 두문 불축 하였다고 하며 요즈음에는 이 그림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기술자들이 4 년동안에 걸쳐서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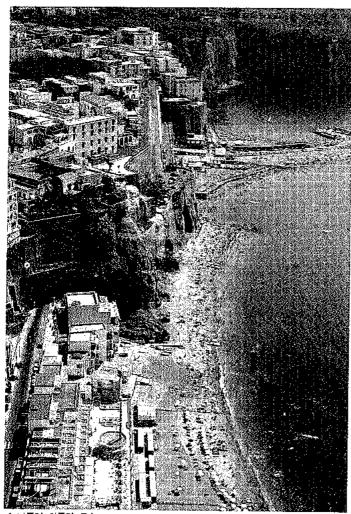
*NAPOLI: (7월 22일) 로마에서 약 200Km 정도를 남쪽으로 내려 가니 이태리에서 3 대 미향중의 하나인 나폴리에 도착하였다. 전에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였으나 B.C 80년 경에 로마에 편입된 도시이다. 안내를 맡았던 이태리 가이드가 차안에서 부른 민요「산타루치아」와 「돌아오라 쏘렌토」가 인상 깊게 남는다.

*Pompeii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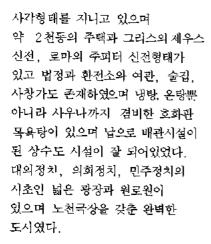
계획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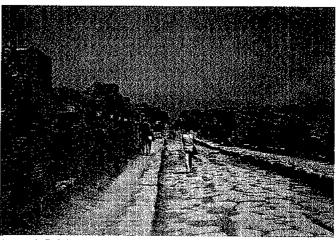
품페이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리스와 로마의 합성도시이다.
A. D 79년 베스비우스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6 m 이상의 화산재에 의하여
덮여버렸으며 당시의 인구는 약
2 만명 정도였고 1600년대에 발굴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합성된 헬레네즘 문화가
시작되었고 2 천년전의 문화를
발굴에 의하여 찾아 볼 수가 있었다.
당시의 도로 형태는 바둑판 모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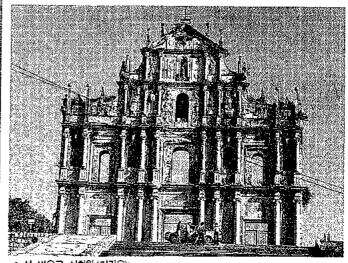








▲ 풍페이 유적지



▲ 성 바오로 신화원(마카오)

여행이었지만 이 여행 또한 도락이 아니었음을 굳게 믿는다.

HONG KONG

7 월 23일 12시40분 Alitalia 항공편으로 레오날드 다빈치공항을 이륙하여 중간에 인도 Delhi공항에 잠시 경유하여 14시간의 긴여행끝에 24일 오전 9시(이곳 홍콩시간)홍콩 공항에 도착 하였다. 이곳 홍콩은 중국 광동지역의 구룡반도에 위치하며 서기 1997년에는 주권과 국방, 외교가 중공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어 어쩐지 스산한 느낌이 든다. 이곳은 동양중의 서양이라 할 만큼 오랬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아서 인지 개인주의가 팽배하였으며 남녀 평등과 경노사상이 전혀 없는 도시이다. 중식후에는 OCEA Park와 해양 박물관을 관람하고 珍寶海鮮舶에서 해선요리로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에는 포르투칼령 MACAU에 쾌속정편으로 향했다. 이곳은 430년동안 포루투갈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이곳도 역시 1999년에는 주권이 중공으로 넘어간다. 마카오 신사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고 음침하고 아주 낙후된 도시가 되었다. 1837년 김대건 신부가 공부하던 성바오로 신학원은 몸체는 없어지고 전면의 파사드벽만 남아 있었으며, 파티마 성모 마리아 발현 기념 성당인 "PENHA 성당"이 있다. 길거리에서 가끔 현대자동차의 스텔라 승용차가 눈에 띄어 매우 반가왔고 BIF마크를 단 보르네오 가구가 중공으로 이곳을 통하여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많은 외국 여행자들이 이곳 마카오를 통하여 중국 본토 관광을 할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외교관계가 되어있지 않아서 국경지대 까지만 갔다가 돌아 왔다.



▲ 해양공원에서 전원 기념촬영(홍콩)

이제 20여일의 짧지만은 않은 여행의 끝이 오려하고 있다. 旅情은 變情과 같은 거라고 하였다. 이제 여행이 끝나가고 있으니 그동안 몸에 베었던 지나온 모든 연인들과 영원히 이별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이 한편으로 섭섭함도 없지 않다. 지난날은 되돌아 올 수 없다. 한번 지나온 시간과 장소로 되들아 갈수도 없다. 태어나서 물처럼 흘려가 버린 세월은 돌이킬 수도 없다. 모든 지나간 일들이 한낮 물거품처럼 인생도 허무한 것을 …… 신기하기만 하고 아름답고나를 홍분하게 했던 풍물들도 이젠 모두 떠나갔다. 그러나 매양 그런 기분에 들떠 있는 수 만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쉴 곳은 역시 내나라 내산천 내조국강산 뿐이려니, 그리운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고 보급자리로 몇시간 후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벌써 부터 마음이 편안해 진다. 또 그동안 동료 이웃들에게 맡겨 두었던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터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활의 전선으로

유럽 시찰단 명단

지	엳	참 가 자
서	울	이종세, 김장원, 강태성, 허주열, 박올식, 이경호, 심증섭
	ļ	최선규, 이찬영, 이 양, 설영웅, 김동환, 강성익, 김세호
		민수영, 정채룡, 우남용
부	산.	지호경, 이상익
대	구	윤철준、이건호, 여욱동, 서보광, 김무권, 이동근,
안	양	신현수
귟	五	조순완
부	천	김우현
०	리	신상회, 문상식
대	전	박우용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번 여행에 편의와 협조해 주신 각계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드리며 우리 일행 31명 전원이 아무사고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風水地理説과 住宅 設計(1)

朴時翼

工學博士、日新考합건축사사무소

Report/Feng-Shui Theory and Architectural Design by Park, Sea-Ik

本考는 지난 8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工學博士學位를 받은 朴時翼회원의「風水地理說發生背景에關한分析研究」題下의 論文을 특히 주택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본관점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建築이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것 뿐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안락한 사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思想에서 출발한 본 研究는 4回에 걸쳐 本誌에 게재될 것이다. (編輯者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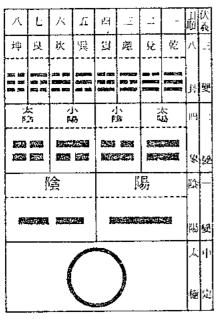


Ⅰ. 풍수지리설의 基本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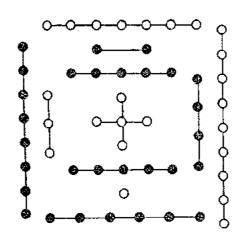
1. 序

風水地理說은 우리들의 오래된 역사에 있어서 정치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建築에도 매우 깊은 영향을 주어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에도 사회의 일부에서는 이 風水地理說이 建築 특히 주택의 개념을 설정하는 중요한 思想의 한 부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상적인 住宅의 배치는 「南向집에 東向대문」이라든가, 이와는 전혀다른 개념으로서 「凶家」니 또는 「재수 있는집」이니 하는 등 건물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建物과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古凶의 상관 관계에 대한 風水地理說의 사상은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日本, 自由中國, 홍콩 그리고 싱가폴 등 아시아의 여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風水地理說의 이론은 建築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론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이에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약한 상태에 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風水地理에 대한 연구는 우리들의 전통적인 建築의 思想에 대한 올바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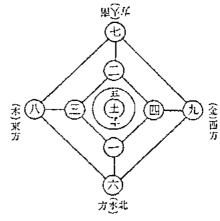
이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風水地理說의 이해로 부터 現代建築의 이상적인 空間창조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증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풍수지리설과 建築과의 관계에 의하여 그동안 10여년간 연구하여 온 결과 풍수지리설 이론은 그 사실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즉 풍수지리설의 陰丰과 陽宅의 이론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와 부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면 사람들의 住居환경을 구성하는 山이나 江등의 地理的인 조건과 建築의 배치된 방위나 형태등 건축 환경조건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하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現時代의 建築人으로서 이상적인 建築空間의 창조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알려진 서양식 공간개념은 물론 동양 특히 韓國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수지리의 思想을 개발하여 그 내용을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風水地理說의 이론중에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간추려 설명함으로써 실제적인 건축물의 設計에 참고가 되고져 한다.



(그림 1 - 1) 代義八卦 次序圖



(그림 1 - 2) 河圖 原圖



(그림 1 - 3) 河圖 配數圖

2. 풍수지리설의 역사적 배경

고급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온화한 기후속에 山水가 좋은곳을 택하여 아담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들 자신이 또한 죽은 후에는 양지바른 명당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이면서도 소박한 기원은 인류가 자연계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된 매우 오래전부터 발생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인간은 휘몰아치는 北風의 위력이나 홍수와 한발에 의하여 활동이 위축되기도하며 심지어는 생명과 재산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인간의 생활은 자연히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힘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체험은 자연에 대한 일종의 법칙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풍수자리설도 이러한 원시생활에 있어서부터 자연의 성질에 대한 축적된 체험이 체계화된 이론으로서 그 이론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며 그 내용이 역사상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것만 해도 매우 많다. 즉 신라의 석탈해왕을 비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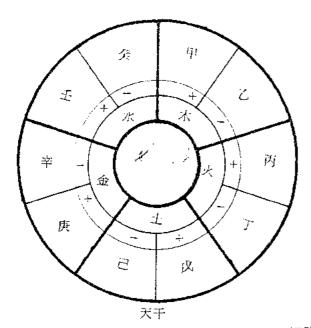
그후의 여러 왕들이 명당의 효력으로 왕위에 오를수 있었고, 고려시대의 정치에 있어서 풍수지리설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李太祖와 한양에 얽힌 풍수지리적인 이야기는 우리들의 주변에 실로 수없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와같은 내용들에서 보는 바와같이 풍수지리설은 비단 王家를 중심으로 한 상류계급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히 신봉되어서 전해지게 되었다. 부귀와 영달은 보통사람들이면 누구나 회망하는 사항인 만큼, 좋은 지세를 선정하여 그의 집터로 삼거나 또는 부모님을 명당에 안장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며 또한 그 후손에게 발복이 되는 것이 사실로 인정하는 풍수지리설은 王家나 民家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도 생활상의 당연한 관습으로 행하여져 전해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풍수지리 사상이 사회의 저변에까지 깊게 침투, 신봉하게 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조상의 시신을 명당에 묻으면 그의 후손이 발복하게 된다는 풍수의 어론은 인간들로 하여금 명당을 자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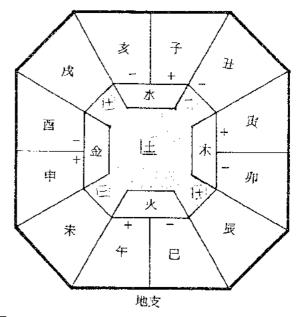
소유하려는 이웃간의 끊임없는 싸움으로도 나타나게 했으며 심지어는 명당이라고 알려진 남의 묘 자리에 몰래 자신의 부모 유해를 묻는 부도덕한 행위마저 빈번히 발생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명당의 욕심에 의한 이웃간의 분쟁의 문제는 근면과 노력으로 울바른 생활을 영위하게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의 기준을 문란케하기도 하였으며, 명당에 대한 맹신은 때로는 수차에 걸친 묘의 이장으로 생업을 포기하며 또한 재산을 탕진하는 사회적 병폐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풍수지리설」이라면「게으른 자가 명당의 덕택으로 출세하려는 터무니없는 미신」이라고 사회와 국가를 위태롭게하는 망국의 이론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으며, 한편 근대의 서구식 과학적 개념은 풍수지리설을 원시시대적인 미신의 하나로 취급하기도 하였었다. 이와같이 풍수자리설은 한편으로는 오랜기간의 체험을 통하여 전해져 내려온 생활의 기본이론의 하나로서 인정하는 한편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다분히 비 과학적이라는 막연한 개념의 서로다른 주장이 혼합되어 우리들의 주변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풍수지리설 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ユ림 I - 7) 天干, 地支圖

이론의 당위성에 대한「긍정」과 「부정」의 한제가 뚜렷하지 못한. 긍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陰宅論과 陽宅論으로 집약되고 있는 풍수자리설의 이론은, 한국의 古建築 대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어 풍수지리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우리의 건축역사 즉 전통건축의 사상적인 측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임뿐 아니라 이상적인 현대 사회공간의 창출작업에 앞서가야하는 우리 건축사의 입장에서 볼때 그 이론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는 당연히 규명되어야함 것이며 이시대 건축인이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의 이론 해석의 필요성으로부터, 최근의 이에대한 연구결과는 풍수지리설의 내용이 현대과학적인 측면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날의 건축인으로서 이 풍수지리설의 이론에 대한 개념의 설정이 새롭게 요망되고 있다.

3. 풍수지리설의 개념

人間의 生活은 문명이 발달된 현대의 생활에서나 또는 그 이전의 원시시대에 있어서도 생활영위의 근본적인 바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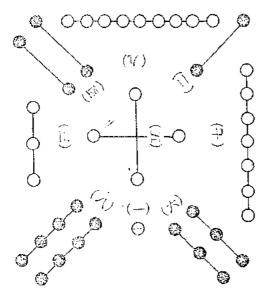
自然 이라는 울타리의 안에서만 가능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거생활에 있어서도 자연적인 조건들은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인간은 이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각각의 生活과 文化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풍수지리설 역시 원시 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자연의 변화를 통해 터득한 채험의 하나이다. 즉 풍수지리설은 인간의 주거와 취락의 입지선정에 대한 방범론이며 또한 죽은 후의 永眠을 위한 吉地선정의 이론으로서 오랜생활의 결과로 관습화 하게된 것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의 이론은 인간의 생활환경의 바탕을 구성하고 있는 山水, 그리고 들판(野)및 이름의 方位에 대한 物理的인 해석은 물론. 이러한 지세가 갖고있는 신비한 生命力을 믿고 그들의 힘을 인간의 生活에 적극적으로 활용코져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現代의 地理學은 땅(土地)을 단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음식물을 키우는 하나의 커다란 物質, 즉 無生物로서 취급하고 그의 人生과의 관계는 사람에게 주거의 지역을 제공하는곳 또는 사람의 生活을 걸려 주는 財貨의 生産場으로서 사람의 利用에 任하는 受動의 位置에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에서는 人間 보다는 자연 즉 땅을 보다 더 能動的인 生命體로 인식하고 이 땅은 萬物을 化生하는 生活力이 있어서 이 땅이 갖고 있는 活力의 厚薄如何에 의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人生의 발전도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현대의 地理學은 땅을 오직 物質的이고 사람의 利用에 따라서 역할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풍수지리설에서는 땅을 活物的 생명체로서 생각하여 이 땅의 힘이

〈丑Ⅰ-1〉五行의 區分

區分陰陽	光 行	木	火	土	金	水
+	陽	甲	丙	戊	庚	Ŧ
天子	陰	Z	丁		辛	癸
+ ==	陽	寅	4:-	辰 皮	申	-J-
地支		却		丑 未	酉	亥
方	位	뱌	남	중 앙	서	북
	氣	ᄥ	여름	4 계절	가을	겨울
色	相	青	赤	黄	坦	黑



(ユ림 [- 4) 洛書 原圖

4	9	2
3	5	7
8	į	G

(ユ림Ⅱ - 5) 九宮數

인생의 결홍화복도 좌우하는 能動者로서 그의 영향력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의 이론적 배경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적인 근거를 「氣」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축 풍수지리설의 이론의 핵심은 바로 「氣」의 理論에 있으며, 풍수지리설의 궁극적인 목직도 결국은 人間의 生活에 유익한 氣 축「生氣」의 취득에 두고있다. 이와같이 풍수지리설의 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氣」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거지나, 도시의 지세를 분석하거나, 묘지를 선정하는 풍수지리설의 이론은 각각의 지세가 갖고있는 生氣의 有無의 多少의 구별을 판단하기 위함에 있다.

4. 氣의 定義

풍수지라설의 이론상 핵심이 되는 「氣」란 무엇인가? 일짜기 老子는「道德經」에서 「道生一,一生二 二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冲氣以爲和」라고하였는바 그 뜻을 약술하면「絶對的 實體인 道에서 하나인 氣가 나오며, 그 하나인 氣가 다시 돌로 나누어져 陰과 陽이 생기고, 그 둘인 음과 양이 서로 조화됨으로써 세번째인 화합체가 생기고 이 세번째의 화합체에서 萬物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만물은 自體內에 陰과 陽의 두 氣가 혼연 일제가 되어 冲和된 화합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여서 결국 氣라고 말하는 것은 萬物의 생성과정에 있어서의 원천직인 힘(Energy)을 뜻하고 있다. 또한 周易에서 말하는 太極이란 우주 생명의 主이며 그 생명의 原理이다. 太極이 陰을 낳고 음양에서 天地가 現顯되었으며 또 天地에서 萬物이 생겨서 森羅萬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李退溪는 宇宙 생성의 근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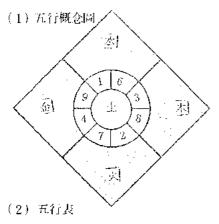
그리고 李退溪는 宇宙 생성의 근원은 氣에 그 시초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시초의 氣를 가리켜

그 시초의 氣를 가리켜 「一元之氣」라고 하였는데 이 一元之氣는 太極으로 부터 나타난다고 하여 결국 太極이 우주의 명명한 無限의 뜻임에 대하여 氣는 生命體의 발현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소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나 自然 그 자체는 모두 氣에 의하여 탄생하게 되었고 또한 氣의 흡수와 변화작용에 의하여 성장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도 역시 氣가 생명체의 탄생 이전의 원래의 근본으로 분해되어 돌아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氣를 간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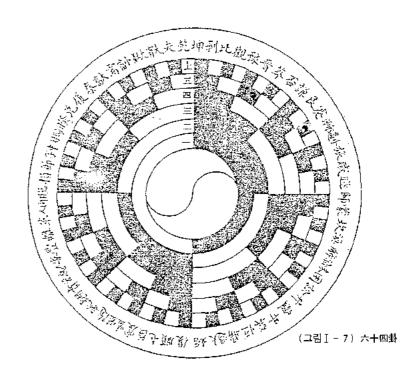
실명하기 위해서는 힘 또는
Energy 라고 풀이 되기도 하지만 氣와
Energy 의 차이를 구별한다면
Energy 는 물체에 변화 작용에 있어서 표면에 나타나는 物理的인 힘을
뜻하는 반면에, 氣는 물질 이전의
刑而上學的이고도 內在的으로
作用하는 힘이라는 것에 그 뜻의
중심이 있어서「氣」의 본래의 의미와
「Energy」의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게
된다.

5. 自然과 氣

自然界와 그 안의 모든 生命體물 구성한 本質. 즉 그의 근원적인 원소를 바로 氣라고 함에 있어서 이 氣의 종류는 크게 陰과 陽의 서로 상대적인 성질의 차이로 구분된다. 즉 움직임(動)이 陽이면 고요함은 陰이며 태양이 陽이면 달은 陰이 된다. 그러나 이런 陰陽의 구별상도 그의 근원은 모두 하나 즉 太極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一氣가 陰氣와 陽氣로 나누어지니 陽氣가 국단으로 모여서 땅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은 그 氣가 운행하여 한결같이 주로 움직이기만 하며 빙빙돌아 쉬지 않고 땅은 그 형태를 엉기게 하여 한결같이 고요하기만하여 중간에 가로 놓여 있다. 이와같이 人間을 둘러싸고 있는



方 位	五. 行	數
東	木	3.8
74	金	4.9
轁	火	2.7
#E	水	1.6
中央	- -	5. 10



自然과 萬物의 化生的 힘의 근원은 모두 天體의 그의 운동 즉 氣에 기인하고 있으며 천체운동의 방법은 회전운동으로 한 점에서 출발하였다가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연속으로서 이러한 운동적 성질도 모두 氣의 작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운동으로 밝음과 어두움, 더위와 추위등의 對立的 區別이 발생되어 이것은 음양의 표면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지구의 자선과 공전은 지구상의 南・北 軸과 東 西의 방위를 구별하게 되고 이러한 방위는 각각 氣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의 배치에 있어서 건물이나 대문의 방위를 중요시 하고 있는것도 결국 그 원인은 이들의 방위에 따라서 각각의 氣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주택의 方位에 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또한 하루(一日)에 있어서도 태양의 위치, 즉 시간에 따라서 空氣의 氣는 변화하고 있다. 시간이 쉬지않고 호르고 있는것은 결국 태양과 지구의 위치 관계가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는 까닭이며 태양의 움직이는 각 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성의 각 지점의 氣도 자연히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에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밤 등의 각각의 시간적 구분은 결국 氣의 대표적인 차이를 의미하여, 一年에 있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계절도 역사 氣의 변화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6. 人間의 生命과 氣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전해오는 命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과 공간, 등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氣의 作用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이와같이 人間의 生命體 그 자체도 역시 氣의 일종으로 해석하는것이 동양사상의 대표적인 특정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莊子도「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為死」라고 한바와 같이 사람의 生命은 바로 氣에 모여있는 상태이며 이 氣의 흩어짐이 바로 죽음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개개인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優劣도 또한 氣의 支給의 多少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한 식물이 비료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그의 成長과 結實에 차이가 있는것과 같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病물고 富者가 가난해 지는것도 결국 그 원인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의 消長의 法則에 의하게 된다. 그러므로 李退溪도 「하늘이 사람을 낳을때, 어떤이는 맑고 (淸)어떤이는 獨하고, 어떤이는 순수(잡)하고 어떤이는 섞였다(駁)는 것은 왜 그런가?」하는 인간의 天賦的 性稟의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도 하늘의 道는 지극히 광정하나 그 성공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고 각박함이 일정하지 않은것을 陰陽과 五行의 氣的 운행과의 만남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人間은 小宇宙로서 世上萬物중에서 가장 存貴한 天地의 형상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 즉 인간의 머리는 둥글게 하늘의 形象을 이루고 몸은 넓게 땅의 형상을 이루며 四肢는 四季節을, 人體의 五臟은 하늘의 五行에 상용하며, 12經脈은 12時를, 24개의 背兪穴은 24節氣를, 365 곱절혈은 하늘의 365度를, 그리고 얼굴의 두 눈(目)은 해(日)와 달(月)을 相應하고 있어서, 인체의 생명현상을 發現하는 모든 과정은 天地의 운행과 일치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人間의 신체적 구조와 각 器官의 작용은 모두 天體의 運行, 즉 五行의 性質에 의하여 형성되는 깃과 같이 人間의 心理나 知覺의 作用도 모두 氣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의 心性에도 우주의 모든 埋致가 구비되어 있어서 이

心性은 知性과 德性으로 구별되어 宇宙 創造의 道理가 人性에 부여된 것은 知性으로 또 宇宙生命의 그 功德이 사람의 마음에 印象된 것이 德性이 된다. 그러므로 人間의 良心은 德性이며 그 知學의 性은 知性이 된다. 또한 사람의 感情的인 心情은 七種的인 分別이 있어서 이것을 七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7情은 사람의 얼굴에 있는 7개의 구멍 즉 코2, 눈2, 귀2, 입1, 에 의하여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李退溪도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이 인간의 7가지 감정 즉 喜怒哀權愛惡欲 등의 기쁨과 슬픔등의 각종 감정은 모두 氣의 작용에 그 원인이 있는것이다. 이와같이 人間의 생명체를 육체와 정신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이 육체와 정신의 구성과 작용이 모두 氣에 그 근본이 있으므로 인간의 本質도 역시 自然과 같은 氣의 하나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人間의 형체는 자연에 분포되어있는 氣와는 그 성질을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구조는 外部의 氣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의 구조는 인체의 표면에 나타난 입, 귀, 코, 기타 땀구멍등 여러 구멍을 통하여 그 氣가 서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人體의 생명력은 바로 外部의 氣에 대한 相通의 관계위에 존재하게 되며 이 外部의 氣가 體內에 통하지 않을 때에는 인간의 생명력은 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人體의 생명력은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외부로 부터의 호흡에 의한 空氣의 흡수와 음식물에 의한 영양분의 흡수로 자연의 Energy 를 소화하며 또한 배설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조직과 활동이 모두 자연과의 상호연관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는만큼 인체는 自然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일체라는 사실을 알수있다.

7. 生 氣

인간의 본질은 氣로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그의 생명력은 外部로 부터의 氣를 흡수함으로써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氣를 生氣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 生氣의 취득에 두고 있는것도 그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生氣는 萬物을 구성하는 바탕 즉 元素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도 이 生氣에 의하여 成長하며 그 생기의 받음에 대한 많고 적음에 의하여 그의 運命이 달라지게된다. 따라서 天折하는 者는 生氣를 누림이 적은 것이고 長壽者는 많은 生氣를 투有한 것이다.

또한 人生의 貴賤 强弱 貧富 盛衰의 차이도 이 生氣를 받음의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現象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나무(木)에 있어서는 물(水)이 그의 성장과 결실및 생명에 제일 중요한 요소 이어서 만약 이 물이 부족한 나무에서는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서 그의 수명을 다 할수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나무에 있어서 물은 生氣가 되며 또한 물 뿐만아니라 空氣 또한 나무의 성장에 역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 空氣도 역시 나무의 生氣가 된다. 이와같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生命에 영향을 주는 자연의 요소가 生氣이며 이 自然의 生氣를 보다 많이 받음으로써 사람의 生命과 생활에 발전을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人間에게 필요한 生氣는 크게 陰陽과 표行의 氣가 융화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며 결코 陰이나 陽의 일부분만 많아서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生氣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에서 오구되는 生氣는 陰陽의 冲化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지세에 있어서의 陰陽은 크게 山과 물(水)의 대표적인 두개의 요소로서 기준하고 있어서 이 山과 물의 균형과 조화에서 吉한 生氣를 찿게되며 반대로 한 지세에 있어서 山勢는 크며 물이 부족하든가 또는 물은 많고 山이 부족한 곳에는 결코 生氣가 모이지 않는 곳으로 풍수지리설에서는 꺼리는 위치가 된다.

그러므로 風水에 있어서 地勢를 살피는 까닭은 지세를 구성하고 있는 山과 물(水)의 유무와 그의 조화가 바로 生氣의 발생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즉 지세룡 구성하고 있는 山의 규모와 형태로 부터 그의 영향과 또한 狂이나. 개울의 물(水)의 量과 質 그리고 그 흐름의 상태와 이들의 상호 조화 관계를 살펴서 한 지역의 生氣의 有無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자연과 인간의 氣的 해석은 모두 인간의 본질을 자연으로 부터 발생된 氣의 人化된 현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이론이 성립되고 있다. 지세를 구성하고 있는 山이나 들판 江등 모든 자연의 존재물은 풍수의 이론으로는 氣의 物化된 생명체인 까닭으로 이들 저세를 구성한 요소들에 대한 氣的 해석은 각각의 형태로 따르는 그의 영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각각의형태 규모 구성재료 등이 모두 氣的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설의 이론은 바로 이들 자연환경과 인간의 氣的교류에 있어서, 인간의 발전에 유익한 氣를 각고있는 지세를 선정하여 그 자연의 氣를 보다 많이 혜택 받으려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려한 자연적인 요소의 해석으로 부터 인위적인 공간도 하나의 氣의 집합체가 되므로 건축공간의 형태에 따라서 그 건물의 中心的인 氣의 차이가 발생하게된다. 풍수지리설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의 하나인 方位倫 역시 지면의 각 方位에 따르는 氣的 차이에 의한것이며 대문의 방위에 따라서 한 집안의 길흉의 차이가 발생하는것도 결국 대문이 위치한 방위에 따라서 각각의 서로다른 氣가 그 집안에 들어오는것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다음호에 계속》

건축에 있어서 형태와 기능

-6.7월호 회원작품에 대한 비평-

金文德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조교수

Criticism / Form & Function in Architecture by Kim, Moon-Duk



건축에 있어서 형태와 기능은 다같이 디자인 결정의 주요 요소이나, 최근 의 건축경향이 형태화를 경사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6,7월호에 게재된 작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업무용 건축이 형태화로의 가속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표층적인 현상으로 까지 전개되는데 비해, 사회 문화적 요인이 주요소로 작용하는 주 택건축은 보다 기능적 관습적 요소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건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형태화에의 의지가 표출되고 있으며, 디자인에 있어 형태에 있어서는 서구적 요소가, 평면적 해석에 있어서는 한국적 요소가 디자인 결정요소를 작용하고 있다.



기능, 매스, 평면, 시간, 공간, 빛, 색, 재료 등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은 동시에 조형적인 표현 요소들이다.

--- 테오 반 도스부르그 --

● 형태와 기능

건축물의 계획에 있어 디자인 결정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건축물에 관계된 인적 요인으로만 분석한다면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 등을 들 수 있겠고,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는 기능, 형태, 경제성, 시간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변수에 의해 건축물의 디자인 결정요소는 가면적 함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일반적 고려사항 중에서도 대별될 수 있는 사항이 기능과 형태와의 관계라고 생각되며, 이 두 디자인 결정 요소는 항상 대립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것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열의 순위가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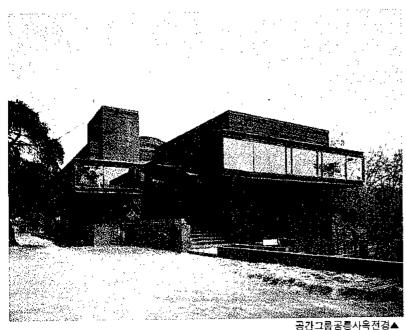
예를 들면, 형태와 기능의 합일성을 질적 십미적 규범으로 삼았던 근대 디자인의 형태언어가 현대에 와서는 형태와 기능과의 역학적 관계에서 형태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형태결정론적 입장으로 경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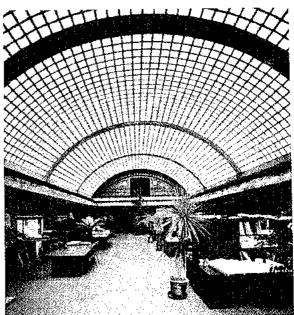
그것은 현대 유럽을 풍미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신 합리주의 건축이 기술적 측면보다는 형태적 사회정치적 지향으로 이론적 이상향적 측면을 강조하며 유형학과 도시형태학의 연구에 의해 건축의 기념적 의미를 부활시키려는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에 있어 기능은 효력을 상실한 것일까?

그것은 기능의 효력상실보다는 기능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천으로 해석될수 있다.

1950년대 인간공학의 출현에 의한 물적 기능, 60년대 생태학에 의한 환경적 기능, 70년대 기호학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80년대의미론에 의한 통합적 기능이나 기호론에 의한 대화적 환경기능으로의 변천은 기능의 시대적 변천과 함께 현대사회가 형태의미론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즉 60년대 이후 기술의 기계적 측면에서 전자적 측면으로의 전화은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혁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규범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표충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측면으로의 기술의





▲공간그룹공릉사옥내부

급격한 전환은 정보의 확산에 의한 사회적 시간과 문화의 리듬, 자연의 리돔을 상실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는 형태의 공유화와 함께 도착적 고유형태의 상실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본적 입장에서 우리는 범세계적 시점과 지역적 시점의 입장에서 이 문화의 이원적 성격을 어떻게 공존 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것은 비단 건축형태의 문제가 아닌 문화전반에 절찬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현건축계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형태의미와 기능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이런 관점에서 6,7월호의 회원 작품을 보고자 한다.

● 업무용 건축에서 형태와 기능

6 월호에 게재된 작품들은 국립 군산대학 예능관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업무용 건물이다. 특히 이중에서 주목할 건물은 공간그룹 공룡사옥이나. 공룡사옥은 우선 설계라는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설계사무소의 사옥이라는 점과 원서동 공간사옥이 한국건축계에 한획을 그은 김수근 건축의 대표적 작품인 동시에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 건축물의 하나라는 점에서, 과연 새로운 80년 후반의 공간의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간의 새 세대의 작업의 산물은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것일까 하는 호기심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공간사무소의 인반적 작품경향이 기능위주보다는 예술적 취향의 형태위주의 작업이였다는 찬사와 함께 비난을 받아 왔다고 생각되는 필자의 선입관도 이 건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설계사무소를 대별하여 예술자향적인 사무소와 형태와 기능등을 해석하는데 있어 온건한 중립적인 사무소, 허가위주의 사무소 등으로 구분되어 자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예술지향적 사무소 중에서도 선두주자의 하나인 공간의 작업과 그 결실은 건축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으며 또한 건축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는 데 대한 업적은 자타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통사옥은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릉사옥은 원서동사옥이 비교적 환경적 여건이 불리한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관이 훌륭한 전원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은 대지가 넓은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작업을 위한 3층 사무동과 2 층의 식당, 전시동의 2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작 형태의 구성은 전원적 환경조건에 순응하는 수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수평적 구성은 사무동의 3 충부분의 돌출된 캔티레버 구조나 식당, 전시동 캐노피의 선적 구성에 의해 강조되고 있으며, 그외에도 외벽에 사용된 이형벽들의 수평적 장식과 철골형강 형상의 금속띠의 선적 구성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사무동을 경사의 단차를 이용하여 전경에서는 3 층으로 후정에서는 2 총으로 인식케 한 수법도 수평성 강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입구부분에는 요즈음 공간의 작품에서 즐겨 채용하는 가둥의 모티브들이 입구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수평적 구성에 소극적인 수직적 요소로 대비를 이루며 줄지어 있다. 또한 몇개의 단차가 있는 데크형 계단을 올라 후정에 이르면 사무동건물의 지붕이 유리블록의 보울트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건물에서 느껴지는 형태적 구성의 특징은 전체구성은 수평성이 강하나 벽돌과 유리블록, 유리라는 재료의 대비에 의해 형태적 의도가



강한 건물임을 알 수 있고, 최근 대부분의 공간의 벽돌로 된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형벽돌의 장식이 크게 눈에 띄고 있으며, 그 장식은 이 건물의 양괴적 구성을 산만하게 할 정도로 과하지 않나하는 당혹감이다. 물론 세계적인 건축의 추세가 장식화 경향으로 경사하고 있기는 하나, 기끔 최근의 공간작품은 장식에 대한 한계의 외줄에서 곡예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이다.

사무동의 주출입구는 의도적으로 후정측으로 위치케 하여 방문자에게 변화있는 시각적 시퀀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공간은 후면의 지하층과 1층의 일부분을 개방하여 공간감의 확대와 함께 일체감을 부여하고 있고 지하공간으로의 빛의 도입과 공간의 확산은 엽무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밝은 작업공간을 의도하고 있다.

내외부 공간의 교호, 개방감있는 작업공간으로의 의도는 수평적인 연속된 전면 유리창, 3 충부분의 유리블록의 천장 겸 자봉, 계단실의 개방적 구조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3 충의 유리블록의 사용은 외형적 형태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연 그 재료가 계절적 변화에 따른 외적 요인을 조절하기에 적절한 재료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사되고 있다.

또한 내부공간에서 무량판구조를 위한 주두가 있는 기둥은 모던한 형태와 공간에 어울리지 않았으며, 형태지향적 작업의 결과로 생기는 3 층 평면의 코아 모서리부분의 데드스페이스 역시 공간의 낭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시동에서 전시실 상부의 채광과 구조적 처리는 제임스 스털링의 올리베티 연수원 (Olivetti Training School: 1969-72) 에서의 집회공간의 분할방식과 같은 발상으로 생각되나 새로운 접근방식이었다.

이런 부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사옥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아쉬운 것은 원서동사옥에 비해 형대적 평면적 구성의 치밀함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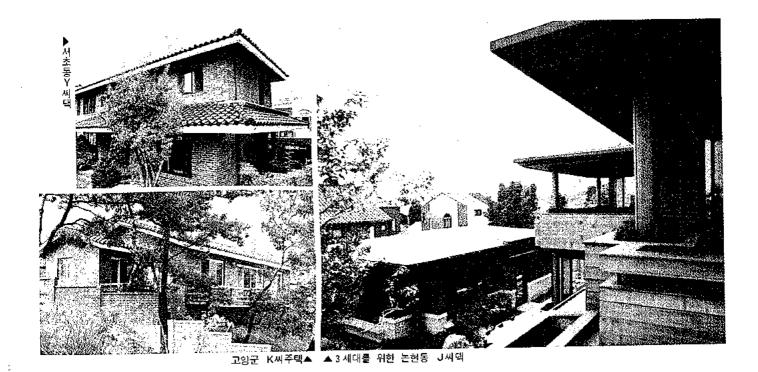
이런 생각은 공간의 작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인지 모르나 새로운 세대의 분발을 위한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다. 남정빌딩과 아시아 자동차기술연구소는 평면상으로

사동자기물연구소는 평면상으로 비교적 단순한 구성의 건물이다. 기술연구소의 경우, 1층에 강당이 위치함으로 구조적 해결의 축면에서 3 충부터 건물의 세로폭이 줄어든 외에 큰 변화가 없고 구성상으로는 코아가 양측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남정빌딩 경우는 저층과 고층이 매장과 사무소라는 복합적 기능에 연유하여 1 충에서 출입구 및 동선이 분리되고 있으며 제한된 평면에서 효율적 평면구성을 위해 코아가 편심구성을 하고 있다.

두 건물과 전술한 공간 공룡사옥의 경우, 외부재료면에서 본다면 벽돌, 유리, 유리블록, 알코본드, 타일이라는 재료로 마감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주목해야 할 재료는 유리나유리블록, 알코본드 같은 표면이 미끈한 재료의 사용이다. 이런 재료의 경우 형태의 양괴적 표현보다는 표면 내지는 표층적 속성이 더 강하다는 점이며, 공간사옥에서의 이형벽돌조차도 표면적 장식성이 강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재료의 표면적 속성이 강조되는 이런 건물의 출현은 앞 장에서 설명한 기계의 전자화에 따라 형태는 기능과의 형태적 유연성을 상실하고 전자를 둘러싼 외피와 표충의 자립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텔레비젼의 화면과 같이 표층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예와 같은



것이다.

표면은 과거에는 양괴적 형태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었으나 현금 대두되는 많은 건물은 표충적 건물, 양괴는 사라지고 반사유리에 의해 주위건물이 투영된 실체가 없는 듯한 건물들의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일본의 건축가 이또 토요 (伊東豊雄)의 말처럼 "나의 목표는 노스탤지어를 대상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표충밑에 숨겨진 무형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 보이려고 하며 그 때문에 일종의 피상성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와도 일치하는 점이 있는 것이다. 도심속에서의 고독, 자이는 상실되고 타인에 의해 비쳐진 아미지 만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도시생활의 속성, 겉으로는 미끈하고 그럴듯하나 실체적 내용은 없는 세태, 감각적인 댄스뮤직이 유행하며 중후한 것은 싫어하는 경박한 풍조와 "나인 하프" (91/2) 류의 감각적 영화에 몰두하는 세대들의 미감에 어필하는 건물이 이런 것이다.

건축물은 항상 역사적으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대인은 건축에서 가능보다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나 형태 역시 과거의 형태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형태는 이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표층으로 존재하며 그 표층은 단순히 표층 만이 아닌 의미를 발신하는 표층인 것이다. 서울의 주요 거리에 서있는 네온사인의 광고탑처럼 의미를 발신하는 표층적 형태가 그것이다. 또한 이런 표층적 현상은 재료의 사용 뿐만아니라 모서리 부분의 곡면처리 등에 의해 강화되며, 내부가능과 관계없이 의미화되거나 형태화되는 것이다.

마치 공간 공룡사옥의 보울트형 유리블록지붕의 비기능적 처리나 남정빌딩의 매장층에서 수평적 연속창의 처리처럼 형태와 표층은 기능과 분리하여 자립을 모색하는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시대성이 반영된 감각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악적 현상이나 과연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만이 건축가의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인기있는 텔레비전 연속국이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새로운 건축을 만드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꼬르뷔지에가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에서 한 말이 새삼 피부에 와 닿는다. "건축은 이 혁신의 시기에,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주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재확인을 시도해야하는 그 첫번째 외무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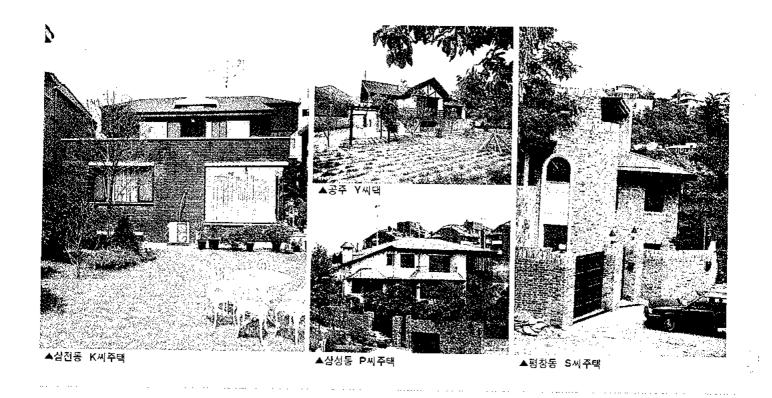
● 주택 건축에서 형태와 기능

앞 장에서 꼬르뷔지에의 말의 인용처럼 어느 시대나 주택건축의 가치는 재확인되야 할 것이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빈센트 스컬리는 "미국주택론"에서 일가족용의 독립주택은 미국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 이유는 1) 환경전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며, 2) 극도로 개성적인 예술적 직접성의 표현체이다."라고 주택건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주거형태와 문화의 연관관계를 연구하였던 아모스 라포포트는 "주거형태와 문화"에서 모든 주거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1) 사회 문화적 타당성, 2) 최대다수를 위한 충분한 경제성, 3) 거주자의 건강유지의 보장, 4) 건물의 내용연한 동안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U.N이 "인간정주기준"에 관한 회의를 갖고 주거환경에 있어 주거의 질과 적합성의 결정요소로의 인간의 요구를 1) 영역, 2) 향,

- 3) 프라이버시, 4) 독자성,
- 5) 편의성, 6) 접근성, 7) 안전성을 기론하고 있다.

각기 언급된 내용은 부분적 차이는



있으나 어떤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택이 환경을 조절하는 웰터인 동시에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사회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이며, 특히 단목주택인 경우는 그 의미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환경은 형태라는 구성인자와 관련이 있으며 기능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각 지역마다의 특이한 환경적 조건은 주택디자인의 결정요소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출안 관점에서 7월호에 게재된 주택작품들은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어떤 형태어휘와 기능의 해석에 의해 구성되었는가를 살펴 보자. 환경적 요인으로 부지적 특성이 건축물의 배치에 영향을 준 예를 보면 장방형 대지를 크게 정원과 주택으로 구분한 삼전동 K씨주택, 고양군 K씨주택을 들 수 있으며, 부정형의 부지조건을 살리면서 부지의 형상에 배치를 순웅시킨 평창동 S씨주택, 삼성동 P씨택, 서초동 Y씨주택이 있다.

공주 Y씨주택이나 3세대를 위한 논현동 J씨택은 부지조건이 비교적 훌륭한 이점을 이용하여 십자형과 기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특히 평창동 주택은 부지의 형상과 경사지라는 제약을 스킾 후로어를 이용한 조닝 분리로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다

최근의 주택건축에서 보이는 경향의 하나는 각 경우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건물자체 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위환경을 조성하는 조경적 요소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서초동 주택의 선큰 가든, 논현동 주택의 조경화된 정원, 삼성동 주택의 단차를 이용한 조경처리가 이루어진 정원이 그 좋은 예로 현대인이 번잡한 도시생활과 공해 등의 도시환경의 저해요소로 부터 탈피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가 쾌적한 자연환경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음 인식한 결과로 생각되며, 또한 이것은 경제적 안정예의한 (풍요한 공간의 추구도) 그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축 주택이 외적 저해요인을 방어하기

즉 주택이 외적 자해요인을 방어하기 위한 쉘터 만이 아니라 주위환경과의 조화에 의한 인간, 자연, 문화의 공유영역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외형적 형태의 최근 경향은 지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구 근대건축의 영향에 의해 도입되었던 평슬라브 지붕이 쇠퇴하고 박공지붕의 대두를 들 수 있다. 물론 부분적인 평슬라브의

사용도 있으나 지붕의 전체적 개념은 박공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주택건축의 특성 중의 하나가 지붕의 형태이며 이 지붕의 형태가 주택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붕재료 만은 기와일변도가 아닌 목재 성글, 아스팔트 성글, 찬연 스레이트 등의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와 역시 7월호에서도 보이지만 스페니쉬 기와등으로 처리하여 지붕형태는 비록 박공이나 이국적 취향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점으로 중산층이상 건축주의 주택에 대한 취향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외벽은 거의 벽돌 일변도로 벽돌이라는 재료의 미적 경제적 내구적 성질이 크게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주 주택의 형태적 특징은 F. L. 라이트의 전원주택을 연상시키는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평면구성은 거실과 식당사이를 스킨 후로어로 구성하여 공간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붕형태도 내부공간의 단차에 따라 일부 위계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도심에서 떨어진 전원의 특성을 건축에 용해시키려 시도한 주택으로 외벽의 재료도 일부 자연석으로 마감하여 자연적 환경과 조화하려는 시도를 독해할 수 있다.

삼성동 주택은 천연 스레이트 마감된 비교적 불규칙적인 지붕형대와 거실 상부에 돌출된 발코니가 인상적인 주택이다. 거실의 전면유리화한 돌출창은 자연경관을 실내공간에서 조망하는 이점을 강하게 하고 있다. 현관홀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분리가 특징이다.

삼전동 주택은 정면에서 볼 때 유리로 된 보울트형 지하계단 구조물이 특징적이다. 위계적 구성의 이 유리구조물은 계단의 상부구조의 역항 뿐만아니라 지하공간을 위한 채광시설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내부공간에서는 계단이 시각적 촛점과 함께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적 동선의 확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동 주택의 예와 같이 박공부분의 공간을 다락방으로 사용 입체적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꾀하고 있다. 논현동 주택은 다른 주택들과는 달리 3 세대를 위한 주택으로 형태나 평면의 해석에 있어 특징적인 주택이다.

3 세대를 위한 주택이라는 기능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자형으로 배치, 각 세대의 주거공간의 경관과 향에 있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며, 돌출된 처마부분에 설치된 원형 기둥들은 외부 공간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층 발코니 부분의 처마를 연장시킨 내외부 공간의 매개적 공간으로의 적극적 이용은 훌륭한 발상으로 인식되었다.

형태에 있어서도 수평적 구성을 강조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고건축을 장식적 요소가 아닌 구조적 공간적 요소를 현대화시키려는 외도가 감지되고 있다. 3세대를 1층에서는 몇개의 단을 이용한 수평분할로, 또한 층을 이용한 수직분할을 이용, 각 세대의 존홀 분할하여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계획의 명쾌함은 이 주택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여유있는 입지적 조건도 기인하고 있다. 요즈음 대부분의 주택이 외형에 있어서도 서구적 모티브를 이용 디자인을 하는 추세에서 본다면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창동 주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입지적 해석에 뛰어난 작품이다. 외벽은 파벽 마감의 건물로 단차를 이용한 존의 분리가 외형으로 표현되어 몇 개의 분할된 양괴로 구성되고 있다. 논현동 주택이 한국적 건축요소의 현대화에 치중했다면 이 주택은 서구적 요소의 형태화로 해석된 주택이므로 부분적인 평 슬라보 지붕과 입구를 상징하는 아취형의 출입구 등이 그 징후를 표출하는 요소이며, 수직적 구성의 전원의 성을 연상시키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66

외형적 형태의 최근 경향은 지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박공으로 희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건축의 특성중의 하나가 지붕의 형태이며, 이 지붕의 형태가 주택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99

서초동 주택은 크게 개인권과 사회권을 1, 2층의 업체적 분리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하부분의 가족실은 선큰 가든을 최대로 이용, 지하공간을 활성화한 주택이며 기능적 분리를 입체적으로 행하고 있다. 고양군 주택은 단형의 입지적 조건을 이용, 채소밭, 정원, 주택이 위계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전원적 분위기의 주택입지를 최대한 이용, 전망에 대한 고려를 적절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의 발코니가 계획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 지하층을 제외한 주층이 단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실과 식당 존을 결합, 공간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상 7월호에 게재된 주택을 분석하여 보면, 평면적 구성에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택이 거실+안방의 존과 주방+식당의 존이 계단실이나 현관 홀에서 분리되고 있으며, 서구주택의 평면구성이 거실+식당+주방 존과 침실 존으로 분리되는 예가 대다수 임에 비해 한국적 주택평면의 특징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중산층이상의 주택에 대한 취향이 외형적 요소에서는 서구지향적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기능적 관습적 요소가 디자인의 변수가 되고 있는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절충적 양상에 의한 나름대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서구주택 건축이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 존을 명확히 분리하는데 비해 한국의 주택건축은 커뮤니티와 프라버시의 적절한 결합과 조화를 이루는 구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적 성격이 결합된 거실+안방 존과 문화적 관습과 음식의 특성에 기인한 식당+주방 존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세심히 고찰하여 연구, 발전시키면 한국 현대주택건축도 독립적인 쟝르를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 결

건축에 있어서 형태와 기능은 다같이 디자인 결정의 주요 요소이나, 최근의 건축경향이 형태화를 경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6,7월호에 게재된 작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업무용 건축이 형대화로의 가속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표충적인 현상으로 까지 전개되는데 비해, 사회문화적 요인이 주요소로 작용하는 주택건축은 보다 기능적 관습적 요소에 좌우된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택긴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형태화에의 의지가 표출되고 있으며, 디자인에 있어 형태에 있어서는 서구적 요소가, 평면적 해석에 있어서는 한국적 요소가 디자인 결정요소를 작용하고 있다.

현시점의 건축물의 디자인에 있어 한국적 요소 일변도의 고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동서양 주택건축의 장점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한국적 특성의 의지가 표출되는 주택 건축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있어 최근의 건축에 있어 다원적인 형태와 기능구성에 있어서의 실험은 바람직한 것이며 현시대에 맞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과 건축적 특성이 표출되는 건축을 확립하려는 도정에서 볼 때, 바람직한 과도적인 과정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青銅器時代 및 初期鐵器時代의 住居

張慶浩 문화재연구소 소장

Report/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by Chang,Kyung-Ho

2 初期鐵器時代

〇時代概觀

考古學的으로 초기철기시대에는 먼저 대동강 유역에 요령지방 양식과 판이한 한국적 細形銅劍, 精文式 細文鏡 그리고 철제 武器, 農具, 工具등이 출현함으로써 막이 열린다. 그리고, 대동강 유역의 이른바 古朝鮮은 이러한 새로운 철기문화권의 형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위만조선도 역시 이 大同江유역 초기철기 문화권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 하겠다.1), 中國전국시대에 出現한 철기문화는 요동반도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점차 전파되게 되는데, 이 사실은 중국 河北省 북부에 자리잡고 있던 燕(B.C. 323~222)의 손칼모양의 청동 화패인 明刀錢이 우리나라에 流入되어 多量으로 發見되는 것으로 보아 알수 있다.²⁾. 이 시기에 비록 철기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더 發展된 청동제품이 더욱 많이 제작되여 사용되었고 철기의 사용은 무기류나 농기구의 制限된 數였다. 당시의 철기로는 철도끼, 철창, 철제화살촉, 철제칼등의 무기류와 절제낫(鐵鎌), 철제호미(鐵鋤)등의 농경용 도구이다. 또 이 時代에

나타나는 土器는 청동기시대의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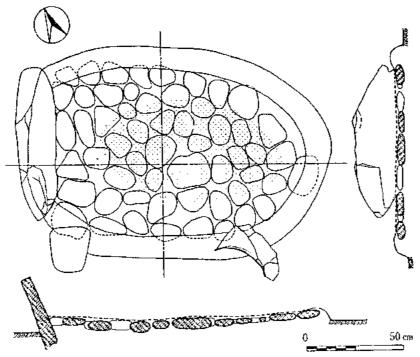
대동소이하나 흑도(黑陶)라고 불리운 목긴 항아리形과 말기에는 희백색의 경질토기도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時代는 古朝鮮時代를 기처 漢四郡과 高句麗의 建國時期까지 이르게되고 初期철기시대 제2기 즉 原三國時代로 연결된다고 불수 있다. 3).

○初期철기시대의 주거

前述한 청동기시대의 住居形式과 뚜렸이 區別되는 特徵을 갖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수혈주거형식은 前時期즉 청동기를 이어 여전히 존속하고 그 이후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 문화재 연구소에서 실시한 부여의 부소산성내 발굴조사에서 3基의 수혈식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出土유물로 보아 4~5세기 百濟時代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또 北韓에서는 高句麗時代의 수혈주거지가 여러곳에서 發見調查되었기 때문이다. 부소산성의 수혈건물지는 城廓과 關聯되는 兵營址로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형식의 住居를 아직 많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설명하겠다.

우리는 앞서 신석기시대의 주거지에서 청동기시대로 넘어 오면서 位置의



▲ 中島Ⅲ, 1982 爐址實測圖

平面 그리고 爐址의 數와 위치등 여러가지 變化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런데 初期철기시대에 들어와서는 청동거시대에 此하여 특히 두드리지게 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거지 내의 화덕의 발전이라 할 것이다. 이 時期에 화덕은, 소위 우리나라 건축의 獨特한 온돌이란 난방시설이 발전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또 이시대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거는 하지만 20~30㎡의 크기를 가진 소형의 집이 위주가 되어⁴⁾가다가 다시 큰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것은 무려 154㎡의 크기를 가진 움집이 30~40㎡의 것들과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 架構나 構造에 對하여 남아있는 遺構가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比較的 수혈의 깊이가 낮아지고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架構의 가공 및 조립법도 한충 발전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 주거의 목적 이외에 창고시설로서의 움집을 많이 세웠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사기에 밝혀진 주요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中島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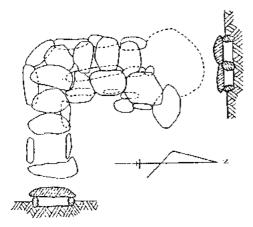
江原道 春川市 中島洞에 位置하여 춘천시의 서편을 감아들아 흐르는 북한강內의 작은 섬이다. 여기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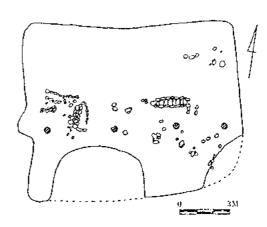
中島 3號 住居址



▲中島1号의 住居址 부뚜막유구



▲ 大坪里2號 住居址内 爐此實側圖



▲ 노남리 2호 집자리

國立中央博物館에서 發掘調査하였는데 그 報告書⁵⁾에 의하면 제1호 주거지와 제2호 주거지는 인근에 있는 加平의 馬場里에서 발견된 冶鐵주거지와 그形態, 規模, 出土遺物 爐址의 特徵등 性格이 같은 것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中島제1, 제2주거지의 特徵을 살펴보면 먼저 제1주거지는 수혈의 형태가 모를 굴린 方形으로 수혈의 평면크기는 東西

유적이 분포되어있다. 1980년부터

爐址는 中央에서 西쪽으로 약간 치우찬 위치에 있는데 이 화덕주변 적경 2m 쯤의 바닥에만 두께 2cm 정도의 전흙을 다지고 그 外는 모래바닥이다.

5.4m, 南北 5m로 바닥 깊이는

몇개만이 있었다.

42cm이며 기둥구멍이 東벽과 西남벽에

爐址는 南北을 長軸으로하는 길이 120cm와 幅95cm 타원형이다. 爐의 서쪽에는 길이 40cm의 큰 돌을 하나 놓고 그 外에 세 방향에는 납작한 냇물을 돌려고 다시 진흙으로 보강하여 돌리고, 바닥에도 진흙이 단단히 덮여있었다.

이 진흙을 벗겨보니 크기 5~15cm 가량의 둥글납작한 냇돌을 빽빽히 깔아 타원형을 이루었다. 이 노지 서편의 바로 곁에서 홈하나없이 完全한 토기항아리가 2점 나왔는데 이중 콘 토기속에는 炭化된 조(栗)의 알맹이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노지와 숯자리 그리고 굴뚝시설로 추정되는 진흙 구조물이 中央部를 가로 지르면서 연결되는 것 같았다. 또 東壁에 진흙뚝이 있는데 푹이 1.5m 이고 이것이 벽의 어깨위로 좁아지면서 올라가 이께 상면에 나타난 크기는 폭이 70~75cm, 길이 150cm, 높이 30cm 가량 되었다. 東벽에 붙은 진흙대미 속에서 火口와 같은 터널이나타났다.

이 유적에 對한 報告者의 年代 추정은 下層의 구들(爐)구조와 鍛鐵製 鐵器를 근거로 기원전 2~1세기로 추정하고 기원후 1~2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⁶⁾.

제2호 주거지는 平面은 不整方形으로 $6m \times 6m$ 크기이다. 깊이는 $90 \sim 100$ cm로 되었고, 바닥 中央 북쪽에 치우쳐 $1.4m \sim 1.7m$ 의 타원형 노지가 있다. 이 노지는 제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남작한 강돌을 타원형으로 깔고 그위에 점토를 덮어 만들었다. 노지 주위에는 두께 16cm 정도의 점토띠를 돌렸고 북쪽에는 역시 큰돌 하나를 비스듬히 세워 놓았다.

'以上의 記述로 이 유구의 난방 및 이에 관련된 시설은 특히 다른 곳에서 그 예를 보기힘든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제1주거지의 中央部에 있는 노지와 北쪽 벽에 붙어 있는 진흙 화덕과의 관련성은 어떤 것인지 상당히 흥미를 끄는 것이다. 여기서 筆者의 考察에 의하면'' 中央에 위치한 爐와 벽쪽에 붙어있는 부뚜막과는 별개의 기능을 맡는 것으로 관단된다. 이러한 例는 日本 北海道海岸 모요로 유적 探文式堅穴住居地에서 볼 수 있어 여기서는 平面이 方形으로 1변이 約

4m 되는데 中央部에 爐地가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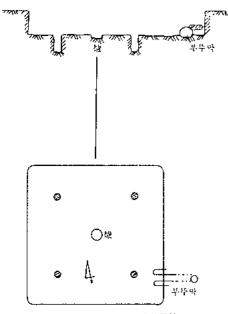
있고 東南 모퉁이 벽쪽에 붙어 소위

가마도(부뚜막) 놓여 그 外部로

煙道가 있어 연기를 내보냈다. 이렇게 暖房用 爐와 부뚜막을 분리하는 이유로는 用途가 서로 다르고 使用 頻度가 다르기 때문이다. 난방을 위한 爐는 겨울에만 必要한 것이며 炊事를 위한 부뚜막은 4계절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연기를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방안에 차게된다. 그러므로 煙筒을 내기 용이하게 벽쪽에 붙게 마련이다.

○水原 西屯洞 住居址

報告⁸⁾에 의하면 1979年부터 調査된 지역으로 水原市 西屯洞 住居地 野山 丘陵에 位置하여 無文土器만이 출토되는 住居地와 金海式 土器와 무문토기가 함께 출토되고 철기가 반출하는 주거지가 層位를 달리하거나 별개의 위치에서 발굴되었다. 形態를 보면 무문토기만이 출토되는 주거지는 長方形의 주거지이고 後記한 유물이 출토되는 주거지는 일변 4m 內外의 方形 움집이었다. 이중 제7호 주거지는 특수 형태의 난방시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北壁에 한변 약 30cm의 얇은 흙벽돌을 30cm 간격으로 양측에 세우고 그 위에 똑같은 크기의 벽돌을 덮어서 터널형 구둘을 구축하고 서쪽 끝에서 다시 서벽을 따라 굽어져 아궁이를 만들고 東쪽 끝에서는 벽에 붙여 굴뚝을 올렸던 것으로 보였다. 죽 이 구들은 丁字形으로 꺾인것이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초기철기시대 즉 기원 전후 1세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出土 유물중 철제도끼, 철제화살촉, 철제칼, 철제톱(폭 2cm정도)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木架構도 톱을 이용했을 것이며 실제로 제4호 주거지에서는 톱으로



▲ 日本 北海島 擦文式 竪穴住居址 日本 建築雑誌昭和26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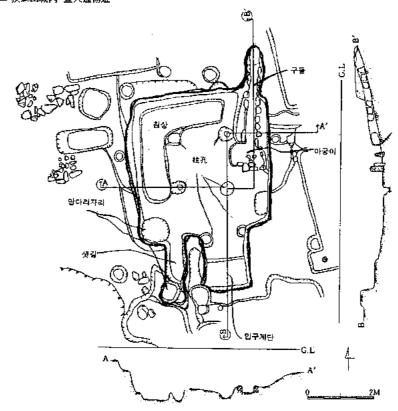
자른 板材 숯이 나왔고 탄화된 시까래와 가는 가지의 지붕재둥이 출토되었다한다.

○細竹里유적

지금 북한의 평안북도 寧邊郡 細竹里의 청천강변에 위치한다.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의 층위를 이루고 있는데 表土層 밑에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3개가 조사되어 보고되었다⁹¹. 제1호 주거지는 동서 5m, 남북 5.8m의 方形 平面으로 바닥 깊이가 15cm이다. 바닥은 진흙을 펴 다졌는데 동쪽 벽선으로 치우친 곳에 內幅이 20cm 되는 터널형시설을 강돌로 쌓아 만들었는데 이 시설이 끝나는 곳에 方 120cm, 높이 40~50cm의 홁더미가 만들어져 그 옆구리에 넓이 20~30cm. 높이 20cm정도의 아궁이가 있었다. 이 아궁이쪽 앞에 넓은 구덩이가 폐여있다. 이 주거지 내에서는 滑石을 섞은 胎土로 만든 무분토기, 김해식토기, 철제도끼, 철제칼, 철제끌 등이 출토되었다. 또 주거지 밖에서도 明刀錢(中國戰國時代의 찰모양의 돈)을 비롯하여 많은 철기들이 出土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아궁이가 구들 길이방향의 직각으로 뚫려있어 연기가 나는 것을 방지한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의 부뚜막은 현재 中央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구려 금속제 부뚜막에서도 볼 수 있는



▲ 扶蘇山城内 竪穴建物址



▲ 扶蘇山城内 第3竪穴建物址 選構圖面

것이다.

○魯南里유적(慈江道 時中郡 노남리) 江界市에서 독로강을 따라 북쪽으로 28km 올라간 곳 南岸에 위치한다. 여기서 초기 철기시대에 속하는 주거지 2기와 製鐵爐 1기가 조사되었다¹⁰⁾. 이중 제2호 주거지는 지상가옥에 가까운 맞배형 주거지로 동서 14m, 남북 11 m의 대형주거지이다. 진흙을 펴다진 바닥의 중앙부 동·서 편에는 기자형과 외골형의 구들이 만들어졌고 이 남쪽에는 장축을 따라 4개의 기둥구멍이 일렬로 뚫려있다. 출토 유물로는 철제도구와 꺽쇠, 明刀錢, 五鑄錢동의 청동품, 또 軟質과 硬質의 土器 등이다. 시대는 B.C. 4~3세기에서 A.D. 1세기로 잡고 있다.

○扶蘇山城內 竪穴建物址

이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대와 연속되는 수혈주거로서 그 시대의 수혈주거 특징을 엿 볼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소개한다. 1980年부터 文化財研究所에서 발굴조사해온 부소산성 유적발굴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西腹寺址와 軍倉址를 이어 1983년에 發掘조사 된 것이다. 地表에서 30~40cm 밑에는 百濟末期에서 부터 高麗時代에 속하는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 밑층에서 풍화암층을 갂아서 만든 수혈건물지 3기가 노출되었는데 平面의 크기는 거의 다같게 1邊이 4m정도되는 方形의 건물지로서 그 바닥의 깊이가 조금씩 차이 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뚜렸하게 잘 보존된 3호 건물지는 바닥 깊이가 70cm~90cm 정도이며 南向을 한듯하며 南쪽변 中央部에 출입을 위한 階段을 마련하고 이 계단지 내부 양옆에는 지붕시설 및 문을 마련한듯한 기둥구멍이 뚤려 있었다. 움집바닥 中央部에는 直徑 18cm 정도의 기둥구멍 4개가 건물지 됑면과 같은 4角形을 이루는 모서리에 놓였는데 그 간격이 1.5m 정도로 같았다. 건물지의 어깨위 벽선에도 그 간격이 一定치 않게 뚫린 기둥구멍이 있었다. 또 前記한 4개의 기둥구멍이 이루는 4角形의 北변쪽과 西변쪽에 接하여 건물지 北벽과 西벽사이에 미字로 平面을 이룬 구덩이가 나타났는데 이 구덩이의 깊이는 28cm이고 幅이 78cm이며 北변거리가 248cm, 西邊 질이는 278cm가 되었다. 이 유구는 건물 내부공간을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住居內의 다른 生活動線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 位置에 있어 잠을 자는 寢床의 위치로 추측됐다. 이 침상시설의 바닥과 벽의 表面은 진흙과 砂質土를 이용하여 건물지내의 다른 바닥과 같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또 건물지 동측벽에 連接하여 벽 中央部에서 시작하여 北壁 외부로 뻗어나간 구들의 측벽 두줄이 나타났는데 割石을 세워 점토와 사질토를 섞어 다져쌓은 것이다. 축벽의 두께는 15~20cm, 이고 구들 內幅이 25~30cm였고 깊이는 20~30cm 정도이다. 그러나 남쪽 끝에서 구들폭이 넓어져 東西 90cm. 南北 60cm 범위에서 까맣게 탄



안악제 3호 무덤벽화의 부엌간 그림

燒土層部位가 바닥보다 5~6cm 낫게 깔렸고 이 部位에서는 西쪽으로 아궁이 구멍을 마련하여 구들의 남쪽끝을 막았으며 내부 中間部에는 작은 돌을 몇개 세워놓아 솥을 걸쳐놓을 수 있게하였다. 이 소토 바닥층에서 黑褐色 軟質土器 뚜껑형 접시가 하나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4~5세기의 百濟土器로 추정된다. 이 구들시설은 전체 길이 約 3,7m 인데 竪穴內部에서 2.3m, 外部에서 1.4m 이고 아궁이에서 北쪽 벽 가까이까지는 約 30cm 정도 경사져 높아지고 여기서 外部 구들 끝까지는 갑자기 높아져 50cm 가량 더 높다. 또 出入 계단 옆 西측에 別涂의 內部로 通하는 골목길이 있고 그 끝에는 큰容器를 묻어 놓았던 자리가 있으며 이 建物址 西南모서리 내측에 또다른 큰 容器자리가 있다.

이 건물지 남쪽 좀낮은 지대에는 東西方向으로 列지어 있는 木册孔이 나왔는데 그 구덩이의 간격은 1.2m 이었는데 이 구덩이는 처음에 직경을 넓게 파고 그 밑에서 다시 기둥이 들어갈 정도로 좁게 파서 2중의 착공을 한 것이었다. 이것은 기둥을 세운 후에 그 옆을 다지기 쉽게하기 위한 것 같았다. 건물지의 西北과 東南쪽에는 平面으로 보아 圓形과 方形이 混合된 貯藏孔이 露出되었는데 이것은 特異한 형태의 穴倉이다¹¹⁾.

이 건물지는 出土유물 木册과 건물지의 위치등을 불때 百濟의 兵營址로 추정되었고 건물구조는 역사 크게 발전하지는 못한 초가지붕의 가구로 믿어진다.

○文獻上에 나타난 이 時代 住居 이 時代의 우리나라 住居에 對하여 記述한 것으로 中國의 문헌중 몇가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後漢書 東夷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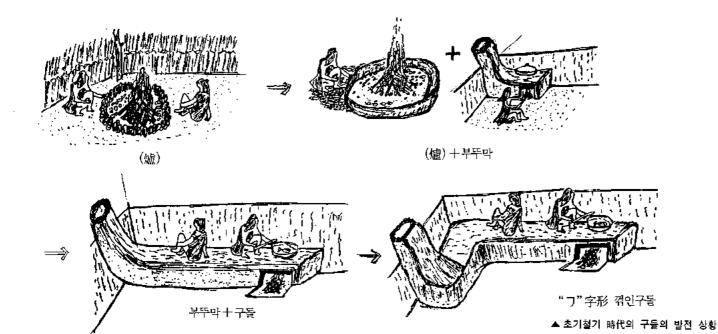
三國誌魏志 다음의 중국의 남북조시대에 편찬된 이 문헌에는 부여, 읍루, 고구려, 동옥저, 韓 및 倭에 對한 傳이 있어 이것을 東夷傳으로 전하여 온다. 이중 挹婁와 韓、扶餘條에 나타나는 住居에 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읍루條에는 「…其邑落各有大人 處於山林之間 土氣極寒 常爲穴居以 深爲貴 大家接九梯」(4 邑落에는 大人이 있고 山林사이에 居處하고 기후가 매우 추워서 항상 穴居하며, 깊을수록 귀하고 九梯를 接하였다) 고 되어있다. 이 記錄을 보면 움집의 깊이가 깊을수록 貴하게 여겼다는 것과 九梯 즉 아홉사다리라함은 사다리가 높음을 의미했을 것으로 본다.

韓條에는 前述했듯이「有三種

- 曰焉韓二曰辰韓三曰辯辰 …… 作土室形冢如開戶左上」(三種의 있어 馬韓, 진한, 변한으로서 무덤과 같은 土室을 만들어 문이 위에 나있다)이라 하였다. 또 晋書 四夷傳 肅愼氏條에도

「……夏則巢居

冬則穴處」(여름에는 巢居하고 겨울에는 穴居한다)고 하여 巢居를 高床住居로 흔히 인식하고 있다. 이 記錄에 의하면 高床의 住居도 이 시기에 있었으리라고 믿어지지만 이러한 유구는 남아있지 않다. 또 三國志魏志東夷傳 辯辰條에



「…其國作屋

橫累木爲之有似牢獄也」(그나라는 집을 짓되 가로쌓은 累木으로 이루어 마치 감옥과 같다)라고 하여 역시 앞서 설명한 귀틀집인데 이도 그 유구가 남아 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資料가 있는 수혈주거를 中心으로 이 時代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기술한다면 첫째, 이 時代의 住居址의 위치는 前代와 기의 같은 江岸地域이었다. 둘째, 平面은 한변이 4~6m되는 方形 또는 方形에 가까운 것이 많았는데 특수한 경우 큰 규모의 평면도 볼 수 있다.

셋째, 이 時期에는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건축제의 가공기법도 발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톱의 이용으로 板材를 사용한 건축도 추측할 수 있다. 前記한 水原 西屯洞 주거지에서 出土된 切斷된 板材와 철제톱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또 본문에서는 據論하지 않았지만 1977년의 發掘調査에서 밝혀진 서울 華陽地區 유적¹²⁾에서도 板材로 흙벽을 친 유구가 외출 구둘시설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 유적은 百濟 初期에 屬하는 유적으로 추축된다. 넷째, 이시대의 주거지에는 특히 暖房과 炊事를 위한 구들 혹은

부뚜막이 發達되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煖房을 위한 爐는 그대로

있도록 바닥에 강돌을 빽빽히 깔고 그

위에 진흙을 덮었고 또 주위에도 같은

사용하되 좀더 殘熱을 利用할 수

材料로 된 뚝을 돌리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溫突로 발전시킬 最初의 구들 시설이라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爐(화덕)는 주거지 벽선에 접하여 연기를 외부로 뽑아내게 하였는데 이것은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炊事를 위하여 시설 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미 설명했지만 취사를 위한 이 부뚜막은 사철 또 朝夕이나 수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잘 빠지게 주거지 벽에 붙여 煙筒을 빼내기위하여 자연히 한쪽으로 붙여 놓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排煙을 위한 터널식의

구들의 축조법이 쓰이게 된다. 초기철기시대 후기에는 이렇게 2종류의 화덕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쓰여지던 것을 외줄구들 하나로 합쳐 사용하게 되는데 터널형 구들을 주거지 한쪽벽을 따라 길게 뻗어 한편 끝은 터널측면으로 뚫린 아궁이를 두고 솥을 걸게 하였으며 또다른 한편은 굴뚝을 세워 연기를 집밖으로 유도했다. 외줄구들은 차츰 벽선을 따라 미字로 꺾여 구들의 길이를 연장, 난방의 효과를 꾀하게 한다. 또 구들의 축조는 강돌과 진흙을 사용하여 殘熱效果가 좋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는 初期부터 温突을 發展시켜 지금의 우리나라 温突構造를 傳한 것이라고 믿어진다.

다섯째, 이 초기철기시대 후기는 原三國時代에 속하므로 강력한 集團세력과 勞動力으로 支配者의 權威建築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상당히 發展되었다.

이것은 三國志魏志東夷傳 高句麗條에

「……好治宫室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又和靈星社稷…」(宮室을 수리하기를 좋아하고 거쳐 左右에 큰집을 세워 神에게 제사지내고 또 星靈과 社稷을 기원하였다)라고하여 權威建築으로서 宮殿과 神殿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註□

- 1. 金元龍:韓國考古學 概説, 一志社 1987年 第三版 p. 102.
- 우리나라 철기의 出現이 북한에서 발견되는 一連의 明刀錢 유적과 관련이 있다고 金元龍先生이 記述함,
- 韓永熙:住居生活 韓國史論,13, 國史編纂委員會 1983년,時代編年号 참고함.
- 林永珍: 음집의 分類의 變遷, 韓國考古學報 17. 18, 韓國考古學 研究會 1985.
-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査報告書
 12. 13, 14冊 中島發掘報告 I, II, III
 1980, 1981, 1982.
- 6. 前掲書
- 張慶浩 : 우리나라 煖房施設인 溫岁 (구들) 形成에 對한 研究,考古美突 165 韓國美術史學會1985.
- 8. 林炳泰:水原 西屯洞 住居址發掘, 博物館新聞 1982. 2 제126호
- 9, 韓永熙:前掲書 再引用.
- 10. 張慶浩, 洪性彬:扶蘇山城内 建物址 發掘調查略報告 文化財管理局 文化財 제17호 1984.
- 11. 对金大學校 華陽地區 遺蹟發掘調查 報告書, 1977年.

住居用 建物의 設計改善方案 研究(2)

朴相東 朴孝洵 尹龍鎮 韓国動力資源研究所

Report/A Study on the Energy Efficient Design Methods in Residences Park, Sang-Dong Park, Hyo-Soon Yoon, Yong-Jin

- Ⅲ. 住居用建物의 에너지節約計画
- 2. 住居用建物의 에너지節約方案
- 2. 建築計画
- 바. 開口部

창문을 설계할 때에는 창에 의한 온열환경, 自然採光, 開放感등 실내거주자의 심리면, 통풍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건물의 열성능과 관련해서는 외기온의 급격한 변동이나 일사등이 실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은 暖房에너지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로 건물의 다른 부위에 비해 창은 열을 잃는 부위로 간주되나 창이 남향으로 설치될 때에는 열손실에 비해 열취득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의 熱負荷와 관련하여 창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 겨울철의 일사취득
- 단열효과

이와 같은 창호의 기능에 영향을

- 여름철의 일사차폐
- 氣密性의 제공
- 자연환기 제공

미치는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 크 기
- 유리面의 數
- 方 位
- 유리材料 및 접착필름
- 창틀 材料
- 氣密장치 및 코킹
- 形 態
- 內部遮陽施設
- 開閉方法
- 施工精度

1) 유리면의 수

- 壁에서의 부착위치
- 外部遮陽施設

유리면의 수가 많을수록 단열효과가 좋아진다. 유리면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창호의 크기, 무게, 비용과 그 효과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실험*에 의하면 單層유리에 비해 2중유리를 사용하면 熱損失이 50% 감소되나 3중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2중유리에 비해 33% 감소된다. 또 3중유리에 비해 4중유리의 사용으로

얻어지는 감소량은 25%에 불과한다.

그러므로 4중유리의 사용은 거의

□註*-

Affordable Housing through Energy Conservation, U-S-DOE, 1983,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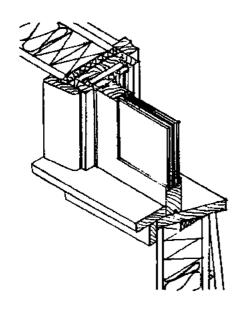
■ 필자약력

朴相東:韓国動力資源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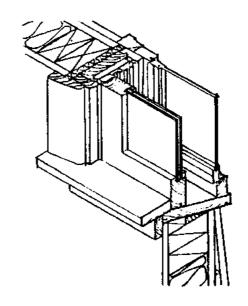
建物研究室長, 工学博士

朴孝洵:韓国動力資源研究所 建物研究室 先任研究員

尹龍鎮:韓国動力資源研究所 建物研究室 研究員



(그림 - 12) 단일샛쉬 3 重유리



[그림 - 13] 2 重샛쉬 3 重유리

드물며 단지 극한지역에서 이용될 뿐이며 單窓 2중, 3중창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리를 2중으로 사용할 때에는 1개의 샛쉬에 복충유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샛쉬에 단층유리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후자에 의한 2중창이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이는 유리 사이의 공기층으로 인해 단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 방지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3중유리를 사용할 때는 외국의 경우에는 [그림-12]와 같이 하나의 샛쉬로 구성하거나 [그림-13]과 같이 복층유리 및 단충 유리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2중창과 마찬가지로 후자의 방법이 에너지절감면에서 효과가 크다. 이 때 샛쉬를 2중으로 할 경우에는 창과 창사이에 結露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충유리를 실외측에 설치하거나 氣密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Weather Strip 올 잘 설치해야 한다. 한편 유리의 열관류율은 〈표-8〉과 같다.

2) 창불 材料

창틀은 재료에 따라 熱抵抗에 차이가 크다. 이중 금속재료가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나쁘며 특히 열류차단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압루미늄 창틀에서의 열손실이 크다. 금속재의 창틀은 값이 싼 반면에 熱傳導率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熱橋를 형성하여 겨울에는 실외로 여름에는 실내로 열을 이동시켜 주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속제 창틀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열류차단장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차단장치는 열저항을 높여 창호를 통한 열손실을 줄여준다. 나무는 본래 금속에 비해 훌륭한 단열성 재료이며 나무를 창틀로 이용한 창호는 다른 금속제 창호에 비해 대개 에너지절약측면에서 효과가 높다. 이는 열류차단장치를 갖춘 금속창호에 비해서도 대개 손실량이 더 작다. 새로운 창틀 재료로는 플라스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재료의 열성능은 나무와 금속재료의 중간쯤에 해당된다. 실험에 의한 각종 창틀 재료의 열관류율은 (표一9)와 같다. 같은 알루미늄 창틀일지라도 열류차단장치를 갖춘 창틀의 열관류율이 2.9로 약 33% 나 낮은 값을 보여준다.

3) 유리재료

우리나라의 경우 유리재료로는 대부분 유리가 이용되고 있으나 재료의 종류에 따라 건물내부로 사업되는 일사량이 달라진다. 유리의 종류로는 투명유리, 반시유리 및 필류, 흡열유리 및 필름동이 있다. 透明유리는 가장 이용이 많으며 위의 세가지 종류종 투과율이 가장 높다. 이는 실내로의 일사유업에 가장 유리함을 의미한다. 또한 남면창일 경우 겨울철 일사를

〈麥-8〉, 유리의 熱貫流率

64 ST		熱貫流	率 [Kcal/m	^ւ ի℃)
種類	두께 및 구성[mm]	韓国,	日本。	美国'
單層유리	3.0	4.8	5.8	5.3
複層유리	$12(S_3+A_6+S_3)^d$	2.6	3.25	2.8
二重窓	3 mm. 2 매, 간격 100 mm		3.5~4.5	

- *a) 實験條件:外気風速 5 m/sec, 室外 0℃, 室内 20℃ 住居用建物의 에너지 節約研究(III), 動資研, 1985.
 - b) 實験條件:外気風速 5 m/sec, 室内自然対流, 室外 0 ℃, 室内 18℃ 大林組編:負荷計算哺計望1, 昭和40, p. 103.
 - c) 實験條件:外気風速 6.7m/sec, 室内自然対流, 室外 -18℃, 室内 21℃ ASHRAE HANDBOOK, 1985 FUNDAMENTALS, 1985, ch. 27
 - d) S:單層유리 A:空氣層

材料	두께(㎜)	熱貫流率[kcal/m²h℃]	비 고
알루미늄	80	4.3	*各 窓틀間에는 구
알루미늄(열류차단 장치부착)	80	2.9	성상 두께 및 내
합성수지	90	1.5	부구조에 차이가
목 재	120	1,2	있음

〈表 ~ 9 〉창틀재료의 熱實流率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투명유리가 좋다. 그러나 여름철의 일사차단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거실 내로의 빛 투과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사유리(필름)와 吸熱유리(필름)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흡열유리는 빛의 형태로 실내로 유입되는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태양열취득을 감소시킨다. 흡열유리를 투명유리와 함께 이용할 때에는 흡열유리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흡열유리가 흡수한 열을 실내와 차단함

반사유리는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거울처럼 그 표면에서 반사시키는 것이다. 이 유리도 다른 유리와 같이 사용할 때에는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사조절을 위해 투명유리에 직접 필름을 부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필름은 앞에 언급한 반사 및 흡열유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유리에 비해 유지 관리가 까다롭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투과율을 감소시키는 유리들은 일사취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겨울철 일사취득이 필요한 남면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여름철의 일사차폐에 유리하다.

4) 창의 방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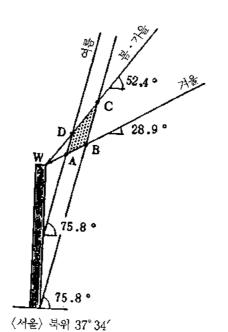
수 있다.

暖房負荷는 창의 방위와도 관계가 깊어서 동, 서, 북면에서는 창면적비의 증가에 따라 난방부하도 증가하지만 남 및 남동면에서는 거꾸로 감소한다. 건물의 방위별로 창면적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일별 및 계절별로 태양의 경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창면적이 마주하고 있는지 등이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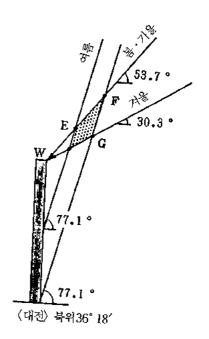
사. 일사차폐시설

창으로부터의 일사에 의한 부하름 감소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차양, 루버, 블라인더의 사용이다. 실내설치 블라인더보다도 외부에 설치된 루버나 차양에 의한 효과가 더 크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 창의 향과 크기 등을 고려해야 에너지절약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름철의 태양을 차단하기 가장 쉬운 곳은 건물의 南面이다. 이 때는 태양고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遮陽으로도 창만이 아니라 벽까지도 적절하게 음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동, 서면은 日出 및 日沒로 인해 음영을 만들기 어렵다. 이러한 차폐시설은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건물 내부에 차폐시설을 하면 차폐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태양열이 투과되기 때문이다. 효과적이면서도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부 일사차폐시설로는 나무 등을 들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대지를 택할 때에는 대지 자체의 식생 등 자연조건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림-14]는 서울, 대전의 차양계획도이다. 차양은 겨울철에 일사를 차단하지 않고 여름철에는 건물에 음영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 방법에서는 3월21일, 6월21일, 12월21일 정오의 태양고도를 기준으로하여 차양을 설계한다. 우선 겨울철을 고려하면 12월21일의 태양고도에 의한 WB 선은 창에 일체의 음영을 만들지 않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음영이 생기는 선이다. 만일 9월21일에서 3월21일까지 창에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3월21일의 태양고도인 WC 선이 차양선이 된다. 다음으로 여름철에는 6월21일의 태양고도와 창의 하부를 연결한 선은 창 전체에 음영을 만든다. 여름철의 음영선과 겨울철의 음영이 생기지 않을 3월21일 태양고도선과 만나는 점 C나 D는 겨울철, 여름철 공히 적절한 차양길이를 제공한다. 여름철 창의 반 높이까지만 음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WD 를 연결하면 되나 전체에 음영을 만들려면 WC가 遮陽計劃線이 된다. WA 선은 12월21일에만 유영이 생기지 않으며 WD 선은 3월21일까지 음영이 생기지 않는 선이다. 사변형 ABCD 내가 차양계획에 가장 적절한 범위가 되면 최소 WAD 내에는



[그림 – 14] 適陽計劃劃



들어야 한다.

건물 내부에 베네시안 블라인드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두운 색보다는 반사율이 높은 밝은 색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천으로 된 커텐도 일사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며 커텐의 가장자리 부분을 건물과 잘 밀착시키면 어느 정도의 단열효과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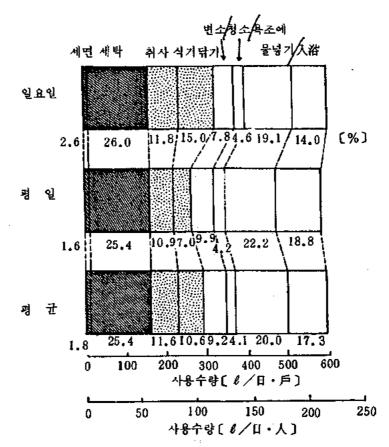
아, 틈새바람

환기와 습기의 발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내공기를 외부공기와 교환해 주어야 하나 이 양이 증가하면 에너지 문제가 대두된다. 틈새나 개구부를 통해 실내로 취입된 공기의 온도는 외부공기온과 같기 때문이다. 겨울철 외부에서 取入된 공기는 가열시켜야 하는 반면 여름철에는 쾌적수준에 맞도록 냉각시켜야 한다. 이것이 톰세바람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의 이유이다. 틈새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물구조와 관련하여 틈새바람 감소에 가장 유효한 방법은 건물외피를 기밀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틈이나 개구부등 틈새바람의 source 를 막는 것이다. 틈새바람과 관련하여 '건물의 부위별 성능 및 설비기준(안)'에서는 건물 개구부의 空氣漏出 허객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누가측정은 내외기압차가 75 pa. (7.5mm H₂O)인 상태에서 건설부 공시 제201호 건축물 개구부등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에 외한다.
- —창, 미닫이, 여닫이문, 출입문, 회전문등 개폐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개구부는 侵氣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고 漏氣試驗에 합격되어야 하며 허용누가량은 톰새길이 1m당 1.6ℓ/s(6㎡/h)로 함이 바람직하다.
- 불필요한 틈새, 창문과 벽제사이, 벽과 지붕(또는 천정)사이, 벽, 지붕(또는 천정)에서의 부제간의 틈새 등 불필요한 침기원인이 되는 개소는 코킹재, 가스켓 또는 기타의 기밀재로 밀봉되어야 한다.

자. 通風

통풍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또한 통풍의 효과를 예측하는



[ユ림 - 15] 用途別 家口当 旧使用水量

것도 어려운 일이다. 통풍을 이용하면 여름철 실내의 온습도를 저하시켜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므로 에너지절약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통풍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바람이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풍의 효과는 평면적, 단면적으로도 통풍경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의 입구와 출구외 직절한 배치, 즉 통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室配置를 해야 한다.

3. 設備計劃

가. 暖房設備

난방설비의 에너지절약방안을 크게 나누면 설계조건의 완화, 장치용량의 저감, 고효율기기의 사용, 자연에너지 이용, 배열회수, 운전제어의 최적화, 설계의 합리화 및 최적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용건물의 난방시스템은 대개가 온수온들에 의한 바닥 난방방식이다. 보일러를 선택할 때에는 에너지 원에 따른 경비나 설비효율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비록 기기의 가격이나 설치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유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내구성이 약한 器機는 비경제적이다. 기기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건물에 대한 기기의 용량이다. 물론 기가의 용량은 최대난방부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기의 용량이 소요 규모에 비해 과다하면 運轉費用이 항시 많이 들게 된다. 난방량의 조절에는 thermostat 의 이용이 효과적이다. 특히 겨울철 야간에는 거실이나 식당, 주방 등의 난방은도를 下向調節 (setback) 함으로써 야간에 在室者가 없는 공간의 난방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다. 실내에 thermostat 를 설치할 때에는 直達日射나 Cold draft 를 피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20~150cm

中、給排水設備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급배수설비의 에너지 소비량은 사용수량과 송수저항의 숨으로 결정된다. 주택의 경우, 용도벌 사용수량은 [그림-15]와 같다. 이는 일본의 예로서 목욕수량 등 우리 실정과 차이는 있으나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변기 선정 및 세탁기의 보급으로 인한 세탁용 물의 사용이 많은 점 등이 있다. 급배수설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은 우선 사용수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배수 기구에서의 절수와 누수 방지가 기본이다. 절수형기기의 개발 및 사용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절수의식 또한 필요하다.

다, 給湯設備

급탕설비는 질수 및 누수방지 외에도 열손실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기기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 탱크나 파이프 등의 보온을 잘 해 줘야 한다. 또한 송수저항 및 그로 인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배판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이 좋다.

4. 照明計劃

주택에서의 조명용 전기에너지는 난방에너지에 비해 그 양은 석으나 주거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조명용 전력의 합리적 사용을 통한 에너지절약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조명에너지절약의 강조로 인해 시작업성적이나 視效率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조명에서 소비되는 연간에너지량(전력량)은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KWh = W \cdot T \cdot \frac{E \cdot A}{F \cdot U \cdot M}$

여기서 W : 器具 1대당消費電力(Kw)

T: 점등시간(h)

E: 平均설계照度 (Lux)

A: 바닥면적(m²)

F: 기구1대당 램프光東(1 m)

U:照明率

M:補修率

그래서 조명에서의 에너지절약은 상기 7.요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조명설비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절약방안으로는

- 적정조도 기준의 설정
- 고효율램프 및 點燈장치 사용
- 고조명율 조명기구 및 高反射率 내장재 사용

- 작업 공간의 국부조명 및 가변조절기의 사용
- 자연채광의 적극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3. 斷熱計劃

1. 建物의 斷熱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의 에너지질약 방안은 무수히 많다. 한 편 기존건물의 예를 들면 신축건물과 달리 기존건물은 절약방안이 한정돼 있으며 그 가운데 건물의 단열에 의한 절약효과가 가장 큼을 (표-10)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0)에서와 같이 이러가지 절약방안 중 건물단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감효과가 6.7%로 절약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열은 건물에너지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단열의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참고로 외국의 단열관련 법규에 대해 부록에서 설명하였다.

가. 鬱熱의 目的

단열이란 열이 흐르는 물체의 열저항을 크게 하여 열류량을 작게 하는 것이며 단열재료란 열전도율이 작은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0.05 Kcal/mh ℃이하의 연전도율을 가지는 재료를 말한다. 인간은 야생동물과 달리 자연상태의 기후하에 노출된 체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 혹은 비바람 등 모든 자연현상에 순응하는 기능은 퇴화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Shelter 가 필요하며 그러한 Shelter 로서 건물이 존재한다. 이런 건물내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불쾌감은 더위, 추위 외에도 空氣汚染, 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열재는 더위, 추위 등에 의한 불쾌감을 방지하여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돕는다. 또 겨울칠의 외기온 저하로 인한 건물 외벽면의 표면결로 방지를 위해서도 단열재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주택의 기밀화 및 실내에서 발생되는 수증기 때문에 단열만으로는 결로가 방지되지 않으며 적당한 환기가 병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단열제는 에너지절약의 역할도 하지만 실내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검하고 있다.

단열의 목적은 실내의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의 5가지를 둘 수 있다.

- ① 외기의 온도변화나 일사의 영향을 실내에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
- ② 벽의 실내측 표면온도가 실온에 가깝게 되어 벽체로부터의 열복사가 작아진다.
- ③ 실내의 상하온도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쾌적감이 증대한다.
- ④ 단열로 인해 건물의 열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난방 정지시에도 실온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다.
- ⑤ 벽표면의 결로를 방지하여 곰팡이 등으로 인한 표면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나. 壁體温度와 斷熱

실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在室者와 벽체간에는 輻射에 의한 傳熱이 발생한다. 이 때 재실자의 위치나 자세등에 따라 벽체표면온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재실자의 위치에 따라 주위 실내표면과의 형태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면온도는 벽면의 재질과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재실자와 표면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복사전열을 하는 것과 같은 평균표면온도를 이용하며 이를 平均輻射温度 (MRT, Mean Radiant Temperature) 라 한다.

 $MRT = \theta_{1\varphi_1s} + \theta_{2\varphi_2s} + \theta_{3\varphi_3s} + \dots + \theta_{n\varphi_ns} (^{\circ}C)$

 θ :壁體表面温度

φ:壁體의 在室者간의 形態係數

〈表 - 10〉既存建物의 節約要因別 에너지 節減可能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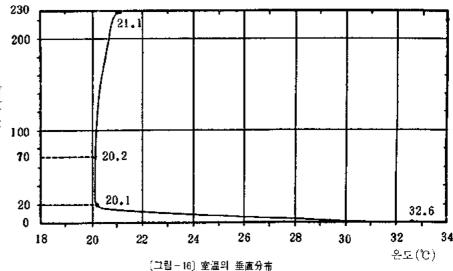
운전관리 합리화	폐열회수	보 일러 교 체	배 관 및 트랩교체	설비보온	건물단열	기 타	계
1.6	0.9	1.7	0.3	0.1	6.7	0.3	11. 6

그러나 이 식의 형태계수 산출은 대단히 複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정고가 4 m 이하인 실내에서는 벽채의 평균온도로 대신 이용한다.

$$MRT = \frac{\theta_1 A_1 + \theta_2 A_2 + \theta_3 A_3 + \cdots + \theta_n A_n}{A_1 + A_2 + A_3 + \cdots + A_n} \ (\text{C})^{\frac{2}{36}}$$

재실자의 추위에 대한 감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벽체와의 輻射熱傳達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MRT 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단열이 잘 된 건물에서는 실내온도가 동일할 경우, 단열되지 않은 건물에 비해 벽체온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MRT 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또 실내의 수직온도 분포도 고르게하여 쾌적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단열된 건물의 실내온이 비단열실에 비해 다소 낮을지라도 동일한 MRT 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바닥복사난방 방식의 실내에서 행한 쾌적온도범위 설정 실험에 의하면 室温이 中性範圍일 경우, 벽체온도는 17℃이상, 바닥온도와 벽체온도간의 관계에 의한 벡터복사온도가 17 K 이하일 경우에 제실자들은 쾌적반응을 나타내었다.

다. 室温의 分布와 斷熱 겨울철 실내에 난방 기구를 이용하여 발열시키면 주위 공기는 따뜻해져 상승한다. 이에 비해 외벽에 접한 공기는 냉각하여 하강하므로 실내공기는 대류를 일으키게 된다. 이때 외벽의 실내측 표면온도가 낮을수록 공기의 하강이 경해지며 실내온도분포가 고르지 않게 된다. [그림-16]은 바닥난방시 실내공기의 수직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단열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천정 근처와 바닥과의 온도차가 단열이 잘 된 경우에 비해 월등히 커진다. 이 때 수직온도만이 아니라 수평온도분포도 고르지 않게 되어 실내환경을 해치게 된다. 이와 같이 건물의 단열은 단순히 난방에너지를 절감할 뿐 아니라 실내의 공기온도분포를 고르게 하여 쾌적감을 높여 준다. 너우기 MRT 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아지게 된다.



라. 바닥난방과 단열 바닥난방은 對流暖房과 같이 방열기로 주위 공기를 덮혀고 그 더워진 공기가 바닥, 벽, 천정온도를 상승시키는 과정과 달리 바닥면이 발열면이 되어 공기를 덮힘과 동시에 바닥, 벽, 천정을 복사열에 의해 온도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바닥과 벽. 천정의 5면과의 복사열평형과 실내온의 평형에 의해 바닥온도가 결정된다. 바닥면에서는 복사발열 외에 바닥 하부로의 관류열량

$$\begin{pmatrix} \frac{1}{t_{f}} - \frac{1}{a_{f}} \end{pmatrix} (t_{f} - t_{01})$$
 와 실내공기로의 대류열전달에 의한 $a_{CF}(t_{f} - t_{a})$ 가 더해 진다. 이에 비해 수열은 천정과 4

벽면으로부터의 바닥을 향한 복사열이 있다. [그림-17]은 바닥난방에 있어 바닥면의 熱平衡을 나타낸 것이며 바닥면에서의 필요열량은 다음식과 같다.

따라서 바닥발열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닥하부의 熱貫流率을 작개 해야 한다.

2 部位別 斷熱方法

가, 단열재의 종류와 특징 단열재는 그 섬유나 기포 중에 움직임이 없는 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열전도율이 0.05 Kcal/mh ℃ 이하인 재료를 말한다. 현재 주택에 많이 이용되고

$$MRT = \theta_{i,\varphi_i,S} + \theta_{2,\varphi_i,S} + \theta_{2,\varphi_i,S} + \dots + \theta_{n,\varphi_n,S} \qquad (^{\circ}C)$$

 θ :壁 體表面温度

φ: 壁體와 在室者간의 形態係數

$$\mathbf{q} = \{\alpha_{ef}(\mathbf{t}_f - \mathbf{t}_a) + \frac{1}{\frac{1}{\mathbf{k}_f} - \frac{1}{\alpha_f}} (\mathbf{t}_f - \mathbf{t}_{01}) + \sum_{c} \frac{\mathbf{C}_{1} \cdot \mathbf{C}_{2}}{\mathbf{C}_{b}} \left[\left(\frac{\mathbf{T}_f}{100} \right)^4 - \left(\frac{\mathbf{T}_n}{100} \right)^4 \exp[\mathbf{k} \mathbf{c}_{a}] / \mathbf{h} \right]$$
 [kcal/h]

여기서. ta : 바닥 下部의 空氣温度 [*C]

> むご 中壁 表面温度 (°C)

> ta:室内 空氣温度 (°C)

> T/: 바骨表面 絶對温度 (°K)

Tn: 天井、璧의 表面絶對温度[°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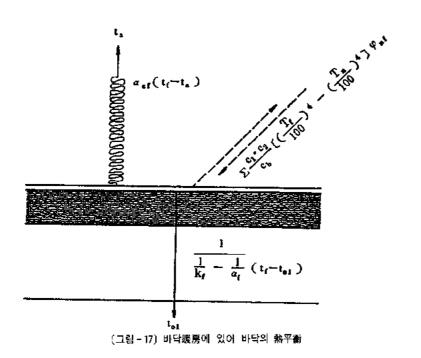
T/: 바닥 熱貫流率 [kcal/m²h℃]

αテ: 바닥室内側表面 熱傳達率 [kcal/m²h℃]

αcf: 바닥 室内侧表面 對流 熱傳達率 [kcal/m²h℃]

C₁·C₂ C₀: 바닥과 各 表面과의 有效輻射整數[kcal/m²h°K]

 φ_{nr} : 바닥과 他面과의 形態係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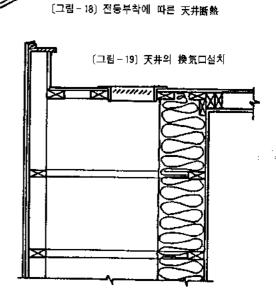


있는 단열재나 단열성이 있는 建築資料는 다음과 같다.

- 1) 無機섬유계 단열재 유리섬유나 암면등은 유리나 암석을 녹여 섬유 형태로 만든 것이다. 투습성이 있는 것이 결점이나 난연, 흡음, 탄력성이 있어 시공이나 취급이 간단하다. 주로 천정 위나 외벽, 바닥 등에 사용된다.
- 2) 發泡플라스틱계 단열재 포장재로도 사용되는 foam stylen 이나 압출발포 폴리스티렌, 변질우레탄폼, 폴리에틸렌 폼등이 있으며 이들은 플라스틱을 발포시켜 촘촘한 틈새에 공기나 기타 기체를 형성시킨 板 형태의 단열재이다. 불에 타는 것이 결점이나 흡수성이 작고 耐壓縮性이 좋다. 이 외에 현장에서 발포하여 충진시키는 형태인 우레탄폼이나 우레아폼이 있다.
- 3) 연질 섭유탄 천연의 목재섬유를 이용하여 판 형태로 성형한 것으로 내장 마감재로 많이 이용된다.
- 4) 輕量氣泡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기포를 삽입하여 경량화시킨 것으로 ALC 라 불리는 것이 주요 제품이다. 특히 이 재료는 구조재로도 직접 이용 가능한 단열재이다.

나. 천정단열

주택의 지붕을 통한 열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天井斷熱을 중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난방기에 그 효과가 더욱 좋으며 여름철에는 열취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천정의 단열재로는 솜이나 두루마리등 여러 형태가 있다. 현재 천정 단열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Fiber glass, Mineral wool. Cellulose fiber, 발포 플라스틱계 단열재 등이 있다. 단열재를 시공할 때는 단열재가 눌릴 경우 그 부분의 실제 열적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처마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눌림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공시 시공경비를 줄이고 전면적을 확실하게 덮기 위해 단열재의 폭을 잘 조절해야 한다. 발포 형태의 단열재를 이용할 때에는 천정면 전체에 걸쳐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천정단열은 가능한 한 끊어짐이 없는 Blanket 형태로 해야 한다. 천정관통부위 등에서 단결부위가 끊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천정을 관통하는 전기배선부분등은 주위를 氣密하게 함으로써 단열결함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단열재와 천정 사이의 빈 공간은 열손실을 증가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림-18]과 같이 천정 내에 매립되는 전등에서 발생하는 열의 放散을 위하여 그 상부에는 단열재를 덮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열재가 없는 부분은 겨울철에는 열손실, 여름철에는 열취득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설치된 단열재의 성능을 최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습기의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택내에서의 습기는 재실자와 취사, 목욕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이런 습기는 천정을 통해 상승하고 단열재에 결로를 일으켜 열저항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습기의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마나 용마루 부분에 환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기구를 설치할 때에는[그림-19]와 같이 단열제가 그 통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여 공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 벽체단열 벽체단열재로는 판형이나 솜, 모포형태의 것들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 벽체단열시에는 창등의 개구부와 접하는 부분이 기밀하게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이나 환기구동의 개구부 주위는 [그림-20]과 같이 완벽하게 단열처리되어야 한다. 자칫 무시되기 쉬운 창문이나 문등 개구부의 상부에도 단열을 해야 하며 이 때는 판형의 단열재를 이용하면 시공이 간편하다. 조적조의 벽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림—21]과 같이 환기를 위한 공기층을 만들어 주면 좋다. 이것은 습기로 인한 단열재의 성능저하를 방지해 준다. 그러나 공기층 하부에는 응축된 물이 고이게 되어 이 물을 흘러보내기 위한 구멍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

라. 바닥・기초단열 바닥 · 기초의 단열은 지하의 유무, 난방여부등에 따라 여러 방법을 택할 수 있다. Slab-on-Grade 형태의 콘크리트 슬래브 단열재로는 폴리스티렌 폼과 같은 非透濕性의 단단한 형태의 단열제가 대개 이용된다. 이는 凍結線 아래의 기초 벽체를 따라 Slab 의 외부에 설치된다. Slah 의 가장자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단열이 효과적이다. [그림-22]와 같은 외부단열은 기초부위를 통한 열출입을 차단하여 보다 완벽한 기초부위의 단열을 제공한다.

비난방 Crawl Space 를 가진 바닥에서는 최소한 4곳의 기초부분에 대한 환기구가 필요하다. 환기구의 설치 목적은 단열재의 열저항을 감소시키는 습기의 배출을 위한 것이다.

지하실이 비거주공간일 경우에는 단열이 무시되기 쉽다. 지하실을 둘러싸고 있는 흙의 지중은도는 겨울철 외기에 비해 높으나 난방되지 않는 지하공간과의 온도차는 지상의 난방공간과에 비해 작기 때문에 결로발생의 정도가 작다. 반대로 여름철, 지하실의 내벽면에는 지상에 비해 온도가 낮은 지하공간과 지중은도와의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로는 대개 환기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왔으나 환기만으로는 전적으로 결로를 방지할 수 없다. 오히려 습도가 높은 외부공기의 취입은 결로를 촉진시킬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비거주공간일 지라도 [그림-23]과 같이 지하벽체를 단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단열재로는 Roll, 솜이나 版 형태의 것도 좋다.

3. 단열과 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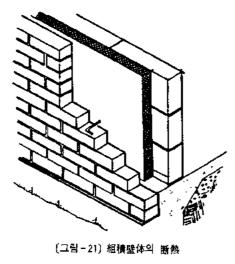
가. 結露現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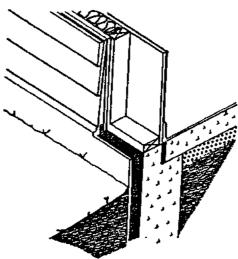
건물의 결로에는 표면결로와 내부결로가 있다. 표면결로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벽, 천정, 바닥 또는 유리창 등의 저온 표면에 닿을 때, 만일 그 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 이하이면 공가는 포화 상태를 초과하여 공기 중의 수증기가 그 표면에서 이슬이 맺히게 되는 현상이다. 반면 벽체의 실내측 표면이 실내공기의 노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벽 표면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중기는 벽체내의 공극을 확산에 의해 침투하며 벽체내의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결로한다. 즉 수증기압이 다른 두 공기가 여러 가지의 재료나 틈이 있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수증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수증기가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벽체 내부의 수증기압 분포와 포화수증기압 분포를 비교하여 포화수증기압이 낮은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결로가 발생하며 이를 내부결로라 한다. 이를 벽체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4, 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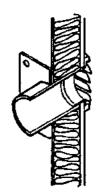
나. 結露의害

전물에서 발생하는 결로로 인한 주된 피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내에서의 쾌적성을 잃게 된다. 벽의 표면에 결로가 발생되면 실내가 추울 경우 심할 때는 결영이 되며 온도가 상승하면 녹아 표면을 따라 흐르게 된다. 창의 유리나 틀에서도 결로 발생이 많으며 심하면 창의 개폐마저도 어렵게 된다. 둘째, 벽의 내부결로는 열손실을 크게 한다. 내부결로가 발생되면 벽체내부의 단열재가 젖게 되며 이로 인해 열의 흐름이 쉬워져서 단열성이 저하된다. 이것이 다시 얼거나 녹아 단열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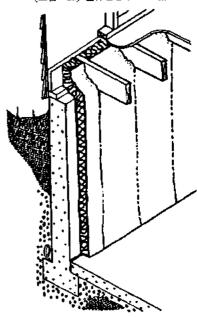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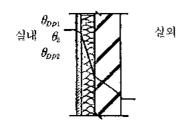
(그림 - 22) Slab - on - grade基礎部位의 斷熟



[그림 - 20] 壁体관통부위의 断熱



[그림-23] 地下內部壁体의 断熱



 $heta_s < heta_{DP2}$ 결로하지 않음 $heta_s > heta_{DP1}$ 결로발생

[그림-24] 表面結構

건물 부위의 내구성도 저하하게 된다. 셋째, 결로로 인해 재료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부식된다. 결로가 계속 발생하면 곰팡이가 생긴다. 이는 벽의 표면을 손상시키며 내무결로로 인해 주택의 내용년수도 줄어든다.

다. 결로발생이 쉬운 장소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다음과 같다.

• 북측, 동서측의 벽, 특히 벽귀퉁이, 가구의 뒷 부분

햇빛이 비치지 않고 북풍이 닿는 북촉벽이나 동서촉벽은 특히 벽돌조, 콘크리트조의 경우 단열성이 나쁘면, 결로의 위험이 있다. 방의 구석 부분이나 바닥과 벽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공기유동이 적기 대문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북촉면에 가구 등을 설치하면 공기호름이 방지되어 내벽면에 걸로가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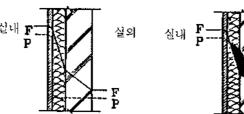
• 벽장 내부

박장내부는 실내에 비해 온도가 낮다. 그러나 벽장 문을 열면 거실의 따뜻하고 습기찬 공기가 들어가 이로 인해 벽표면에서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벽장의 1년이 북측에 면해 있을 경우, 결로발생이 용이해 진다.

지붕속

천정에 단열재를 시공할 때 방습층이 불완전하거나 지붕 속에 환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천정 속에는 결로가 발생한다. 거실내의 수증기를 포함한 따뜻한 공기가 천정속으로 들어가 야간의 열방사로 지붕 내표면에서 결로가 발생된다. 천정 속을 단열할 때에는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동시에 천정 속을 환기시켜 그 속의 수증기를 배출시킨 필요가 있다.

유리, 창틀유리, 창틀중 알루미늄 창틀은



P>F : 결로발생 P>F : 결로없음 F : 어느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압[mmHg] P : 수증기압[mmHg]

[ユ림 - 25] 内部結構

열전달저항이 낮기 때문에 표면에 결로가 많이 발생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림-26]과 같이 창틀을 통한 열을 차단하는 구조로 된 창틀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나 나무로 된 창틀은 열전달저항이 크기 때문에 결로발생의 우려가 적다. 유리창의 경우도 단층유리에서는 결로가 많이 발생하나 多重유리나 복층유리의 사용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 여름철, 지하벽표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하공간은 단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는 외기에 비해 안정된 지중온으로 인해 지상보다도 외벽을 통한 열손실이 작다. 이런 이유로 지하의 단열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면 결로 발생이 심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외벽내표면의 온도가 실내온에 비해 낮으며 습기가 많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여름철, 지하공간의 결로는 환기만으로는 방지되기가 어려우며 지하일지라도 단열에 의해 많은 부분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

라. 結露防止對策

- 1) 표면결로방지대책
- 부재의 단열성을 높인다. 외벽부분의 결로는 그 부분의 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은도 이상이 되도록 벽체의 단열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즉 실내벽체 및 천정의 표면온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 실내의 습도를 낮춘다. 습기발생이 많은 물체나 기기 사용을 가급적 피하며 제습 장치를 이용하거나 환기에 의해 실내의 습기를 제거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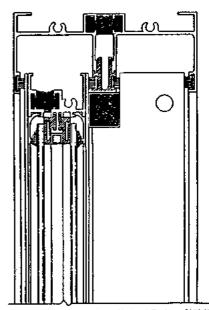
• 흡습성 마감재를 사용한다. 흡습성이 좋은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면 표면결로의 발생을 둔화시킬 수 있다.

실외

결로발생 부위

2) 내부결로 방지대책

- 방습층을 설치한다. 복합재료로 구성된 벽체내의 온도가 높은 쪽에 방습층을 설치하여 습기의 침투를 막는다.
- •단열재의 위치 조절 포화수증기압 분포와 어느 시기의 수증기압 분포를 검토하여 단열재의 위치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단열재의 위치는 외단열이 가장 우수하다.
- 외부로의 습기발산 가능한 한 내부의 습기를 외부로 발산할 수 있는 구조 및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 中空層의 換氣 법체 내에 중공층이 있을 경우 공간 내의 습기를 외부로 발산시킨 수 있는 휜기유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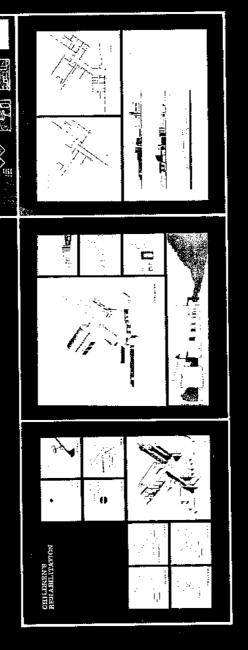


[그림-26] 断熱장치가 부착된 알루미늄 창틀斷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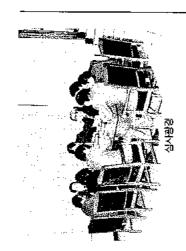
第2回

新人·學生

設計公募展 受賞作



신인 및 학생 건축설계공모전 심사정위



개최목적

건축문화 발전과 새로운 건축동토 조성 및 후진양성에 이바지 하고자 개최함. 학생들의 건축설계 작품을 공모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86년에 이어 본 협회는 신인 및

2. 공모부문

가. 신인부문:지체부자유자 북지시설 기타(도심지내 소규모건축물로 연면적 1000m²이타)

나. 학생부문:주세 세한없음

3. 용모자격

가. 신인:건축을 전공한 대학원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설계 엄무에 종시하고 있는 자.

나. 학생: 각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4. 응모기간: 1987. 6. 1~7.30

6. 심사기간: 1987, 10, 13~10. 14 5. 출품기간: 1987. 9.1~9.10.

김영수(瓦) | 종합건축시시무소 건축국 유경절(C) 본협회서울특별시지부장 본합의 편찬위원회부위원장 본협회 서울특별시기부 무지부장 건축사/무소 협동건축 편찬위원회 위원장 건축사무소 가진 건축위원회 위원장 충합건축시시무소 중합건축사사무소 (주) 정립건축 본협회 아사 본협회 이사 (주) 범건축 4 (五十) 안광원(B) 이영희 (D) ○문우(A) 김창일(H) 김정환(G) 유원재(I) 린(F) . 심사위원 石 위원장 ঝ 상 ক

8. 심사방법

가. 신인부문

01.2차 심사 : 네가터브 방식에 의한 평점 3점이상 작품 탈락

독점순으로 결정

ㅇ3차심사 : 표지티브 방식에 의한

나. 학생부문

01.2차십사 : 네가티브 방식에 의한 명점 4점이상 작품 탈락

○3차십사 : 네가티브 방식에 의한

방식에 의한 득점순으로 3점이상의 O 4 차심사: 잔여 10 작품을 포지티스 평점 3점이상 작품 탈락

작품은 투표로 금은동상 선정

●신인작품 1차 심사결과

-ACE (지체부지유지를 위한 공간) 나 복지센터 및 지체부지유자를 위한 도서관 GALLERY HOUSE 기약 PLACE FOR THE DISABLED 지수 가설보기 가설 다 가설보기 가설 다 가설보기 가설 는 FREE COMPLEX (기설	샮	胡椒		र्फ	i	マ	•	承	₩		7
HOME PLACE (지체부자유지를 위한 공간) 지세부자유사 복지센터 시각장애자 및 지체부지유지를 위한 도서관 OFFICE GALLERY HOUSE 우리동네 한가족 PLACE FOR THE DISABLED SCALE SCALE 장애자 복지회관 소아제활원 소아제활원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애자 복지시설 자에가 복지시설 장애자 복지시설 경애자 복지시설 경애자 부지시설 경애자 부지시설 경애자 부지시설 경애자 부지시설 경애자 부지시설 경애자 부지시설 기체부가유아 유지원	쩐		¥	В		⊢	日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	ъ Б	Ξ	_	₹ ₹
지세부지유사 복지센터 시각장에자 및 지체부지유지를 위한 도서관 OFFICE GALLERY HOUSE 우리동네 한가족 PLACE FOR THE DISABLED SCALE SCALE 장에자 복지회관 소아제활원 소가주거 복합시설 소아제활원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에자 복지시설 지체부자유아 유치원	çų	뿧				T		╀	-	L	0
지각장에자 및 지체부지유지를 위한 도시관 OFFICE GALLERY HOUSE 우리동네 한가족 PLACE FOR THE DI SABLED SCALE 장에자 복지회관 소아제활원 상가주거 복합시설 소아제활원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에자 복지시설 장에자 복지시설 장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가 복지시설 경에가 복지시설 경에가 복지시설 경에가 복지시설 경에와 당기상실	3	지체부자유사 복지센터				十	\vdash	\vdash	-		0
OFFICE GALLERY HOUSE 우리동네 한가족 PLACE FOR THE DISABLED 장에자 복지회관 X 교육의 이웃 X 지계부자유사 지활복지 시설 X 소아제활원 Complex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에자 복지시설 장에자 복지시설 지계부자유아 유치원 지계부자유아 유치원 격대와 용합 경험와 용합	4	시각장에자 및 지체부지유지를 위한 도서관			1	┪		 ×			-
유리동네 한가족 PLACE FOR THE DI SABLED SCALE SCALE 정에자 복지회관 교투의 이웃 지계부자유사 시활복지 시설 상가주거 복합시설 소아제활원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에자 복지시설 강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에자 복지시설 경제부가유아 유치원	2	OFFICE GALLERY HOUSE			-	T	+	+	L		0
SCALE SCALE	မွ	우리동네 한가족 PLACE FOR THE DISABLED			1	╀	+	+	_	$oxed{\Box}$	0
장에자 복지회관 X X 고득의 이웃 지계부지유사 지혈복지 시설 X X X Y 구근거 복합시설 소아제활원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에자 복지시설 장에자 복지시설 자계부지유아 유치원 기계부지유아 유치원	7	SCALE SCALE		-	1-	×	+	\vdash	×		2
교육의 이웃 X X 지계부자유사 시활복지 시설 상기주거 복합시설 소아제활원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에자 복지사설 자에가 복지사설 자에가 복지사설 경에가 복지사설 경에가 복지사설 경에가 복지사설 경에가 복지사실 경에가 복지사실	اۃا	장애자 복지회관		×		1	╁╴	╁	_		
지계부거유사 시월복시 시설 상기주거 복합시설 소아제활원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에자 복지사설 장에자 복지사설 지계부지유아 유치원	13	교독의 이웃	×		T	-		-			-
상기주거 복합시설 소아제활원 BARRIER FREE COMPLEX LIBRARY 장에자 복지시설 장에자 복지시설 지체부자유아 유치원	15	지계부자유사 시활복지 시설					<u> ^</u>	×.	L		-
	16	상기주거 복합시설			-	×	╁	┾-	<u> </u>		-
	17	소아제활원		-	1	H	\vdash	-		L	0
	18	BARRIER FREE COMPLEX				+-	-	\vdash			0
- 	13	LIBRARY				┢╌			×	×	2
- - - 	20	강에자 복지사설		T	†-	\vdash	\vdash	╀	_		0
-	딩	장애가 복지시설			 	-	┝	-	<u> </u>		0
격리와	ន្ល	지체부지유아 유치원				┝		×	<u> </u>		
	ន						-	┝	×		-

신인작품 次 심사결과

_	_	Т	Т	1	1	Т	т	$\overline{}$	\top	γ-
7	र रा	0	-	~	$ \circ $	0	0	-		က
	-									
짜	王									
	BCDEFG			×						×
क	ᄯ	L								
	汩		L			L				
삮	Œ			L.	L			×		
	ပ	_								
ᄱ	В	<u> </u>							×	
	Ą		×	×			L.			
B H	g į	HOME PLACE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문화공간	지체부자유자 복지센터	시각장에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서관	OFFICE GALLERY HOUSE	우리동네 한가족 PLACE FOR THE DISABLED	소아재활원	장애자 복지시설	장예자 복지시설	지체부지유아 유치원
地	씱	2	3	4	2	9	17	20	21	22

스인작품 3차 심사결과(※포지티브방식에 의한 득점제)

f													
쌺	हि	#	75		₹₽		+	क	-	₩		F	Γ-
씱	r	Đ	0	A	B	Ü		고 고	S	프	-	₹ ₹¤ *****	_
	HOME PLACE (A)	(지체부자유자를 4	위한 문화공간)		0		0	0	۲.	0	0	9	1
	지체부자유자 복지센터	運				-	╁╌	\vdash	\vdash	╀	┞	0	_

※ 독점순으로 17번 : 금상, 2번 : 온상, 6번 : 동상, 장려상으로 4번, 20번, 22번, 기작으로 3번, 5번, 21번, 23번 선정

♦ 화생작품 1차 심사결과

					.								,				···· •					<u>-</u> ,			
7	₹.		7		-	2		2	-		\neg					-		-			2		-		
	-		×			×		×																	
짜	H		×	\neg						٦									i						
İ	Ç		×	\exists													Ĭ								
ক	Ľ		Х														_	×							
	ш		×		×			×	×		×					-					×				
4	Ω	-																							
İ	C															1									
₹ ₽	В		×			Х			_					_									×		
	×		×	•												×					×				
	₩ ₩	THE ACADEMY OF FINE ARTS	일·광간	PAINT TOWN	4러	신촌문화센터	대학가 엄대기숙사	전용 CONCERT HALL ECHO9	A ATRIUM BUILDING	SPACE FOR ARCHITECTURE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만남, 희망, 창조	COMPOSITION HOUSE	여의도 광시곡 · 시청사 복합시설	반향 - 민속전시관 -	성속의 성	골목안에서	마을공간의 제구성	1/4	역사의 혼적	공대중축 계획안	커뮤니케이션	창작공간	상업 · 문화 휴식공간	개인 정원이 있는 도시연립 주거 계획안
꺆	- - - - -	2	4	25	~	∞	œ	6	Ξ	12	13	14	16	17	20	21	22	24	25	53	30	34	35	36	37

사람	 	ļ	Ź마		文		상		જ		<u>بر</u>
포 현	\$r ₹r	⋖	В	ပ		田	F	Ö	Н	ı	Į.
33	민주살찬의 장			\Box	×				\neg		1
41	안산 문화광장									\neg	ŀ
45	도시행 저송 고밀주거				\exists	一					
46	COMMUNITY CENTRE	×				×					2
47	숨쉬는 도심광간				×		\neg				-
49	안골							\exists			
23	도시의 맥	×						×			2
25	소리없는 사람들 - 노인복지회관							×		×	2
ន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계획안		·							×	1
54	지체부사유자 시설									×	Ţ
55	모퉁이에								1		
29	해에서 달까지						×				-
88	건축과 환경	×			\Box					-	-
23	5. 18 기념관				×			×			2

• 학생부문 2차 심사결과

			₹₽		ᅷ		₩.		₩		न त
	ψ.	Ą	Э	ပ	Ω	ы	F	G	н	I	<u>,</u>
탪	THE ACADEMY OF FINE ARTS	×			×	Х			-		43
씱	도심의 쉼터 (URBAN POCKET PARK)	_			X	×		X	×	×	5
PA	PAINT TOWN									×	-
名引		×	×			×	×		×	×	9
쓶	신촌문화센타		×					×	×	×	4
3	대학가 임대기숙사		×		×				X		60
15	전용 CONCERT HALL ECHO9	×				×		×	Х	×	2
4	A ATRIUM BUILDING										
S	SPACE FOR ARCHITECTURE		×				X			×	
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급	만남, 희망, 창조					×		×		×	3
5	COMPOSITION HOUSE		Х				×	- "			2
ਲੇ	여의도광시곡ㆍ시청사 복합시설					×					I
売	반양 – 민속전시판 –						X		х		2
₹%	성속의 성	×	×			Х	×		X		2
FID	골목안에서										
규	마음공간의 제구성	×	×]	X		×	X	×		9
水	4										
मु	역사의 혼작										

• 학생부문 3차 심사결과

7	ए हो	5	1			-	3		-	ın	67		귝	2	-	2		Τ	2	2
	-														×	×				
જ	포		ļ	L		<u> </u>			×		×		×							
	O	×	L	<u> </u>	_	_	×	L	_	×	_		×	×	L		L			×
જ	ľĽ,	×	_	ļ	_	_	<u> </u>	_		1	<u> </u>	_	×	_	ļ.,	_	L		×	
	មា		×					_	_	×	$oxed{}$				L	L		L	L	_
₹	Ω	×	<u> </u>	ļ	1	X	×	_	L	×	×	<u> </u>	L	×						×
	၁			_	_	ļ	_	_	ļ		Ļ.	_	L			L	<u> </u>	ļ.	<u> </u>	_
ক	В	×	<u> </u>	<u> </u>			×	L	<u> </u>	<u> ×</u>	L			ļ	_	_	L	<u> </u>	ļ	<u> </u>
	∢,	×		_	_	_	_	_	ļ	×			X	ļ. <u></u>		×		╙	×	ļ.,
1	Į.	공대중축 계획안	커뮤니케이션	창작공간	상업 · 문화 휴식공간	개인 정원이 있는 도시연립주거 개획안	민주실천의 장	인산 문화광장	도시형 저층 고밀주거	COMMUNITY CENTRE	숨쉬는 도심공간	산골	도시의 맥	소리없는 사람들 - 노인복지회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계획안	지체부자유자 시설	보통이에	해에서 달까지	건축과 환경	5.18기념관
中職	년. 42	34	35	36	37	3	41	45	46	47	49	20	51	53	72	22	26	58	5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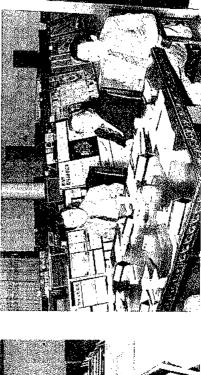
• 학생부문 3차 심사결과

윤

쥿

₹

	,	ı	
	_	×	
팢	Н	×	
	Ð	L	
ō∓	F	×	
	Ŀ		M ₂₀ pp
₹	Q	×	
	C		
₹2	8		
	⋖	L	
п	ø		
ĸ,	9		
Ŕ	_	PAINT TOWN	
ē.	설	נא	





古
Ŧ
大路
K n
바바
<u>ئ</u>
₹.

환성건속 한 문화공간) 김동주・이태호・고등을 선건엔지나이링, 삼에건속 은 상 바근태 이선섭・양재학 (수) 생립건축 가 가 작 기관성・기상단・관광을 성균환대학원 정인에지나이링 등 상 상 상 가 있다. 관광을 성균환대학원 정인에지나이링 등 상 상 가 있다. 관광을 성균환대학원 정인에지나이링 등 사 기관식 가 있다. 관광한 기상단・관광을 성균환대학원 정인에지나이링 등 사 기관식 가 의학수・이용학・고등을 연세대학원 등 1 전 기관식이 하라는 교육 기상 이태구 전 기관식 가 하는 이 등 등 이 등 한 이 등 이 등 한 이 등 이 등 한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등 이 등 등 등 등 이 등 등 등 등 이 등 등 등 이 등 등 등 등 이 등	작품번호 작 품	80	含 3 7 8	소	더
12 문화공간) 김동주 - 이태호· 김동준 선진엔지니어링, 삼매건축 은 바근데 이선영 (수) 상력 건축 상무 기가 상대 대학원 (수) 상력 건축 상대대 대학원 (수) 상력 건축 상대대 대학원 (수) 상력 건축 상대대 대학원 (수) 상력 건축 (수) 상대 대학원 (수) (수) 상대 대학원 (수) (수) 상대 대학원 (수) (수) 상대 대학원 (수) (수) 상대 대학원 (수) (수) 상급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유치원 계획안		조임원	한성건축	
바근테 (주) 상략건축 상무 가 상략 건축 상무 이건성 '양과학 (주) 상략건축 상무 전상학 대학원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상략건축 (주) (주) 상략건축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HOME PLACE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문화공간)	김동주·이태호·김동춘	선진엔지니어탕, 삼매건축	
이선영·양과역 연세대 대학원 가 상 한 경우 이선성·양과역 연세대 대학원 가 의 민준수 - 우창단 시용대 대학원 등 등 비중원 - 지정단 - 관광관 시용대 대학원 등 등 의 교육식 - 가 의 교육	지체부자유자 복지센터		바근테	건축사사무소 샹무	- 1
• 양과학 연세대 대학원 가 이동수·우창관 시울대 대학원 중 등 기성당근 관경을 성균관대대학원 정일엔지니어링 구경관·경상수 대한주明공사 기업계 경 원 SPACES 건축사시무소 이항복 기정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전국대 대학원 전국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경상수 이건성 가정는 연세대 대학원 경상수 연세대 대학원 경상수 연세대 대학원 경상 기상수 연세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경상수 연세대 대학원 경상수 시무소 의건성 가장수 연세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	시각장에자 및 지체부자유가를 위한 도서	刺	이선명	(주) 생림건축	상려상
이동수·우창관 시울대 대학원 중단한지나이렇 : 가성는 관경을 성관한대학원 정일엔지나이렇 : 가정만 경상 대한주明공사 : 가정만 경상 기술에 대학원 : 가정만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의원 (11 대학원 1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기술병	OFFICE+GALLERY+HOUSE		이건설·양재혁	연세대 대학원	
지성는 ·권경을 성균관계대학원 정일엔지니어링 - 과정만·정성수 대한주택공사 - 김정배·정 월 SPACES 건축사시무소 - 아운영·김종일 업세대학교시원과,면세대대학원 - 이학복 건국대 대학원 - 이학복 건국대 대학원 - 선세대 국합건축	우리동네 한 가족		문참호·이동수·우창윤	사울대 대략원	- 1
과정만·장성수 대한주택공사 ·김정백·정 월 SPACES 건축사사무소 아윤현·김종일 열세대학교시원과,면세대대학원 라국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건ন대 대학원 전급대 대학원 전대대 대학원 의원상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상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건성·정천성 연세대 대학원 의전성·정신성·전대 대학원 의전성·정신성·전대 대학원	SCALE+SCALE		박종일·지성근·권정율	성균관대대학원, 정일엔지니어링	
· 김정래·정 월 SPACES 건축사사무소. 아운영·김종일 연세대학교시원과,면세대대학원 이항복 건국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선세대 공합건축 크문영·이병환 우원건축, 테크사드, 교우건축 등 급한상일·연진호 연세대 대학원 · 강순으 경임건축, 친건축 등 기상수 이건성· 강함건축 등 이건성· 강함건축 등 연세대 대학원 · 강한스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이건성· 강함근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성임건축, 인건축 등 성임건축사사무소 하나 가 나이강점 등 영건축사사무소 하나 가 가 등 기상 등 등 성인축사사무소 하나 가 가 등 기상 등 등 성임건축사사무소 하나 가 가 유기성	도심, 원형, 또 하나의 공간		지광석-차정만 장성수	대한주택공사	
아윤현·김종일 열세대하고시얼과,면세대대학원 이항복 건국대 대학원 이항복 건국대 대학원 선세대 종합건축	지역사회의 지계부지유자회관 계획인			SPACES 건축사시무소,KBS 시생	۲.
이용형·김종일 연세대학교자원과,면세대대학원 리학부 건국대 대학원 기학부 건국대 대학원 신세대 공합전속, 대로사는, 교우건축 급 관상일·현진호 연세대 대학원 기강선·성천순 연세대 대학원 기강선·성천순 연세대 대학원 기강선·성천순 연세대 대학원 기강선·성천순 연세대 대학원 기상화·소병규 영남대 대학원 기상화·소병규 영남대 대학원 기상화·소병규 영남대 대학원 기상화·소병규 영남대 대학원 기상 기상 (주)종합선축사사무소 하나 기	믿음·소망·사랑		조영찬	강원건축사사부소	
이향복 건국대 대학원 -이향복 건국대 대학원	장애자 복기회관		우세상·아윤연·김종일	연세대학교시설과,면세대대학원	
이항복 건국대 대학원 선세대 종합건축 역세대 대학원 역세대 대학원 역세대 대학원 의문영·이병원 우원건축, 테크시스, 교우건축 등 경압상 연시한 대학원 경상을 현건호 연세대 대학원 경상상 경청선 연세대 대학원 경상 경망선수 성명건축, 신전축 등 이건성·경청선 연세대 대학원 경우 등 이건성·경험선 연세대 대학원 경우 등 이상화·소병규 영남대 대학원 경우 (주)종합선축사시무소 하나 가유기성 (주)종합선축사시무소 하나 가유기성 원건축사시무소	함 제		이태구	간국대 대학원	•
액이현 연세대 대학원 기본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교독의 이웃		성기창-이항복	건국대 대학원	
·핵의업 연세대 대학원 경문규 의원 - 교육이 이 명 및 역세대 대학원 - 교육이 이 명 우원건축, 테크시트, 교우건축 등 당순상 연시대 대학원 - 이건선·강철순 연세대 대학원 - 이건선·강철순 연세대 대학원 - 이건상·소병규 영남대 대학원 - 기 - 이상화·소병규 영남학사사무소 하나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기	너, 나 그리고 우리들의 만남의 장		과선신	신제대 종합건축	
· 크운영·이명환 우원건축,테크사드,교우건축 금 현상일·현진호 연세대 대학원 '강순숙' 성립건축, 진건축 '이건설·강철순 연세대 대학원 강력 - 유미한·곽영구 연세대 대학원 가 다이상화·소병규 영남대 대학원 강력 유기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 가	지깨부자유자 자활복지시설		최문규·백의현	연세대 대학원	
교윤영·이병환 우완건축,테크시트,교우건축 급 ·현상일·현간호 연세대 대학원 강순옥 성립건축, 진건축 이건설·강철순 연세대 대학원 가 윤대한·곽영구 연세대 대학원 가 이상화·손병규 영낙대 대학원 가 이상화·손병규 영낙대 대학원 가 위기정 (주)·종합건축시시무소 하나 가	상가주기 복합시설		약의현·최문규	연세대 대학원	
·현상일·현진호 연세대 대학원 -강순숙 성립건축, 신건축 - 이건선·강천순 연세대 대학원 - 가급·윤대한·곽영구 연세대 대학원 - 가	소아재확원		이영신·고유영·이병환	우원건축,테크사드,교우건축	- 1
·강순속 성립건축, 신건축 이건선·강철순 연세대 대학원 강력 ·윤대한·곽영구 연세대 대학원 가 ·이상화·손병규 영남대 대학원 강성 ·유기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 가 원건축사사무소	BARRIER FREE COMPLEX		이공렬·현상일·현진호	연세대 대학원	
이건설·장철순 연세대 대학원 3년 -용대한·곽역구 연세대 대학원 7 -이상화·손병규 영남대 대학원 8년 -유기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 7 -유기정 원건축사사무소 하나 7	LIBRARY		조외곤·강순옥	성림건축, 신건축	
-윤대한 곽영구 연세대 대학원 가 이상화·손병규 영남대 대학원 경병 -유기생 (주)종합건축사시무소 하나 가 원건축사시무소	장예차 복지시설		김형수-이건설·강천순	연세대 대하원	강력상
·이상화·손병규 영남대 대학원 경비 ·유기정 (주)·종합선축시시무소 하나 가 원건축시시무소	장애자 복지시설		이승용·윤대한·곽영구	연세대 대학원	
·유기정 (주)종합건축시사무소 하나 가 원건축시시무소	지계부지유야 유치원	:	장훈의·이상화·손병규	영남대 대학원	상태상
	격리와 융합		김상수·유기정	(주)종합선축사사무소 하나	- 1
	사랑 그리고 재활의 터		김종식	원건축사사무소	

●학생부문	- 출품자명단			<u> </u>
작품번호	사 품 명	출품자명	∢ Γ	덮
_	KINDERGARTEN FOR 100 CHILDREN	유순선	인하대학교 4 년	
2	THE ACADEMY OF FINE ARTS	박규환·안정현·오세옥	부산대학교 4 년	!
8	도심의 쉼터 (URBAN POCKET PARK)	러상대·김정영	울산대	상려상
4	일 - 공간	존해 응	총의대학교 3 년	
. Lo	PAINT TOWN	김관수·검선미	농의대학교 4 년	상려상
9	YELLOW SUBMARINE	안춘석	고려대학교 4 년	_
2	THE PARTY OF THE P	박징근·박원경·황우상	건국대학교	!
∞	人名尼斯坦印	치동학·곽정섭·서명화	총의공업전문대학	_
6	대학가 임대 기숙시	윤태석·현연증	성균관대학교	
2	우리의 공간, 그리고 만난 - 서대문 구민용 외한 지역 문화시설 -	김희교・이승화・이동열	한양대학교	
=	A& CONCENT HALL ECHO 9	성과권·박해라·김지영	홍익 : 경희 : 성균관대	
12	A ATRIUM BUILDING	상력찬	연세대학교	
82	SPACE FOR ARCHITECTURE	유효종·감동수·윤헌진	동의대학교	
14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신용철·원동현·이영재	서울시험대학교	
15	거주공간과 아니지	남종배·심재위·박경만	경상대학교	
16	만남·희망·창조	김도경·이종훈·민 선	고려대학교	가 작
17	COMPOSITION HOUSE	이용선 감동완 홍현기	인천대학	상 당 상 당 상
82	HOUSE FOR SALE	윤준호	성관관대	

米田田谷	印印	10.00	선	더
년 건 건 건				
<u>5</u>	부식소선이 있다 수에대구스권을 NOW INCOSE DESIGN WITH PUBLIC OPEN SPACE	박장우·최윤성·규관회	내유공전	
2	이의도 과시곡・(시청사 복합시설)	임용민·김범규·박정확	총역대학교	상력상
3 2	11 m 1	+	부산대학교	
13	다. 기술	+	2. 子口的证	
77	数非兰爱 1.5.4	아이를 받아서 보다는	10명 20 정보기	
ß	한마음 도서관	에인오 '이십보-파이구	470 Hitti	4
24		왕의다. 다하적 - 김씨인		
52	마음공간의 제구성	시규현·홍훈표·정선화	건국대학교	
83	아마라삼스	천선종·김우종	단국대학교	
22	아동전시관	박해선·정기범·문석곤	대림공업전문대	
88	장애가 교육시설	- কুজ প্ৰ	대림공업전문대	
62	W 7	김기용·경태석·신종수	경기대학교	72.1
8	ত্ত্ব ভিন্ত ভিন্ত	정앙승·유진덕·유태원	से%पो क्षे <i>च</i>	가작
31	SPACE4	김준호-인병철	경기대학교	
33	C. G CENTER	위성로	동국대학교	
83	단독주택	- १९३	안양광전	
ਲੱ	공대 증축계획인	최원령-정우정·오세왕	연세대학교	- 1
35	커뮤니케이션	오세왕·정우경	인세대학교	
36	창작공간	윤계선·성우철·안성진	연세대학교	十一年
37	상업 · 문화 휴식공간	김석범·시준역	성관관대+현세대	장려상
89	화목공간의 한 모통이	최원규·경태우·박경만	경상대학교	
eg eg	개인 정원이 있는 도시연립주거 제확안	김우영·왕봉식·이성형	대유공전	가작
40	মূল্দুর কু মূল্দুর কু	김승욱 류의전 박민정	인하대학교	-
41	민주실천의 장	박영훈·어지선	단국대학교	-
42	성남 종학문화예술센터	남상길·이품수·김영표	대유공전	
43	TOO YOUNG	유상현·유성순·정두영	건국대학교	
44	COMPLEX BUILDING	배완덕·김찬주	연세대하고	
45	안산 문화광장	금병섭·안호성	인덕전문대	_
46	도시형 저용 고밀주거	서동기	고려대학교	
47	COMMUNITY CENTRE	박성진	연세대학교	
84	即够열夺眼	김경소	응남대 3 년	
49	숨쉬는 도심광산	강상철	부산기방대학	
20	RP RP	이상일·긴윤섭	부산개방대학	六 公
51	도시의 맥	이상홍	무원대학	
52	한국근대건축의 기원을 찾아서	신정원·민질선·윤석원	무원대학	
53	소리없는 사람들 - 노인복기회관	권영배·정재현·송인기	목원대학 3	
22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계획안	박호질·라승대·초제남		상검상
55	지체부자유 한 시설	이상구·한경임	목원대학 4 년	
82	고통이에 -	김영금·오석택		rin
57	電	이동일・이종은・이원아	$\overline{}$	- 1
88	해에서 달까지	심우석·최동성·박일하	—	\$\psi_ \$\psi_
25	건축과환경	정대양•이성미·유송철	\neg	장면상
99	연내터 (국민학교 개최안)	김경희	충북대학교	
61	비터 이곳에	김태일 김정주	동아매 4년	!
62	광주직할시청사	정병호·정용식	전남대학교	
		시04시.기오시	行命官なで	ヤオ

新人部門

油

소아재활원

이영신(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고은영(테크사트) 이명환(교우건축)

설계의 기본방향

- 첫째, 비정상아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며 단지 휴수하홍을 일반회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 동류의식을 느끼게 하는 Enclosed Space를 좌절되고 자신을 상실하게 되는 아동들에게 가정에서의 고립감과 열등감으로 인해 四年

漫漫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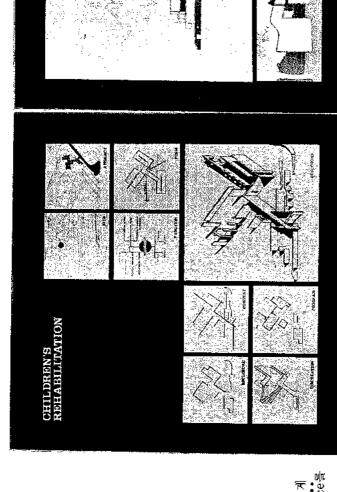
- 기르는 교육공간을 Open Space로 연결하여 패체공간내의 개방성을 추구한다. 신체적 잔촌 능력개발과 적용훈련을 위한 치료공긴과 사회성 · 협동심 · 자조심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꾀한다. <u>本</u>
 - 교통편의와 복합의료시설을 고려한 기존 적극활용요소: 서쪽의 공원부분 종합병원내에 대지를 잡아. 보존요소: 북쪽숲을 . 전

보완요소: 매지내 놀이공간을 공원과 연결하여 주변환경과의 휴기적 현결을

우리는 특수아의 특성을 위와같이 해석하여 그들이

사회에 적용하는 첫걸음이 되는 최선의 공간을

무성한 신록으로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커다란 가장 여리고 가장 힘겹게 피어나는 이들 새싹이 가슴 열어 뜨겁게 끌어안아야 하지 않을까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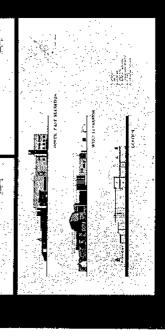














<u>으</u> 요

١(0 더

70

晋0 $\overline{\circ}$

HOME PLACE

종합건축사사무소) 중합건축사사무소) 김동주(선진엔지나어령 이태호(선진엔지니어링 김동춘(삼예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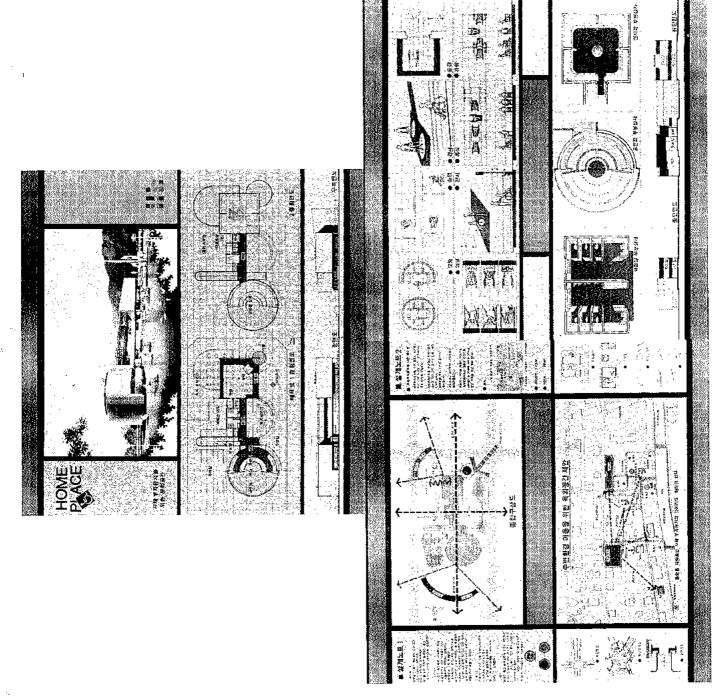
4세가트

동숭동 그곳, 문화공간으로서 풍요로위 시고 있는 도시속에서 대기를 향해 무한히 열려있는 공간 도심의 OPEN SPACE, 현대 도시민들은 그러나, 이 모든 공간에서, 사회에서 점점 - 도시의 OPEN SPACE를 열망하였다. 단절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 물리적인 강벽에서 신체상의 상벽때문에 크게
 - 사회적인 장벽으로서 장애자들을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회로부터의 소의 또는 무시는 결국 소수의 특정인으로 취급하여 사회에서 무사해버리는 일반적인 의식 제약한 11

생존권의 부정내지는 생존권의 박탈이라고 말할 수

여기 마음껏 울고 울리고웃고 웃기는 공연장과 다듬어진 솜씨를 보고 보여주는 전시장과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둔 지체부자유자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자그마한 문화농간을 마련해 본다. 있겠다.



新人部門

羅

우리동네 한가족

우리 동네

PLACE FOR THE DISAB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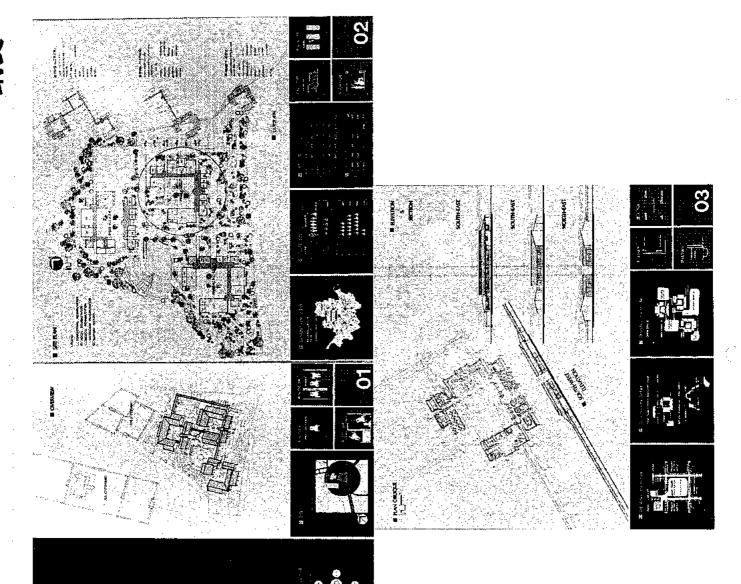
> **문창호(서울대 대학원) 이동수(서울대 대학원)** 우창윤(서울대 대학원)

■ 설계개요

강에자 복지시설의 중래 개념은 대규모, 집중화, 격리수용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점차 소규모, 분산화, 사회와의 통합으로 바뀌고 있다. 장에자 복지시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가정하고, 커뮤니티는 행정구역상 구 (區) 단위로 구분하여, 대상인원인 자립 가능한 지체부자유자수를 3.800명으로 추정, 소요면적을 산정하면 2,850㎡ 으로, 이용자 추정에 의거한 계획규모 (2,850㎡)는 공모된 규모(1,000㎡)를 훨씬 초과함으로, 기능이나 시설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기능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완성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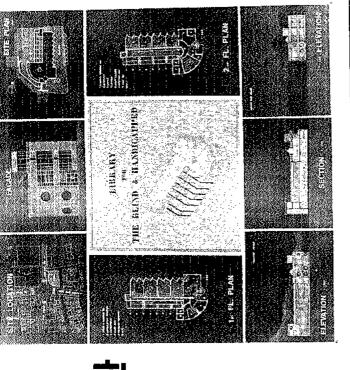
지나 있는 일 다시까지. 공모된 규모는 제일 시급한 시설인 교육·사회재활 시설에 일부의 의료재활 시설로 한정하였으며 (제 1단계), 정치로 본격적인 의료재활 시설 (제 2단계), 직업재활 시설(제 3단계)등을 중축해 나가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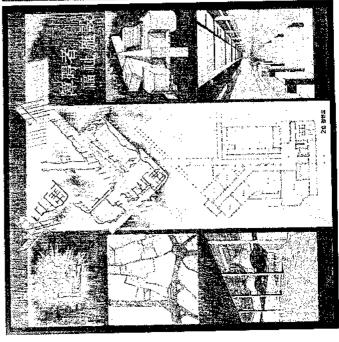
- * 제 1 단계: 995㎡ (광모 규모)
- 교육시설 (238㎡) — 사회시설 (86㎡)
- 의료시설 (235㎡)
- 관리 및 지원시설 (436㎡)
- *제 2 단계: 935㎡ (1 차 증축)
- 교육시설 (238㎡) – 의료시설 (597㎡)
- 의료시설 (597㎡) — 관리 및 지원시설 (100㎡)
- *제 3 단계: 920㎡ (2 차 증축)
 - 직업시설 (548㎡) – 관리 및 지원시설 (372㎡)



시각장애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서관

이선영 (주) 정렴건축





장애자 복지시설

김형수 (연세대대학원) 이건설 (연세대대학원) 장철순 (연세대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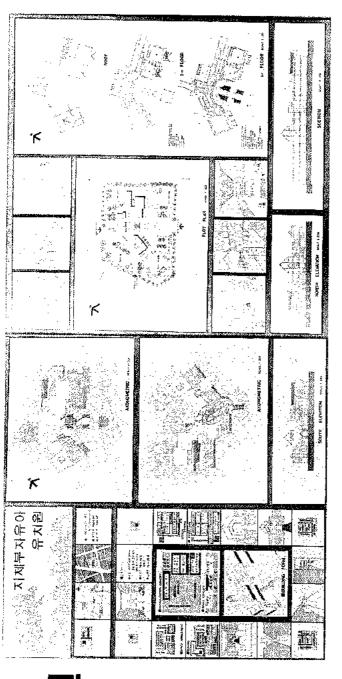
水 酒

新人部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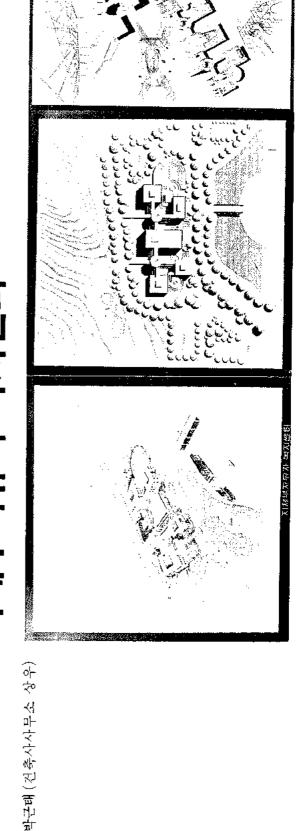
漿颥鵹

지체부자유아 유치원

장훈익(영남대 대학원) 이상화(영남대 대학원) 손병규(영남대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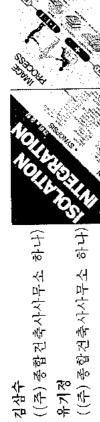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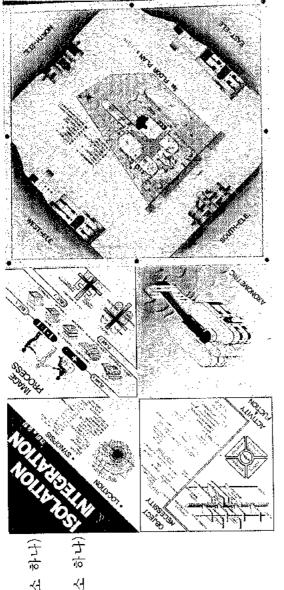
지체부자유자 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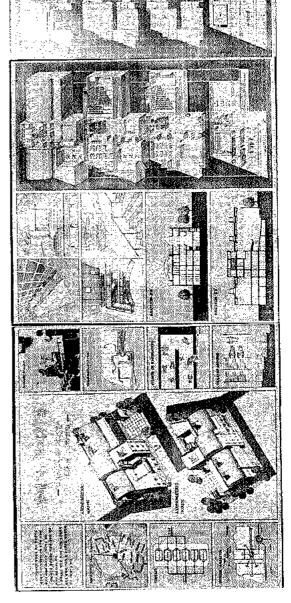
佳作

격리와 융합





장애자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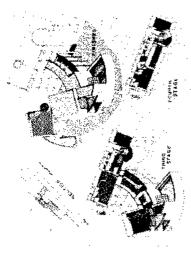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이승용(연세대 윤**대한**(연세대 곽**요**구(연세대

佳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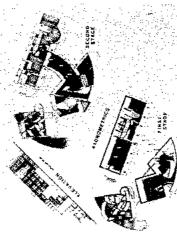
倕作

GALLERY OFFICE HOUSE

이건섭(연세대 대학원) 양재혁(연세대 대학원)









축하한다. 얘. 이제 달라지는 게 뭐니?" 달라지는 거?

건나의 축하 전화끝에 잠시 메담을 잃었다. '이력서에 한 줄 느는거지 뭐, " 그래, 맨 처음 셋이서 작당(?) 할 때 앞세운 소박하 소망이었다

한냥을 수십명에게 팔았었다. 어차피 줌 수 없으리라는 초안도 못잡고 절절 메면시도 금상은 우리 거라고 금

아이들이 이미 이력서 한 줄 메꾸어줄 대상은 아니었음에 모를 모습들을 하고 새까만 발바닥으로 다투기를 수십번. 작업실이라고 돼지 우리같은 데에서 여우인지 늑대인지 어느 날은 수다 보따리를 풀어놓느라 밤을 꼬박 세우고 햇빛 뜨겁던 날, 우리 눈 앞에 천진하던 연세재활원의 얼굴을 붉히며, 두려움이랄까, 사명감이랄까, 착잡한 것들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 잘 할 수 있을까? 하루에 얼굴 마주하는 시간이 고작 서너시간, 어척구니 없이 옷어버리기도.

사항인테) 마감 전 이들, 그리고 나서 탄생, 기다림, 10여일의 동거, 아픈 절로 할 수밖에 없었던(국비

하고, 오랜만에 훌쩍 떨어진 하늘을 바라보며, 그 푸르륵 ?) 상님, 두서없이 떠오르는 고마운 얼굴들, 우리들의 ARCHITECTURE, 본의아닌 소홀합을 눈감아 주신 "시집가기 쬐끔 힘들겠다". 하는 선배들의 말을 뒤로 하나님이랑 엄마 아빠,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온 그— 만남, 이팟던 기숨,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만큼이나 고맙고 감사함을 챙겨본다. 사람하는 우리 지체부자유 아동들에게.

고 은영삼

新人部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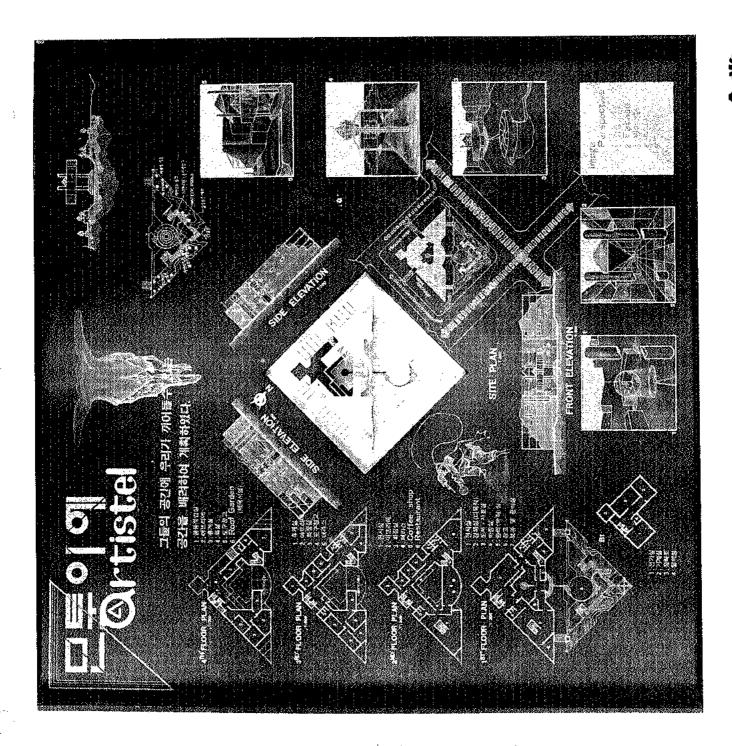
모퉁이에

건축학과 4년) 건축학과 4년) 김병금(목원대학 오석택(독원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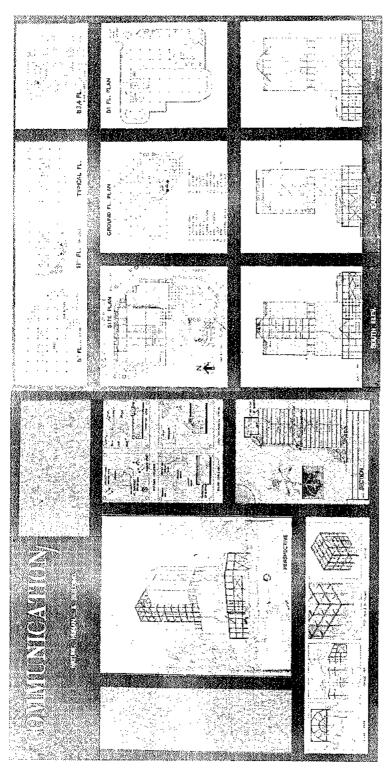
본 계획은 사거리에 의해 청성되는 모퉁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계획하였다. 스탠드는 자연식을 이용, 도심속의 자연광간 분위기 하였다. 입면처리에 있어서는 Sky-Line을 고려, 파괴, 부드러운선을 창출하려 하였다. 광장부분은 또한 내부 수직·수평 동선도 부드럽게 연결하려 더불어 삼각평면에서 발생되는 데드 스페이스를 부분부분에 가벽을 사용, 수직·수평의 획일선을 놀이마당을 둠으로서 누구나가 재미있고 즐거운 최소화시키며 공간을 최대활용하려 고심했다. 광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계단 및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요소요소 제미있는 평면은 삼각을 참나의 돌로 계획 보행자와 사용자의 동선관계에 많은 배려를 하였다. 공간으로 계획하려 하였다.



學生部門

거뮤니케이션

오세왕(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정우정(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건축공학과 4년)



1. 제확의 개요

■ 계획명칭:COMMUNICATION

Nature, Human & Building (사무소건축과 도심소공원)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의

41번지

■ 대지조건 : 상업지역

제1층 미관지구

방화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계획규모 : 층수 : 지하4층, 지상19층, 옥탑2층 연면적:72,240m² 대지규모: 6, 564. 7m²

용격을:697.2% 건폐율:38.5%

■ 기본모듈:3.0×3.0m

현재 우리의 도심지 건축현상은, 사무용 건축물에 계획하고, 또한 여기에서 한층 발전하여 Atrimu 있어서 그 건축의 빈번함과 Mass의 거대함에도 본 계획은 제목에서도 시사하는 바와같이, 가장 도입함으로써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파, 또는 휴게, 전시공간 확보와 채광문제, 겨울철 불구하고 형태, 기능, 도시 환경과의 조화라는 면에서 질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이다. 아라는 요소를 건물에 도입하여 건물내의 공원 흔히 건축되고 있는 사무용건물을 소재로 해서 이에 본 계획에서는 사무용 건축물에 자연을 시민들의 휴게, 문화공간을 창출하도록 하여 소공원과 아외극장과 같은 시민 휴게시설을 보조난방의 문제를 계획하였다. 2. 계획의 목적

[업의 사회에의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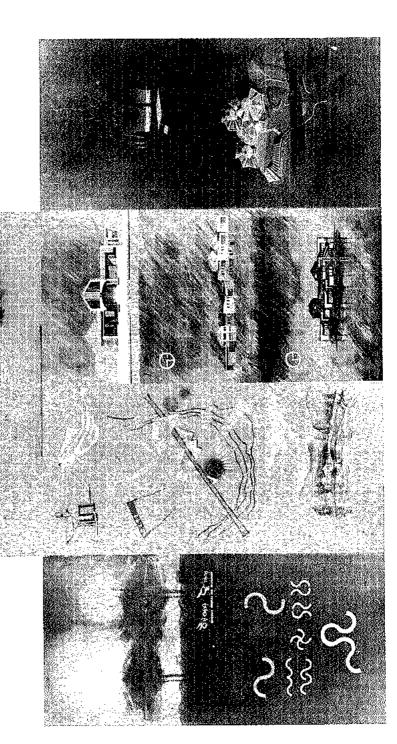
해에서 달까지

심우석(고려대학교 건축학과 4년) 최동성(영남대학교 건축학과 4년) 박일하(영남대학교 건축학과 4년)

해가 뜨면 뚜꺼비를 부르며 모래발에 손을 넣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할머니의 쉰 사랑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 선녀가 힘차게 다졌고, 달이 뜨면 너무나 깊은 목소리를 들었다.

삶이 시작되면서 모두로부터 믿음과 희망으로써 노와 애를 바탕으로 더욱 밝은 회와 락은 삶의 축이 되었던 해와 달, 자랑도 교만도 없이 늘 우직스럽게 그자리에 있기만 한다.

나타나기에 해와 달을 조청에 담구어 시간과 해와 달이 주는 조형적 형태가 해와 달로서 광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자. 단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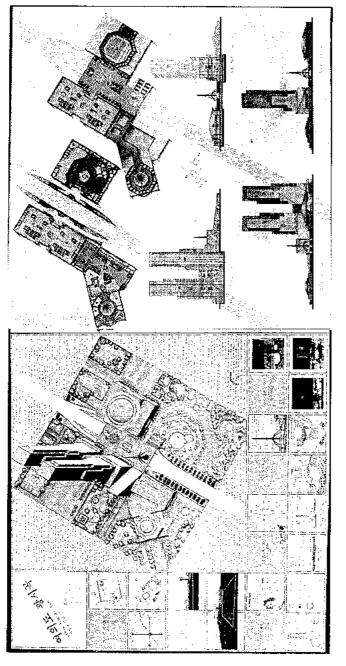
평면이며 삶이 가지는 시간의 전부인 해와 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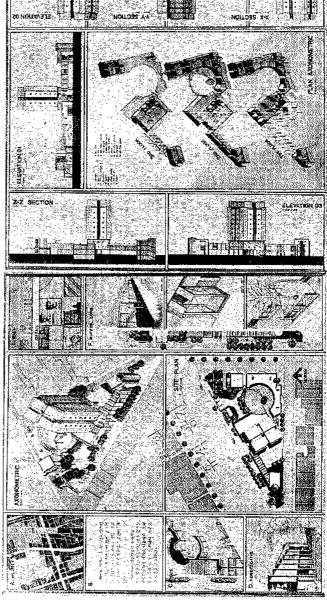
獎勵賞(서울지부장성)

여의도광시곡

(시청사복합시설)

임용민(홍익대학교 건축학과 4년) 김범규(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년) 박정환(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년)





獎勵賞 (서울지부장상)

상업, 문화 휴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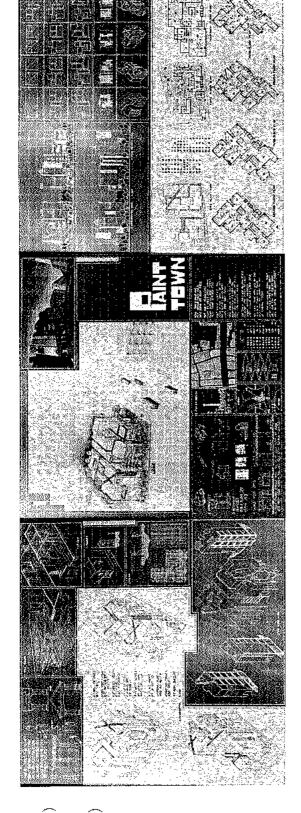
김석범(성군관대학교 건축공학과 3년) 서준혁(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PAINT TOWN

樂勵賞(부산지부정상)

김관수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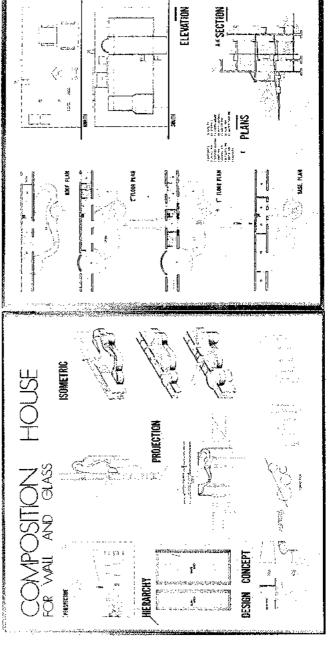
(중의내약과 신축약과 4번) 김선미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4천)



獎勵賞(인천지부장상)

COMPOSITION

이용선(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 2년) 김동완(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 2년) 홍현기(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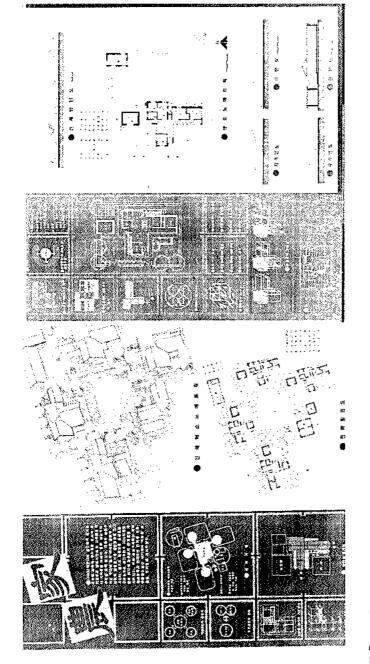


學生部門

獎勵賞(경기지부장상)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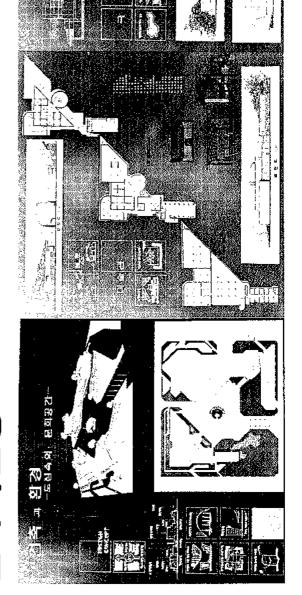
김기홍(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정태석(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3년) 신종수(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3년)



機関(含サッキッか) 乙キュウン

정대**양**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4년) 이정미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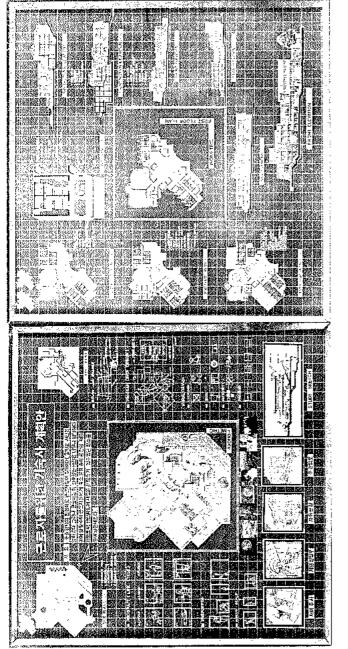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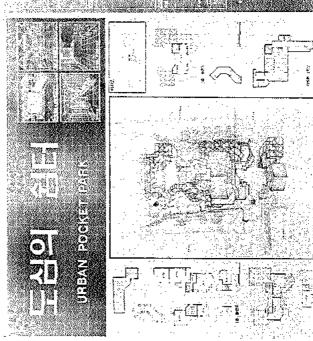


등 근로자를 위헌 기숙사계획안

獎勵賞(충남지부장상)

바호길(목원대학 건축학과 4년) 라승대(목원대학 건축학과 4년) 조제남(목원대학 건축학과 4년)





樊勵賞(경남지부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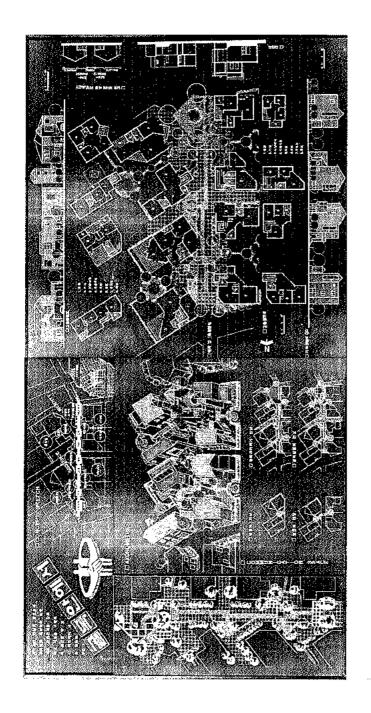
도심의 쉼터

러성대(울산대학교 건축학과 4년) 김청영(울산대학교 건축학과 4년)

學生部門

골목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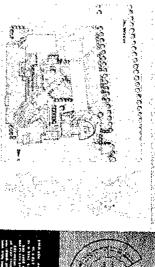
황희라(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박광재(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김동한(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2년)



·[C]

水0 KY

김도경(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3년) 이종훈(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3년) 민 선(숙대산업대 대학원 5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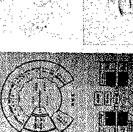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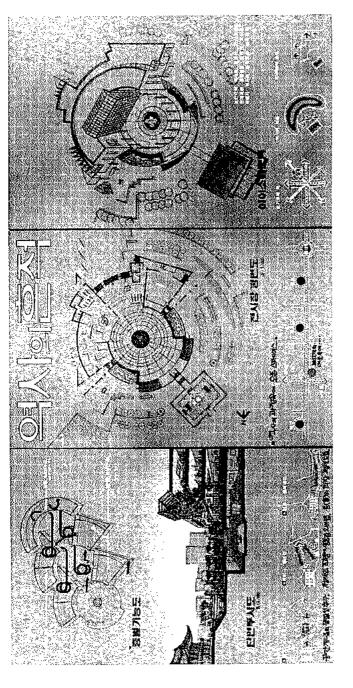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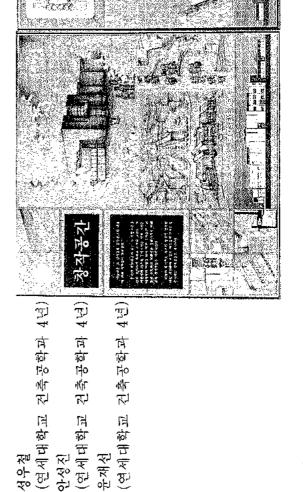


역사의 혼적

건축공학과 4년) · 건축공학과 4년) · 건축공학과 4년) 정양승(한양대학교 2 유진덕(한양대학교 3 유태원(한양대학교 3



창작공간



學生部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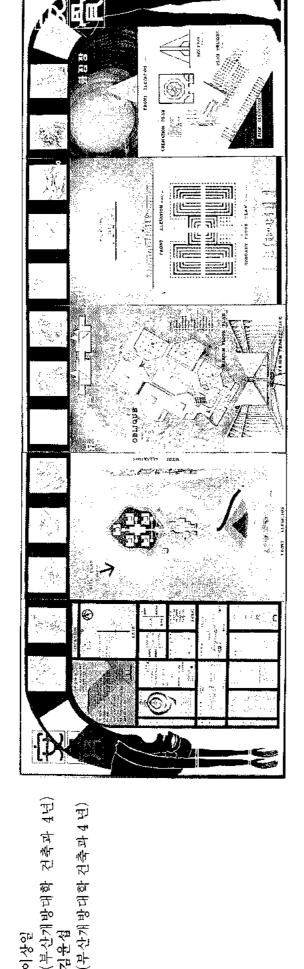
안성진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윤재선

김윤섭

미



개인정원이 있는 도시연립주거계획안 개인정원이 있는도 시연립주거계획인 ROW HOUSE DESIGN WITH PRIVATE OPEN SPACE IN URBAN RESIDENTIAL AREA

건축공학과 2년). (대유공업전문대학

(대유공업전문대학

감아

佳作

건축공학과 2년)

(대유공업전문대학

건축공학과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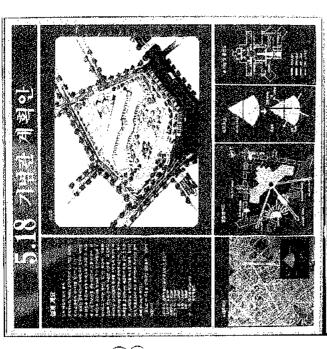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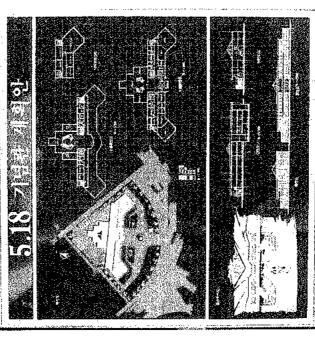


佳作

5.18 기념관

신영석 (전남대학교건축학과3년) 김유성 (전남대학교건축학과3년)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래도 선배들과 같이 보낸 시간 둘씩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데로 힘을 추숫돌 위에 부심한 기동을 세우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계획분야를 포기한 듯한 동료후배들의 실시등으로 갈등을 역사속에서도 지방 공모전은 물론 전국 공모전에서 하나 이번 공모전에 출품하면서도 선배님이 그동안 쌓아놓은 지방대학이라는 핸디캠과 선배부재리는 불리한 여건. 확면이 높아감에 진축에 재미를 느끼고 하고자하는 열의는 강해지는 반면 쓸데없이 주위에서 둘러오는 느끼고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짧은 격분인지 그런대로 작품이라고 해낼 수 있었다.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기대감도 커져만 갔다.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접하는 종교작품 (2학년) 에서

고교시절 방황하였던 공부때문에 건축인이 되고자 했던

목원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했다. 출발점에서는 선배들의

희망을 포기해야 될 위기를 맞았으나 행운이 있어

작업실을 둘락거리면서 히드렛 일을 도와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던 그런

마흡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심사위원님들께서 큰마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누구나가 제미있고 형소 지나치며 느낀 공간에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공간을 동료・후배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든다. 그동안 그들과도 계획하고자 시작하였던 것이 이런 좋은 절피를 얻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려 했지만 봐 주신짓 같다. 같이 공모전에 출품하였던 많은 것을 나눴는데 말이다.

저희 목원대학 건축학과가 발전하리라 믿고, 또한 그렇게 은근과 끈기이다"라는 지도 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최후의 승리는 출발점의 비약이 아니라 결승점까지의 되리라 확신한다.

심사유원,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이 끝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한건축사협화 회장 기회를 통해 더욱 기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진하여 훌륭한 건축인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第11回 理事會 開催



安箕泰 본협의 회장은 11월12일 무희장, 이사, 감사,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 제11회 理事會를 主宰하고 1987年度 제22회 定期總會에 대비한 主要案件들을 協議하였다.

主要案件별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主要業務報告

支部總會 보고중 제주도지부가 定款〈제39조 ③定期總會는 매년 10월중에 소집하고…〉의 規定事項을 위반하고 11월5일에 개최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경위서를 제출보록 하였으며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경고〉또는〈주의〉를 내리기로 합의.

附議事項

- 1. 제22회 定期總會 議題를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의.
- •제 1 호의안 : '87 제 1 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지예산 (안) 중인의 건
- 제 2 호의안 : '88사업계획 및 일반회계수지예산 (안) 중인의 건
- 제 3 호의안: '88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중인의 건
- 제 4 호의안: '88건축사연급 수지예산(안) 중인 의건
- 제 5.호의안 : 임원개선
- 2. 정기총회에 附議 案件으로 제출된 '87 제 1 차 일반회계

추가경청 수지예산(안),
'88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88특별회계
수지예산(안), '88건축사연금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중인.
3. 본첩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으로서 정회원자격을 15년이상 보유한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을 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推戴會員으로 추대토목 定款
제 7 조②의 1에 규정된 바에 따라 20명의 원로회원을 추천토록

4.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관계 인사에게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본협회 모범직원을 표창코자 부 명단을 건설부 관계 공무원 2인을 추가키로 하고 원안대로 합의,

본이사회에 附議한 바 원안대로

• 공로패

중이.

李隆世 / 건설부건축과 · 사무관 李在玉 / 건설부기술지도과 · 사무관 金昌瑞 / 중합건축사사무소 협화건축 李建鶴 / 이건학건축사사무소

• 감사패

趙聖烈 / (주) 큐빅디자인연구소

• 표창패

尹榮才 / 건축시사무소 유신건축 · 경기도지부 감사

朴 世振 / 박세진건축사사무소・ 강원도지부감사

權五成 / 본부총무과장 郭哲圭 / 서울지부 총무부 權重浩 / 경기도지부 총무과장

5. 경기도 지부 直轄分所

設置의 件은 타지부와의 衡平原則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 연구하여 재론키로 하고 일단 보류키로 함의.

- 6. 定款改正(附則)의 作에 대해서는 개정사유가 있는 모든 조항을 검토하여 3월臨時總會時 개정키로 합의.
- 7. 獨立豫算制가 신년도부터 출범하게 됨에따라 곧 있을 聯合會制度의 실시에 대비한 협회자산 精算委員會 구성은 회장단에 위임하고 精算業務를 추진키로 합의,

8. 그의 혐의사항으로 상정된 해 文部長의 業務限界는 定款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로, 건축사연금규정 개정건의 (안) 에 대해서는 '90년 복지연금 시급시점까지 의견을 취합 단일화하여 포괄적으로 검토, 건축사 연금관리 소위원회의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금번 총회에 그간의 경위를 보고, 지부신임 입원에 대한 임기는 현행대로 총회의사에 따라 처리토록 각각 합의하였다.

●추대회원 명단

소속	성 명	생년월일	입회년월일	사무소명	
서울	金源安	22. 5. 8	65. 7. 7	동납건축사사무소	
"	安仁模	22. 6. 1	66. 2.28	한가람건축사사무소	
"	韓景純	22, 9, 6	66. 3. 23	부성건축사사무소	
	李圭宰	22. 3. 3	66. 4. 8	(주)동익종합건축사사무소	
""	朴亨三	22. 5. 10	68. 2. 13	삼미건축사사무소	
"	方孝屹	22. 4 . 28	70. 6. 29	방효홀건축사사무소	
부산	許善行	22. 5. 29	65. 6. 25	부산종합건축사사무소	
"	尹謹鬻	22. 8. 6	65, 7, 30	중부종합건축사사무소	
"	韓應淑	22. 11. 17	65. 6. 25	건창건축사사무소	
"	黄在涛	22. 11. 21	68. 3. 11	오주일민건축사사무소	
대구	金峻弼	22, 7, 29	69. 10, 1	청우건축사사무소	
"	李錫九	22. 6. 1	65, 7, 1	인천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朴永東	22. 6. 12	68. 12. 31	대한건축사사무소	
경기	朴壽完	22. 6. 16	65. 9, 25	박수완건축사사무소	
"	李秉一	22 . 4 . 1 2	65. 9. 25	(주) 진화건축시시무소	
전북	康景植	22. 4. 17	65. 7, 10	동아건축사사무소	
전남	崔相彩	22. 10. 28	65. 8. 16	최상채건축사사무소	
경북	權寧久	22. 8. 13	65. 10. 11	제일건축사무소	
#	金龍成	22, 9, 15	72. 10. 15	금성건축시사무소	
경남	李起阜	22. 1. 5	65. 8. 6	진주이기부건축사시무소	

제6회 支部長會議 개최

제 6 회 女部長會議가 11월12일 安箕泰회장 주재로 본협회 부회장과 이사·감사 연석하에 서울특별시 지부장을 비롯한 13개시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회의서 협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87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88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88특별회계 수지예산(안)은 이의없이 원안대로 협의.
- 2. '88연금관리 수지예산 (안) 에 대해서는 감리·감정희비에 명시된 %수치의 산출근거를 알기쉽게



설명이 되도록 정리키로 하고 원안대로 협의.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간의
 (안)과 건축사 연금관리 소위원회

연구내용에 관해서는 혐의사항으로 취급하지 말고 의견교환만을 하는 것으로 혐의.

作品展示會 到막

10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22일간 서울지하철 경복궁역 상설전시장에서 개최하였던 제13회 建築士設計作品巡廻展 吳 제2회 新人・學生設計公募展 서울지역 전시회는 그간의 전시장 근무일자의 기록에 따라 연인원 1만 1천 1백77명이 관람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서울지역 전시회는, 가. 서울지하철경복궁역 상설전시장은 지하철을 이용,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건축계연사와 신인 •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음으로써 견학・ 비교를 통해 창작의욕 고취에 다대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나, 본 경복궁역에는 지하철 이용 승객이 I일 평균 5만여명이 통과하는 것으로 자하철공사측에서 집계하고 있는 바 이들여 정복궁익을 이용코자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작품과 만날 수 있어 많은 일반사면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에도 은열중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 본전시회를 통하여 대한건축사협회와 그 회원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자연스럽게 시민들 의식속에 스며들어 이해의 깊이를 이름으로써 홍보효과를 크게 거두었고 전시회 소식을 전하는 가종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 한층 홍보성과를 높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自體監査실시

본협회는 11월2일 ~7일까지 6일간 제22회 定期總會에 대비, 입무 전반에 대한 監査를 受監하였다.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柳根洌

감사가, 회계업무에 대하여는 鄒孝族 감사가 각각 監査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定期總會에 보고될 예정이다.

「日建士聯」 會長團 招請

본협회는 11월27일 개최되는 제22회 定期總會에 日本建築士會聯合會 太田和크

日本建築土會聯合會 太田和夫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 3인을 초청하였다.

본협회와 日本建築士會聯合會가 1985년 3월 30일 세결한 韓日建築士 交流促進에 관한 髮醬에 외거 兩會는 매년 總會時 화장단 일행을 초청 참관토록 함으로써 理解를 높이고 友誼를 다시고 있으며 지난 10월1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는 日本建築士會聯合會 제30회 全國大會에 安箕泰 회장을 비롯한 일행 5명이 조청을 받고 참관한 바 있다.

이번 초청을 받은 太田和夫 회장 일행은 경비 일체를 자기부담으로 11월26일~28일까지 2박3일간 체류하며 본협회 임원진을 비롯 회원들과 만나면서 交歡할 예정이다.

日本建築士 일행 내방

본협회 충청남도지부와 걸연한 일본 하마마츠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일행 8명이 康祐頓지부장 안내로 11월2일 본협회로 安箕泰 회장을 礼訪하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간담을 하였다.

本協會 イ 建説部主管 懇談會



建設部는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본협회 4층 중회의실에서 2級建築士特別銓衡試驗制度의 개선을 위한 懇談會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에서 1전8백4명의 본협회 회원이 2級建築士特別銓衡試驗制度 개선을 위한 建議書에 서명 날인하여 建設部에 접수시킴으로써 建設部가 多数의 의견청취를 위해 개최된 것이며 이날 간담회는 본협회 任仁爀 사무처장의 建議文에 대한 취지설명과 건설부건축과 李隆世사무관의 사회, 襲宗明 과장의 진행에 외해 건축계 원로교수, 관계 공무원, 건축계 실무자, 본협회 회장단, 임원진, 본협회 14개 시도지부장 및 일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 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교수 이광로 (서울대), 신현식 (중앙대), 박윤성 (고려대), 유회준 (한양대), 김형길 (서울대), 정재철 (국민대), 윤도근 (홍익대)
- 관계기관 한규봉 (주택공사 이사)
- 관계공무원 배종명 (건설부 건축과장) 변영진 (서울시 건축지도과장)
- 본협회 임원진

회장 : 안기태, 부회장 : 김기수 이사 : 안장원, 이문우, 강기세, 조춘원, 박영익,

▪ 지부장

유경철 (서울) 정환호 (부산)

황용주 (대구) 고창양 (인천)

박영희 (광주) 조상호(경기)

조정호 (강원) 연관흠 (충북)

강우식 (충남) 업주호 (전북)

김인모 (전남) 김영길 (정북) 김정수 (정남) 백경철 (제주)

• 2 晋明镇:

서울: 김형배, 김기완, 김정기, 심기섭, 최상혁, 오기수

부산 : 조성래

경기 : 배종순, 안영준

• 일반회원

신길웅, 김영수, 양원영, 김거두

• 공청인 : 10명

忠清南道支部

지부상 康祐植

日本建築士일행 내방

本支部와 結緣 관계에 있는 일본 시즈오카県建築士會의 하마마스 支部가네코 게이자 支部長과 7인의 회원이 10월31일 대한, 大田시내에 있는 삼부 프라자의 연회장에서 충남지부의 전임 지부장,

현지부임원, 회원 등 42명과 연석한 가운데 지부업무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간담을 하였는데 양지부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추후 서신으로 더욱 상세하게 혐의키로 하였으다.

全羅南道支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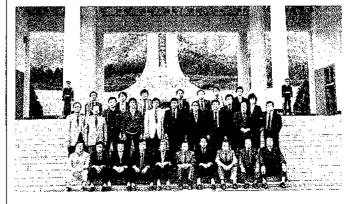
지부장 金仁模

祖國巡礼行事

10월16일~17일의 2일간 회원천목을 겸한 祖國巡礼行事를 실시하였다.

일정 가운데에는 판문점 시찰,

독립기념관 관람, 제 2 국립묘지 (대전) 참배의 순서가 포함되었으며 회원 31명 사무직원 5 명등 36명이 참가하였다.



慶尚北道支部

지부장 金永吉

계명대생에게 장학금전달 10월29일, 제22회 定期總會 석상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제명대학교 건축공학과 황정배, 강병록, 김용술, 이병욱, 이인회 등 5명에게 20만원씩의 장학급을 지급하는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또한 계명대학교 총장은 동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작품으로 구성된 「비사 건축전 순회전시」(포항, 구미, 영주) 시 베품어준 협조를 감사하는 뜻의 감사패를 지부장과 포항분소장, 구미분소장, 영주분소장에게 수여하였다.

懇談會 개최

제 22회 定期總會가 열렸던 경산군 남산면 상대동 상대온천 회의실에서 총회 지후 긴가현 경상북도지사를 비롯, 배성렬 도주택과장, 이정동 경산군수, 김재우 경산군 도시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무회원 62명이 연석한 가운데 주택행정에 관한 간담을 하였다.

支部消息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懇談會개최

10월23일 본협회 1층 사무실에서 지부임원, 대의원, 분소장, 연락소장, 감리반장, 협의회장, 기타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建設技術管理法 制定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建設技術管理法 제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할 수 있도록 10월28일 개최되는 支部總會에서 대처방안을 제시, 실력행사로 들어가기로 혐의가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建設技術管理法制定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자.
- 1. 관리법안 즉각 철회요구
- 건축의 절을 높이기 위해 폐쇄적 건설업법 개방요구
- 건축사법 개정요구(단독,
 종합 등 제한요소 폐지 요구)



(경북지부)

濟州道支部

지부장 白享哲

추석절 위문행사

10월5일 추석절을 앞두고 본지부를 비롯한 수협중앙회 제주도지부, 제주도 치과의사회, 그랜드호텔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과일 등 6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구입, 해양경찰대를 찾아 노고를 위로하였다.

부부동반 친목행사 10월10일~13일의 3박4일 일정으로 회원부부 동반으로 독립기념관을 비롯 제 3 땅굴을 현장 건혁하고 충주호 등 명승지를 관광하며 친목을 다졌다.

본지부 단체표창 수상 10월 19일 제주시 소재 파라다이스 희관에서 개최된 직장 새미울운동 관계관회의석상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시 작장 새마을운동 혐의회의장으로부터 지부단위 표창 정 및 상급 10만원을 받았다.

본지부는 제주도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범적인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지부)

- 정림건축 20주년 기념행사-

(주) 정립건축은 창립20주년율 맞이하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1월20일 ~26일까지 7일간 서울 안국동소계 白象紀念納에서 - 발행할 예정도 더불어 기획하고 전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1967년 개설한 정립건축은 그간 건축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해 - 계획한 작품들을 총망라 냈으며 大小 각종 건축물의 설계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 왔다.

(再定立의 정립)이라는 목표아래 약47개 작품을 수록한 작품집과 그간 축적된 자료로 Detail 樂을 있는 〈정립〉은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20년간 정량에서 충품하였으며 그 중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최근의 작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公告

건물에너지절약 이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에너지절약시책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 독려하고, 동시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시행한 바 있는 합동점검결과, 아직도 도표와 같은 개선점이 잔존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원여러분은 이를 철저히 숙지하여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건물에너지절약 시책이 차질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부 -

구 분	개 선 사 항	비 고 _
1. 단열시공 상태	내·외벽중 하나를 미리 쌓고	공사감리강화 및
-짜투리단열재의 끼워	단열재를 밀착하고 고정시킨 후	중간검사시
넣기식 시공	나머지 벽을 쌓을 것.	확인요
- 가시부위만 단열시공		
2. 절약계획서의 심사	내용의 실질심사 강화	
- 요식적인 첨 부서류로	*심사전문가의 확보가 곤란한	
간주하는 경향 잔존	지역(군단위)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 해당군단위지부의	
	전문가 활용방안 강구	
3. 중간검사	단열시공에 대한 중간검사 업무	시정조치는
- 적부판정을 위한 검사	처리지침 (' 87. 10) 의 건축물	현지에서 확인할
조서도 없이 육안검사	중간검사표에 의해 검사하여	것.
검사 시행중	적부판정 및 시정조치요	

본형회 全国14市道支部의 제22회 定期総会가 10월22일 江原道支部와 慶尚北道支部의 개최를 시작으로 일제히 막을 올렸다. 이번 定期総会는 88년도부터 시작되는 支部独立予算制를 목전에 두고 열리는 뜻깊은 総会로서 특히 멀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때 금 会制度에 対備한 支部組織의 強化를 위한 조치로서 副支部長의 選出도 실시되었다. 각 시도별 定期総会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 支部

일시 : '87, 10 28. 13 : 00~ 장소 : 본협회 강당

6백65명의 회원이 참석한 기운데 俞景哲 지부장의 개최선언으로



▲ 서울특별시지부총회

막이 올랐다. 식순에 따라 축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가 있었고 제 21회 회의록 승인, 87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88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승인, 임원선출 및 개선, 대화원선출, 建設技術管理法에 대한 論議

동의 순서가 진행 되었다.
'88사업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일부 사업을 추가하여 승인, 통과되었으며, 임원선춤에 있어서는 副支部長 선출에 4명의 후보가 나왔으나 무기명 비밀 투표로 2차의 투표를 거친결과 재석회원 5백11명중 2백57표의 지지를 획득한 李永熙 회원이 副支部長으로 선물 되었다. 幹事 선출과 개선은 지부장과 새로 선출된 부지부장에게 위임 선출토록 하였고 監事 선출은 작전 支部長인 李春相 회원이 선출권을 위임받아 선출하였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李永熙 幹 事/權泰政 金武彦 金永奭 閔庚辰 朴吉男 朴昌浩 成道永 俞容潔 李正載 鄭正治 監 事/姜泰錫

釜山直轄市支部

일시: 1987. 10. 30. 10: 00~ 장소: 부산해운데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제 22 회 全国 市道支部 定期總會

激勵辞

존경하는 支部長,任員 및 會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총회를 빛내주시는 내빈 여러분. 오늘 大韓建築士協會支部 '87년도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본인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協會는 10월23일 창립 제22주년을 기념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성년협회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내외에 자랑스럽게 내보이게 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量的인 면에서는 14개시 : 도 지부에 2천7백여 회원이라는 대협회로 성장하였는가 하면 협회체제와 조직의 발전은 물론 회원의 권익도 크게 확대 · 신장되고 건축분야를 통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여도도 또한 해를 거듭하여 높여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지부의 모든 회원이 자리를 같이한 이 총회는 민주화 바람이 힘차게 불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지방 자치제실시의 막을 올리려고 하는 때에 한발 앞서 연합회제도로 전환을 전제로 하는 독립예산체제 실현의 첫발을 내딛는 총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총회를 기점으로 이제부터 회원여러분이 직접 소속지부의 진로를 설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며 사업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지난 몇년간 꾸준히 준비해 오던 대망의 지부독립예산제물 출범사키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자축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늘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몇가지 협회 운영상의 문제를 숙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진지한 제의를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본인은 행정부나 입법부를 비롯한 여러 공공단체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본협회 발전상에 대하여 찬사와 격려의 말을 자주 들어오고 있옵니다만 우리 회원 개개인의 실제 활동면을 성찰해 볼 때 일부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바르게 사무소 운영을 하지 않는 회원이나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회원이 건축사계 저변에 잔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이로 인하여 입는 피해는 개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건축사계로 확대되어 불신과 지단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일반사회계층으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건축사로서의 사회적지위와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는 건축사헌장에 밝혀진 바와 같이 건축사의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조형예술 창조활동의 주체로서 받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에산체제에 이어 불원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회제도 또한 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즉 연합회제도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부여되는 권한은 마땅히 책임과 의무위에서 생성되는 것이어야 하고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과 의무도 이에 비례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평소 본인의 소신인 것입니다.



재적회원 3백39명중 2백16명이 참석,成員된 기운데 총회의 식순에 따라 지부장의 開会辞와 姜泰祗 부산사장의 즉사(金英煥 부시장 대독),安箕泰 회장의 波勵辞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부산시 金性 ·· 건축과장, 金大權 동대구 건축과장, 沈大燮 부산지부총회 **▲**

영도구건축과장에 대한 감사폐 수여의 순서가 있었다. 신입회원의 소개와 인사가 있은 나음 8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중인,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심의로 이어졌는데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은 원안대로 중인, 통과 되었으며 이어서 副 支部長의 선출과 임기만료 幹事와 監事의 개선이 있었다.

임원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金仲宰 幹 事/金鎮哲 呉千福 尹壽根

事/金憲泰

大邱直轄市支部

일시:1987.10.30. 10:00~ 장소:대구건축사회관 5층회의실

재적회원 2백명중 1백86명의 회원과 대구시 김수호 건설국장, 김영창 건축과상, 이준호 행정계장, 전주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지부장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수호 건설국장은 박배근 시장의 축사를 대독한 후 大邱 도시를 가꾸는데 노고를 이까지 않는 건축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市長이 보낸 고급우산 2백개를 黃 緋周 지부장에게 전달 하였으며 이어서 대구직할시 직원 3명에게 감사패를, 회원 2명에게 공로패를, 직원 1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제 1회 대구건축작품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특히 이날 임원개선의 순서에서는 일기 만료된 지부상을 비롯 부지부장, 간사, 감사 등의 선출이 있었는데 임원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支 部 長/張基維 副支部長/林斗炫 幹 事/石府吉 秋慶鎬 李載睦 監 事/李洛晶(留)

근래 본협회의 중요문제로 대두된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제정 주요이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중 건축물의 공사간리업무에 관하여 현행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관련조항과 부분적으로 상반되거나 그 입법취지와 상이함으로써 법률상호간의 작용 및 그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협회는 그동안 관계기관에 건의서 제출은 물론 혐의와 논의를 통하여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입법취지에 배타되지 않는 법제정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주장하여 온바 있으며 지난 9월28일 국회건설위원회에서의 이 법안 심의통과 과장에서 우리의 가장커다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건축의 감리부분에 대하여 건축법과 건축사법 이 두 법에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입법취지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정시 충분히 반영도록 하겠다는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냄으로써 우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중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만 일부회원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전면거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 법안의 업법취자나 적용대상이 건설공사나 건축사업무예반 한정된 것이 아닌 전문야의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법이기 때문에 전법안의 최회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명 제정과정에서 현행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의 입법취지가 정부의 약속대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본인이 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확실히 다짐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협회가 피나갈 시책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건축의 흐름을 요약집대성 하고자 "한국의 건축"책자를 발간추진중에 있고, 이미 시행중에 있는 건축사연금사업을 보다 회원의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계속 연구·발전사키고자 하며 협회업무를 더욱 능률화하고 간소화하여 본협회와 지부간의 업무협조를 효용화 하기 위한 사무자동화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회원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한 각종 연구사업실서와 건축사외 사회적 인식제고와 권의신장을 위한 꾸준한 홍보선전사업의 전개등은 물론 각종 법령에 대한 개정건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본인은 특히 건축범이나 건축사법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생활편의의 최대한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때 마땅히 고쳐져야 할 시점에서 고쳐지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 되고 동시에 건축사업무의 발전과 건축사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길도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모든 회원의 끊임없는 혐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고 오늘의 이 총회가 많은 성과를 기뭄으로써 성공적인 총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권투를 빌며 이만 격려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會長 安 箕 泰





일시: 1987, 10, 29, 10: 00~ 장소: 올림프스호텔 1층 대회의실

인천직합시지부 제22회 정기총회가 이재창 시장과 삼정구 민정당 국회의원, 인천시 건설국장, 간축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내민으로 모시고 高昌永 지부장외 6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본용회석상에서 그간 노고가 컸던 인천적할지 동구청 건축기사 유영성, 김명구, 남구청 건축기사보 김윤성, 복구청 건축기원 원상희등 관계광무원에게 감사패를 수여 하였으며 高昌水 자부상의 임기반료에 따른 지부장 선출에 있어서는 鄭昌至 회원과 許集 회원이 입후보, 경선한 결과 행昌 奎 회원이 31표를 최목하여 支部長에 선출되었다. 나머지 게표결과는 計集 회원이 29표, 기권이 1표 였다. 무지부장 및 간사・감사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李秉武

幹事/李光男 監事/沈光曼

光州直轄市支部

일시:1987, 10, 30 10:30~ 강소:광주적할시건축사회판(4층) 회의실

회원 82명과 내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 의안을 처리 하였다. 임원계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金德洙

幹 事/朴豆含,安泰炅

- 監 事 / 梁三容

京畿道支部

일시: 1987, 10, 28

상소 : 수원 부라운관광호텔 1층

대회의실

2백43명의 재적회원중 1백53명이

참석한 기운데 개최 되었다. '87년도 업무보고, 참사보고, '87년도 세일·세출현황 보고의 순서를 거쳐 부의안전 실와에 듣이갔으며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자에산(안)을 통과 시켰다. 입원개선의 순서에서는 副支部長 선출과 업기 만화된 幹事와 監事 의 개선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 / 宋寅昌 幹 事 / 禹鍾養 李一潤 權純在

監事/ 尹榮才

江原道支部

일시: 1987, 10, 22. 10: 30~ 장소: 춘천세종관광호텔 회의실

제적회원 39명중 3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安箕泰 회장의 激勵群 (金 堪壽 무희상 대독)와 제21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가 있은 다음 부의안건의 순으로 둘어갔으며 '88년도 사업계획(안), '88년도 수지예산 (안)을 원안대로 중인하였다. 임원개선의 순서에서는 副支部長 선출과 2인의 임기만료 韓事, 1인의 임기만료 監事의 선출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崔柄郁

幹 事/李國男(額) 趙鎮元

監事/金明烈

忠清北道支部

일시:1987, 10, 30, 15:00~ 장소:중청북도지부 회의실

성기방 충청북도 부지사를 내번으로 모시고 재확회원 57명중 38명의 회원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安箕泰 회장의 激勵辭(李榮 -이사 대목)와 성기방 무지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86년도 정기총회 화의목 승인, 주요입무보고 갑사보고가 있었다.

'88년도 사업제획 및 수지예산(안)

▼ 高昌永 인천지부장이 유공공무원에게 감사패수여



▼ 경기도지부총회

身22回定期給會與自律淨化決議大會 1987.10.28 大照明 1987.10.28





▲ 강원지부총회

은 소위원회를 구성, 재편성하여 지부 임원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으로 조건부 중인을 하였으며 副支部長 선출과 임기만료된 幹事・監事에 대한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朴五均 幹 事/宋寅澤 李基東 監 事/愼寧東

忠清南道支部

일시: 1987, 10, 28, 10: 30~ 장소: 대전 신신농장 예식원

9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대 개최되었다.

安策泰 회상의 激勵縣(金基壽 무화장 대위)와 이봉확 충청남도 무지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이어서 副支部長의 선출과 임기만료 幹事・監事의 개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나음과 끝나.

副支部長/李元雨 幹 事/朴章用(留)元裕澤(留) 鄉寅協(新)

事 / 柳聖熙(留)

全羅北道支部

일시:1987.10.29. 17:00~ 장소:경주조선호텔 회의살

재직회원 57명중 4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본회에서 尹 銀 이사가 참석 하였으며 전라북도 주택과 김태석 행정계장이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참석 하였다.

'88년도 지부 사업계획(안) 및 수지대산(안) 심의의 순서에 이르러서는 아의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며 副支部長 선출과 임기만료된 幹事・監事의 개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電洛雲

幹 事/罹錫珪(褶)許澈(新)

監 事 / 朴鍾允



일시:1987, 10, 26, 14:00~ 장소: 광주시 추선회관 5층 화의실

이명내 전라남도 부지사와 아재현 건설국장이 내만으로, 본협회에서 金基語 무회장과 趙春元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31명의 회원으로 成員이 되어 정기총회의 박을 올렸다. 개회초,

도 安箕泰 회장의 激勵辞(金星壽 무화장 대독)와 이병내 부지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이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8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88년도 사업계획 (안)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으며 부지부장 선출과 임기만료 幹事・ 監事을 개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 되었다.

副 支部長 / 李恵老 幹 事 / 金徳泰 (補) 要寅秀(留) 監 事 / 魯相朔 - 서재권(補)



▲ 충북지부총회



▲ 전북지부총회



▲ 전남지부총회



▲ 경북지부총회



▲ 경남지부총화



일시: 1987. 10. 29. 11: 00~ 장소 : 경산군 남산면 소재 상대온천관광호텔

재적회원 70명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金基壽 부회장에 의해 安箕泰 회장의 지부총회 격려사가 대독 되었으며 임기만료되는 幹事, 監事,分所長,代議員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창이 있었다. 계속하여 장학생에게 장학급 전달과, 金永吉 지부장이 개병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후 道公務員과 간단회를 하기 위해 1시간의 休會로 들어갔다. (이상 支部消息 참조) 총회는 오후 1시30분 속개 되었는데 신입회원이 먼저 소개되었고 뒤를 이어 회순에 따라 제21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86년도 걸산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가서는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 1백 16명의 제적회원증 81명이

원았대로 통과시켰으며 곧이어 副支部長 선출과 임기 만료된 幹事와 監事를 개선하였다. 한편 본총회에는 본부에서 金基壽 부회장과 姜基世 이사가 참석 하였으며 내번으로는 김각현 경상북도 부지사를 비롯 배성점 주택과장, 김재호 주택과 행정계장. 이정동 경산군수, 김재우 경산군 도시과상, 오용환 경산군 주택계장. 김종인 계명대학교 공과대학장, 이종우 계명대학교 교수 등이 찬석하였다.

副 支部長 선출 및 임기만료 幹事・監事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 / 李英基 事/金永兌 崔鍾培(補) 事/金泳哲

慶尚南道支部

일시: 1987, 10.22, 10:30~ 장소 : 경상남도 건축사회관 회의실



회의록 승인, 86년도 견산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副 支部長 선출과 임기가 만료된 幹事와 監事의 개선에 들어 갔다. 신임 副支部長과 새로 선임된 감사는 다음과 같다.

副支部長/金東準

事 / 金基語(留) 事 / 李正浩 金性逸(補)

濟州道支部

일사: 1987. 11. 5. 15: 30~ 장소 : 파라다이스 제주호텔 2층회의실

재적회원 32명중 24명이 참석하여 성원된 가운데 개최선언으로 총회의 막이 올랐다. 지부장 開会辞에 이어 安箕泰

제주도의 송무훈 개발담당관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직후 회원으로부터 건축사업무 개선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차후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질의를 마친 후 내빈 퇴장을 위한 휴회를 하였다.

총회는 오후 4시에 속개 되어 제21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1987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의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88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의 승인과 임원개선 등 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새로 선출된 幹事,監事는 다음과 같다.

事/金有奉 事/金白教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269-1 7 1 8